

2021

정책연구 2021-20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

연구진 전희진 · 김시백 · 오병록 · 전아람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1-20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 책임	전희진	부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2장, 3장, 4장, 부록
공동 연구	김시백	연구위원	제4장 1절, 2절 일부
	오병록	연구위원	제4장 1절, 2절 일부
	전아람	전문연구원	제2장 1절, 2절, 3장 1절, 부록 일부

자문위원	김혜경	전북대학교 교수
	임우연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연구관리 코드 : 20JU2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요약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전국 1인가구는 전체 가구유형 중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 2020년 31.7%로 전체 가구유형의 1/3을 차지하고, 전라북도의 경우 2000년 전체 가구유형 중 1인가구가 17.4%, 2010년 26.5%, 2020년 33.8%로 전국수준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임
- 1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함에도, 다인가구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방향이 지속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1인가구 관련 정책 대응이 요청
- 1인가구는 일반적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경제적 빈곤이나 안전, 등의 문제에서 더욱 취약하여 이들의 세대별 실태와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제안을 할 필요가 존재

■ 연구내용

- 도내 1인가구 특징 및 세대별, 지역별, 성별 현황 분석
- 1인가구 지원체계, 주거·안전, 소득·삶의 질, 사회적 관계·여가 등의 정책 환경 변화에 주목하여, 1인가구 지원 정책방향 및 단기과제 도출

■ 전라북도의 1인가구 현황

- 전라북도의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는 전국과 마찬가지로 4인 이상의 다인 가구는 감소하고, 2인 이하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1인가구의 경우 2000년 17.4%에서 2020년에는 33.8%로 16.4%p 증가

〈표 1〉 전북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20)

(단위 : 가구,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2019년	2020
전체 가구	601,965 100.0	619,958 100.0	659,946 100.0	717,311 100.0	732,980 100.0	738,307 100.0	755,575 100.0
가구 원수	1인 17.4	136,754 22.1	175,026 26.5	213,750 29.8	232,587 31.7	238,746 32.3	255,269 33.8
	2인 23.5	164,954 26.6	186,191 28.2	209,008 29.1	220,032 30.0	226,681 30.7	233,334 30.9
	3인 18.7	114,667 18.5	120,168 18.2	135,856 18.9	136,476 18.6	135,931 18.4	134,414 17.8
	4인 25.3	135,529 21.9	121,345 18.4	110,132 15.4	101,909 13.9	98,322 13.3	96,907 12.8
	5인 15.1	68,054 11.0	57,216 8.7	48,565 6.8	41,976 5.7	38,627 5.2	35,651 4.7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단위 :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그림 1〉전북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20)

■ 1인가구 성별·연령대별 구성

- 전라북도 1인가구의 연령대는 남성과 여성 모두 전국 평균보다 고령연층에 많이 분포
- 2020년의 경우 남성은 20대의 비중이 1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 1인가구의 연령대는 19세 이하 연령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
- 여성의 경우 60대 이상 노년층 비중은 57.2%로 2000년(65.5%)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70세 이상 연령대의 비중이 39.6%로 매우 높아, 전라북도 여성 1인가구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그림 2〉 전북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20년)

■ 전라북도 1인가구 대상 설문조사

- 목적: 생활 및 사회적 관계·경제·사회활동과 생활환경 등의 실태 파악
- 설문대상: 전라북도 1인가구 851명

〈표 2〉전라북도 1인가구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N	%
계		851	100.0
성별	남성	404	47.5
	여성	447	52.5
연령	20대	114	13.4
	30대	177	20.8
	40대	167	19.6
	50대	175	20.6
	60대 이상	218	25.6
지역	동부	450	52.9
	읍면부	401	47.1
혼인상태	기혼	152	18.1
	미혼	315	37.5
	이혼/별거	219	26.1
	사별	153	18.2

- 〈1인가구 형성이유〉 1인가구 형성이유에 대해서는 이혼/별거/사별로 인하여 1인가구가 되었다는 응답자가 38.0%로 가장 많았고, 직장/학교 때문에 1인가구가 되었다는 응답률이 29.5%로 뒤를 이음
- 〈1인가구 만족도〉 1인가구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률(만족함+매우 만족함)은 42.1%이며 만족하지 않다는 응답률(만족하지 않음+전혀 만족하지 않음)은 27.0%로 1인가구의 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응답자가 더 많음
 - 성별로는 남성(37.6%)보다 여성(46.3%)의 만족도가 더 높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여, 20~30대는 과반이 넘는 61.8%가 1인가구 생활에 만족한 반면, 40~50대는 33.3%, 60대 이상은 29.9%만이

1인가구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

-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39.1%)보다 도시(45.6%)의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1인가구 관심사> 1인가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건강이고, 취업/창업과 직장생활의 순으로 나타남

	전체	성별		연령			지역	
		남성	여성	2030	4050	60+	도시	농촌
1순위	건강	건강	건강	직장생활	건강	건강	건강	건강
2순위	취업/창업	직장생활	취업/창업	취업/창업	직장생활	인간관계	직장생활	취업/창업
3순위	직장생활	취업/창업	직장생활	결혼	취업/창업	취업/창업	취업/창업	직장생활

<그림 3>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1위~3위)

○ <1인가구 사회적 관계> 1인가구 응답자 중 13.3%는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응답

- 성별로는 여성(11.6%)보다 남성(15.1%)이 고민상담 대상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상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아짐
- 지역별로는 농촌 지역(18.7%)이 도시지역(7.2%) 대비 2배가량 고민 상담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의 노후> 1인가구 중 53.5%는 자신의 노후가 염려된다고 응답

- 염려된다는 응답률은 성별로는 남성(50.0%)보다 여성(56.7%)이 더 노후를 염려
- 연령별로는 20~30대는 40.2%에 불과하였으나 40~50대는 60.2%, 60대 이상은 61.0%가 노후가 염려된다고 응답
- 지역별로는 도시(49.3%)보다 농촌(57.3%)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노후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 소득>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299만원 구간이 28.9%로 가장 많았고, 100~199만원 18.9%, 300~399만원 18.0%, 400만원 이상 13.1%, 순

- 여성보다 남성의 월평균 소득이 높아 남성은 200~299만원 구간의 수입이 33.3%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100~199만원 구간의 수입이 26.9%로 가장 높음
- <1인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자가 52.2%로 가장 많고, 전세 19.9%, 월세 19.0%, 사글세 6.6%, 관사 등 무상 2.2% 순
 - 성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자가와 무상의 비율이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월세와 사글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30대의 경우 월세가 35.5%로 가장 높고, 전세 28.3%, 자가 23.4% 순으로 나타난 반면, 40~50대는 자가 58.4%, 60대 이상은 자가 81.1%에 이름

■ 시사점

- 청년 1인가구는 건강에 대한 문제나 사회적 고립 문제에서 비교적 안전한 반면, 고용불안에 따른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 취약
- 중장년 세대는 이혼/사별 등으로 인해 1인가구가 되는 비율이 높아, 고립에 따른 고독사의 문제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적, 정서적인 안정의 문제가 존재
 - 노년층이나 청년층에 비해 안정된 세대로 간주되어 주목받지 못함
- 노년 1인가구는 대부분 이혼과 사별로 형성되며, 특히 여성의 경우 거동이 가능한 시기까지 다른 가족이나 시설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려는 경향이 존재
 - 위급상황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
- 도시와 농촌 1인가구의 지역적 차이는 세대 구성의 차이로 파악하는 것이 더욱 적절
- 인구구성에 따라 부각되는 문제점이 차이를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지역의 인프라와 인구 분포에 맞는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요청
- 여성의 경우, 안전한 거주환경에 대한 요구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주거의 경우, 일자리가 불안정한 청년층이 직장 가까이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주거비용이 높아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많음
- 1인가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1인가구 지원조례 마련과 1인가구 지원센터 설립 등이 요청

■ 1인가구 형성 원인과 주요 특성

〈표 3〉 세대와 지역별 1인가구 형성 원인과 주요 특성

	세대			지역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도시	농촌
형성요인	직장이나 학교(48.1%) 가족과 사는 것이 불편(17.0%) 순	이혼/별거/사별(40.3%), 직장이나 학교(27.4%) 순	이혼/별거/사별 72.2%로 높은 비중	직장과 학교 때문 41.2%	이혼/별거/사별 45.0%
희망가구·거주형태	배우자와 함께 (44.6%)	지금처럼 혼자(25.5%)와 배우자와 함께(29.6%)가 거의 유사	원가족과 함께(25.6%), 지금처럼 혼자(25.1%)	배우자와 함께(32.8%)	배우자와 함께(32.2%)
1인가족 만족도(5점 만점)	3.68(최고)	3.06	2.84(최저)	3.34	3.10
1인가구 생활의 단점(다중응답)	경제적 불안	외로움	위급시 대처 어려움	위급시 대처 어려움	외로움
6개월간 월평균 소득	200~299만원 39.2%	200~299만원 29.1%, 300~399만원 24.9%로 유사	100만원 미만 68.8%로 많은 비중을 차지	200~299만원 29.0%, 300~399만원 18.8% 순	200~299만원 28.9%, 100~199만원 23.0% 순으로 도시에 비해 소득이 낮음
주택점유형태	보증금 있는 월세 35.5%	자가 58.4%	자가 81.1%	자가 52.1%	자가 52.3%
주택유형	연립/다세대(43.1%), 아파트(23.8%) 순	단독(38.1%)과 아파트(33.1%)가 비중이 유사	단독(58.1%), 아파트(27.2%) 순	아파트(41.3%), 연립/다세대(32.5%) 순	단독(54.9%), 연립/다세대(23.7%) 순

	세대			지역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도시	농촌
거주지 선택이유	직장거리, 비용저렴 순	직장거리, 본거주지 순	본거주지, 비용저렴 순	직장거리, 본거주지 순	본거주지, 직장거리 순
안전(5점 만점 기준)	3.32(최고)	3.13	3.11(최저)	3.23	3.16 농촌지역이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도시대비 낮음
노후에 대한 걱정(5점 만점)	3.11	3.577	3.578(최고)	3.32	3.50 농촌지역이 노후에 대한 걱정이 도시 대비 높은 편
건강(5점 만점 기준)	3.84	3.42	2.89(최저) 세대가 높아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짐	3.6	3.28 농촌지역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사회적 관계	3.62	3.41	3.32 세대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짐	3.58	3.35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여가	3.42	3.36	3.43	3.56	3.25

■ 청년 1인가구

-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직장이나 학교 등의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로는 원가족과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함으로 1인가구를 선택
- 가장 큰 불안요인은 경제적 불안과 주거문제로, 건강이나 노후에 대한 걱정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임
 - 따라서 경제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구직 기간 중 한시적 생계 지원, 월세나 주거지원 등이 요청
- 청년 여성은 안전 문제가 큰 편으로, 안전에 대한 지원 요청

■ 중장년 1인가구

- 이혼이나 사별 등의 가족 내 원인이 40%, 직장의 문제로 1인가구를 선택한 비중이 27.4%로 그 뒤를 이음
- 1인가구의 단점으로 외로움, 위급시 대처, 경제적 불안 순으로 답변하여, 가족과의 단절에서 오는 문제에 대한 지원이 요청
- 사회적 고립감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요청되나, 이에 대한 지원은 중장년으로 한정하기보다는 1인가구 전체에 대한 지원으로 심리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중장년 1인가구가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데 비해, 여성 1인가구는 그러한 안정적인 소득 원천이 부족한 것이 사실로,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이혼 후 생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이에 대한 중장년 여성 대상 직업훈련 교육이 필요

■ 노년 1인가구

- 1인가구의 형성 원인은 사별과 이혼 등의 원가족과의 분리로 발생한 경우가 일반적임
- 1인가구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위급시 대처 방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독거노인 응급 알람 서비스'와 같은 돌봄 보호망이 요청

- 주거는 자가 비율이 높아 월세 등의 비용은 적게 드는 편이지만,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요청
-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해, 많은 1인가구 노인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존재
- 노인 1인가구의 영양불균형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층 대상 식생활 교육 제공 및 HMR 사업에 있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로컬푸드와 연계된 밀키트 사업 발굴 가능

■ 도시와 농촌 1인가구

- 도시의 1인가구 형성 요인의 40% 정도가 직장과 학교로 인해 발생하는데 비해, 농촌 1인가구의 경우는 이혼이나 사별 등의 원가족과의 관계의 변화로 인한 경우가 45%에 이룸
-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 6개월간 평균소득, 안전, 노후에 대한 걱정, 건강,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설문에서 도시보다 농촌의 상황이 부정적으로 나타나서, 농촌 1인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청
- 농촌 1인가구의 70%이상이 노인 1인가구로, 농촌지역의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같이 촘촘하고, 지속적인 사업이 필수적임



〈그림 4〉 전라북도 1인가구 비전, 목표, 전략

■ 핵심 사업

사업명 : 1인가구 지원센터

사업 목적

-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이 등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포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 확대가 요청
- 1인가구 지원센터를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 설립하여 1인가구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정의 효과를 창출
- 1인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1인가구의 다양한 정책 요구를 수용하고,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플랫폼으로 작동

〈유사 사례〉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팀(1인가구 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패밀리 서울은 조직에 1인가구지원팀을 설립
 - 1인가구 특성화사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료집 발간)
 - 1인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 1인가구 지원사업 (강사 모집 및 교육, 담당 실무자 교육)
 - 1인가구지원사업 홍보지원
 - 자치구 1인가구지원사업 모니터링



센터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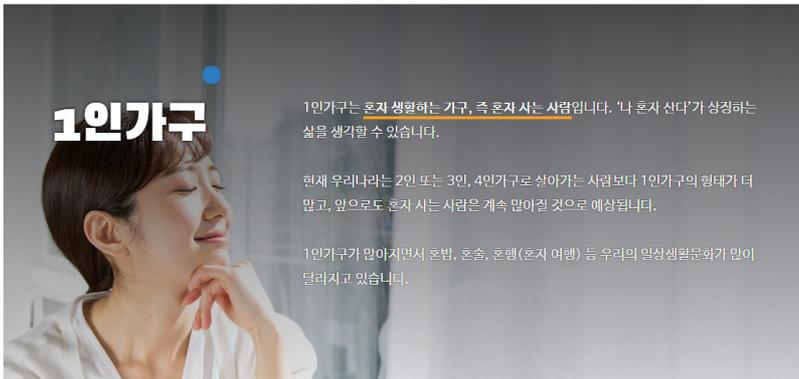
센터소식

가족형태별 정보

가족생애주기별 정보

1인가구

가족상담



자료: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패밀리 서울 <https://familyseoul.or.kr/one>

사업 내용

- 1인가구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 생활체육 동호회를 비롯하여 독서모임, 영화읽기, 미술모임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대여와 활동지원금 지원
 - 1인가구에게 취약한 가족안전망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공동체 활성화 가능
- 사회적 고립감 극복을 위한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나 1인가구 인식 개선 사업
 - 청년 1인가구의 정신건강 돌보미 사업이나 중년 1인가구의 자살예방 사업
 - 1인가구의 사회적 편견 해소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이나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

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전라북도
- 참여 기관 : 전라북도 14개 시군

기대 효과

- 1인가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 사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여, 사회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

사업명 : 1인가구 지원조례 제정

사업 목적

-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복지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 지역공동체를 강화하여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 대상 및 핵심 사안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 (가안)

- 지원대상: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
- 지원목적: 1인가구의 복지개선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북도가 1인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
- 기본이념: 1인가구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
- 기본원칙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 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주도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기본계획: 전라북도 1인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
 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 실태조사:

1.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
2.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전라북도

기대 효과

- 1인가구 사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업명 : 1인가구를 위한 스마트 안심플랫폼 시범사업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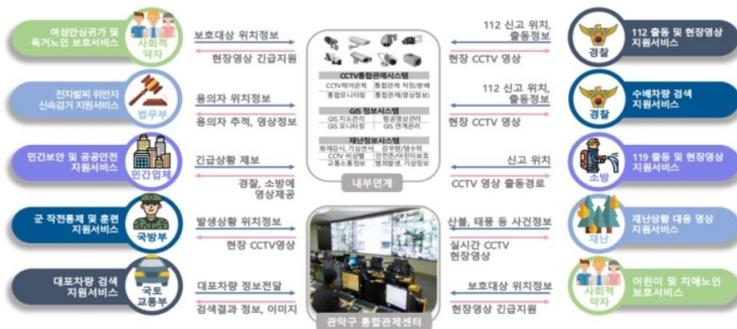
- 다변화되는 4차산업 혁신환경의 발전에 힘입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기술·감성 융합형 스마트시티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지역 내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와 소방서, 군부대 등에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여,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민들의 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지역 인프라 강화

〈유사 사례〉

서울시 관악구 「스마트시트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 관악구는 국비 6억을 확보, 총 12억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CCTV 통합관제 센터와 공공안전 분야 연계를 통한 저비용·고효율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 공원 등 관내 범죄 취약지역 1,409개소에 4,636대의 CCTV 설치 운영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16명의 관제요원이 4개조 3교대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24시간 거리의 안전 감시
- 관내 CCTV 영상정보를 경찰서, 소방서와 직접 연계하여, △긴급 출동 지원, △ 사회적 약자지원, △재난상황 긴급 대응 등 골든타임 확보
- 이후 △수배차량 검색 지원서비스, △여성안심귀가 보호 서비스, △전자발찌 위반자 신속 검거 지원 서비스, △군 작전 통제 및 훈련 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
- 지역 경계를 넘는 통합서비스를 구축하여 서비스 확장이 가능

“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로 피해 최소화 ”



사업 내용

-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연계 구축
 - 112 긴급영상지원, 112·119 긴급 출동, 재난상황긴급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 시민안심귀가, CCTV 빅데이터화, IOT 화재 취약지구 화재 예방 등
- 여성 안심앱과 스마트 통합플랫폼의 연계
 - 스마트 시티센터의 CCTV와 여성 안심앱, 경찰서, 소방서 상황실의 상호 연계
 - 위급시, 여성 안심앱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주변의 CCTV영상을 경찰에 즉시 제공하여, 여성대상 범죄를 실시간 대처
- 1인가구가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대학가 주변이나 원룸촌을 중심으로 1인가구 안심플랫폼 시범사업 실시

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 참여 기관 : 전라북도 14개 시군 (현재, 전라북도 부안군이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

기대 효과

- 도시의 안전망 강화 및 연속성 있는 안심서비스
- 범죄율 감소, 신속한 재난 대응 등 지역민 안전 대응을 비롯, 교통·복지·안전 등 다양한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
- 전라북도 디지털 뉴딜과 연계하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으로 지역 안정망 구축 및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 조성

사업명 : 1인가구 공동체 주택 공급

사업 목적

- 1인가구는 독립된 생활공간 선호
 - 향후에도 혼자 거주하는 것을 희망하지만 주거 공동체 거주도 희망
-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 대응 필요
 - 감염병 팬데믹에 따른 1인가구의 장기간 사회적 접촉의 어려움 해소
- 사회적으로 고립의 가능성이 큰 1인가구에 주거의 공간과 함께 상호간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 제공 필요

〈유사 사례〉

한지붕 협동조합 의정부 커뮤니티

- 사회적 주택사업은 SH서울주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고, 운영기관은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주변 시세대비 50% 정도로 저렴하고,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사업
-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주택 사업체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 개인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지만, 1층에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구상



한지붕 협동조합 의정부 커뮤니티 공간

사업 내용

- 1인가구 수요맞춤형 공동체주택 건립 및 운영관리
- 1인가구 대상 공동체주택 입주 수요 조사
- 공동체주택 건축 대상 부지 선정 및 매입
- 공동체주택 건축 및 입주 대상자 선정

추진 체계

- 사업대상 : 전라북도 14개 시군
- 사업비 : 500억원(도비 200, 시군비 200, 기타 100)
- 사업주체 :
 - 전북개발공사 : 공동체주택 건축 및 운영관리
 - 전북도 및 시군 : 공동주택건축비용 제공

기대 효과

- 청년 1인가구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공동체 속에서 살 수 있는 기회 제공
- 현재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고, 다시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는 방식이지만, 세제혜택 등을 통해 민간부분에서 공동주택 모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 요청

사업명 : 전북형 독거노인건강복지타운 조성

사업 목적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노인을 부양해야 하지만, 자녀와 분리하여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노인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독거노인들을 위한 여가, 건강에 대한 종합복지 인프라가 부족하여 급속한 고령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만 존재하여 노인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를 위한 물리적 인프라 확충
- 노인여가 및 건강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복합타운 조성으로 독거노인의 노인성질환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유사 사례〉

광주노인건강타운

- 광주노인건강타운은 1단계로 노대동에 약 600억원을 들여 약 10만평 부지에 △ 복지관, △ 문화관, △ 체육관, △ 후생관, △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문화, 건강, 복지, 레저 및 여가를 통합 제공하는 노인실버피아 조성
 - 광주노인건강타운은 2단계로 효령동에 약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 일자리지원시설, △ 여가문화복지시설, △ 평생학습시설, △ 체육시설 설치 운영
- ※ 전라북도를 비롯한 호남권은 가장 높은 고령인구비율에도 불구하고 노인 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시급한 설치 필요
(덕유산권 활용을 통한 자연체험형 효문화 테마파크 조성이 가능하고 김제의 국립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세대통합형 효문화 확산에도 시너지 효과 가능)



(A타운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B타운 효령동 노인건강타운〉

사업 내용

- 전북형 독거노인 전용 실버피아 조성
 - 노인문화복지센터, 노인여가체험센터, 노인후생복지관, 노인건강복지센터 등을 집적화하여 노인의 건강과 여가를 통합적으로 제공
 - 고령친화산책로를 조성하여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일반인 모두를 포함한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자연을 느끼며 즐길 수 있는 건강길을 조성
- 독거노인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구축
 - 독거노인 정신건강 대응 프로그램 운영
 - 커뮤니티 기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 맞춤형 영양 관리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

추진 체계

- 추진 주체 :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 참여 기관 : 전라북도 동부권

기대 효과

- 독거노인 대상 노인복지재정의 효율적 활용
- 전라북도의 대규모 노인복지타운 조성을 통한 다양한 노인복지수요 해소
-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 및 웰다잉 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5
제2장 1인가구 현황 및 정책	9
1. 성별·연령별 1인가구 현황	11
가. 전국 1인가구 현황	11
나. 전라북도 1인가구 현황	16
다. 향후 1인가구 추계 현황	28
2. 1인가구 관련 지원 정책	31
가. 중앙정부 1인가구 관련 지원 정책	31
나. 지방자치단체 1인가구 관련 지원정책	34
제3장 전북지역 1인가구의 특성 및 이해	41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43
가. 조사개요	43
나. 분석 결과	44
2.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본 도시남성 1인가구 경험	89
가. 심층면접조사 개요	89
나. 도시 남성 1인가구의 경험	91
다. 농촌 1인가구와 도시 여성 1인가구의 심층면접 결과	104
3. 전라북도 1인가구 특성	107
가. 전라북도 1인가구의 형성원인 및 특징	107
나. 전라북도 1인가구의 세대별 지역별 특징	111

제4장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방향	113
1. 1인가구 지원계획의 비전과 목표	115
가. 1인가구 지원계획 비전과 목표	115
나. 1인가구 추진 전략	115
2. 1인가구 지원 정책방향	118
가.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118
나. 1인가구 주거와 안전	125
다. 1인가구 소득과 삶의 질 향상	133
라. 1인가구 사회적 관계와 삶의 질	138
부록.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및 보고서 검토	147
1.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149
2. 1인가구에 대한 연구보고서 검토	159
참고문헌	167

표목차 | Contents

〈표2-1〉 전국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20)	11
〈표2-2〉 전국 1인가구의 성별 변화 추이(2000~2020)	12
〈표2-3〉 전국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20년)	14
〈표2-4〉 전국 시도별 1인가구 변화 추이(2000~2020)	15
〈표2-5〉 전북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20)	16
〈표2-6〉 전북 1인가구의 성별 변화 추이(2000~2020)	17
〈표2-7〉 전북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20년)	19
〈표2-8〉 도시-농촌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 분포 비교(전주시vs임실군)	20
〈표2-9〉 전라북도 가구원별 월평균 가구소득 비율	23
〈표2-10〉 전북 시군별 가구 변화 추이(2000~2020)	26
〈표2-11〉 전북 시군별 1인가구 성별 비중 추이(2010~2020)	27
〈표2-12〉 전국과 전북의 가구원 수 규모 추세(2017-2047)	29
〈표2-13〉 1인가구가 수혜 가능한 중앙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32
〈표2-14〉 1인가구가 수혜 가능한 중앙정부의 안전 지원 정책	33
〈표2-15〉 1인가구가 수혜 가능한 중앙정부의 건강/돌봄 지원 정책	33
〈표2-16〉 1인가구 지원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34
〈표2-17〉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36
〈표3-1〉 전라북도 1인가구 생활실태 조사 문항	43
〈표3-2〉 전라북도 1인가구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45
〈표3-3〉 1인가구 생활기간	46
〈표3-4〉 1인가구 형성 이유	47
〈표3-5〉 1인가구 만족도	47
〈표3-6〉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중응답)	48
〈표3-7〉 1인가구 생활의 장점(다중응답)	49
〈표3-8〉 1인가구 생활의 단점(다중응답)	50
〈표3-9〉 향후 희망하는 가구·거주형태	51
〈표3-10〉 병원 방문빈도	52
〈표3-11〉 구급약 구입 용이성	53
〈표3-12〉 도구적 지지 현황	54

〈표3-13〉	지난 6개월 간 자살관련 생각 경험	54
〈표3-14〉	지난 1개월 간 심리상태	55
〈표3-15〉	각 영역에 대한 삶의 만족도	56
〈표3-16〉	가족 및 사회관계에 대한 견해	57
〈표3-17〉	고민상담 대상	58
〈표3-18〉	가족 및 친구 소통빈도 - 부모	59
〈표3-19〉	가족 및 친구 소통빈도 - 형제자매	59
〈표3-20〉	가족 및 친구 소통빈도 - 자녀	60
〈표3-21〉	가족 및 친구 소통빈도 - 친구	61
〈표3-22〉	가족돌봄(양육, 간병, 가사 등) 수행	62
〈표3-23〉	이웃의 중요도	63
〈표3-24〉	주민참여활동 빈도	64
〈표3-25〉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바라는 점(다중응답)	65
〈표3-26〉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다중응답)	65
〈표3-27〉	이웃과의 사회적 거리	66
〈표3-28〉	1년간 참여한 사회단체/모임(다중응답)	67
〈표3-29〉	노후에 대한 걱정	67
〈표3-30〉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다중응답)	68
〈표3-31〉	직업별 경제활동 현황	69
〈표3-32〉	종사상지위별 경제활동 현황	70
〈표3-33〉	6개월 간 월평균 소득	71
〈표3-34〉	6개월 간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	72
〈표3-35〉	생활비에서 많이 지출되는 항목(다중응답)	73
〈표3-36〉	생활비에서 적게 지출되는 항목(다중응답)	74
〈표3-37〉	생활비 마련 방법	75
〈표3-38〉	주관적 계층의식	75
〈표3-39〉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대상	77
〈표3-40〉	여가시간 충분 정도	77
〈표3-41〉	여가시간이 부족한 이유(다중응답)	78
〈표3-42〉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다중응답)	79
〈표3-43〉	주택 점유형태	80
〈표3-44〉	주택 유형	81
〈표3-45〉	거주지 선택이유(다중응답)	82

〈표3-46〉 주택선정 시 가장 어려움 점	83
〈표3-47〉 거주지역 만족도	84
〈표3-48〉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	85
〈표3-49〉 공동주택 거주에 대한 생각	86
〈표3-50〉 범죄에 대한 취약성 및 예방교육의 필요성	87
〈표3-51〉 심층면접 조사내용	89
〈표3-52〉 심층면접 대상자	90
〈표3-53〉 세대와 지역별 1인가구 형성 원인과 주요 특성	109
〈표4-1〉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대상 및 내용	118
〈표4-2〉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 대상 및 핵심 사안	121
〈표4-3〉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예시	122
〈표4-4〉 세대, 성, 지역에 따른 장단기 1인가구 지원사업 목록	123
〈표4-5〉 1인가구 공동체 주택 공급 사업안	127
〈표4-6〉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128
〈표4-7〉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129
〈표4-8〉 전라북도 청년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130
〈표4-9〉 빈집활용 맞춤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안	131
〈표4-10〉 공적연금 수급률	135
〈표4-11〉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140
〈표4-12〉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1인가구 포럼 개최	141
〈표4-13〉 고령자 1인가구 공동생활 공간 조성 사업	142
〈표4-14〉 1인가구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서리플 카운슬러	143
〈부록 1〉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학술연구)	154
〈부록 2〉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연구보고서)	159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2-1〉 전국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20)	12
〈그림 2-2〉 전국 1인가구의 성별 구성비 추이(2000~2020)	13
〈그림 2-3〉 전국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20년)	13
〈그림 2-4〉 전북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20)	17
〈그림 2-5〉 전북 1인가구 성별 변화 추이(2000~2020)	18
〈그림 2-6〉 전북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20년)	19
〈그림 2-7〉 전북 성별 1인가구의 도시-농촌 간 구성비 비교(전주시vs임실군)	20
〈그림 2-8〉 전북 1인가구의 거주종류별 구성비 추이(2000~2020)	21
〈그림 2-9〉 전북 1인가구의 성별·거처종류별 구성비	21
〈그림 2-10〉 전북 1인가구의 연령별·거처종류별 구성비	22
〈그림 2-11〉 전국 시도별 1인가구 고용률	23
〈그림 2-12〉 전북 시군별 일반가구 중 1인가구 비중	24
〈그림 2-13〉 전북 전체 1인가구의 시군별 구성비	24
〈그림 2-14〉 전북 시군별 1인가구 비교(2000년 vs 2020년)	25
〈그림 2-15〉 전국 시도별 가장 주된 가구 유형 추이(2017~2047)	28
〈그림 2-16〉 전국 및 전북 1인가구 비율 변화 추이(2017~2047)	29
〈그림 2-17〉 시도별 1인가구 구성비(2017 vs 2047)	30
〈그림 2-18〉 전국 및 전북 1인가구주 연령 구성비 변화 추이(2017~2047)	30
〈그림 3-1〉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1위~3위)	49
〈그림 3-2〉 1인가구 생활의 장점(1위~3위)	50
〈그림 3-3〉 1인가구 생활의 단점(1위~3위)	51
〈그림 3-4〉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1위~3위)	69
〈그림 3-5〉 생활비에서 많이 지출되는 항목(1위~3위)	73
〈그림 3-6〉 생활비에서 적게 지출되는 항목(1위~3위)	74
〈그림 3-7〉 여가시간이 부족한 이유(1위~3위)	79
〈그림 3-8〉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1위~3위)	80
〈그림 3-9〉 거주지 선택이유(1위~3위)	83
〈그림 4-1〉 전라북도 1인가구 비전, 목표, 전략	117

〈그림 4-2〉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운영 및 사업영역	119
〈그림 4-3〉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패밀리 서울 1인가구 홈페이지	120
〈그림 4-4〉 사회적 경제주체(한지붕협동조합)의 운영 형태	125
〈그림 4-5〉 한지붕 협동조합 의정부 커뮤니티 공간	126
〈그림 4-6〉 경상북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모델	133
〈그림 4-7〉 광주광역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예	134
〈그림 4-8〉 서울시 종로구 1인가구 대상 연금 특강	136
〈그림 4-9〉 전주사랑상품권	138
〈그림 4-10〉 청년교류공간 모임의 탄생	139

1

장

서론

Jeonbuk Institute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사회에서 1인가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국 1인가구는 전체 가구유형 중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 2020년 31.7%로 전체 가구유형의 1/3을 차지하게 되었다. 전라북도는 2000년 전체 가구유형 중 1인가구가 17.4%, 2010년 26.5%, 2020년 33.8%로 전국 수준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전북 1인가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66.2%, 2020년 52.3%로 2000년 대비 감소추세 이기는 하나 전국 기준(2000년 57.5%, 2020년 50.3%)에 비해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전라북도의 1인가구 성별·연령대별 구성을 비교하면, 남성은 20~30대 청년층의 구성비가, 여성은 60대 이상 노년층의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라북도 도시와 농촌의 1인가구 분포 현황을 비교해보면, 전주시 여성 1인가구의 경우 20~30대 여성 1인가구가 32.7%인데 비해, 임실군의 경우 20~30대는 11.4%에 불과하고, 60~70대 이상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전주는 41.6%이나, 임실은 74.3%로 나타나, 지역과 성별에 따른 구성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1인가구의 분포가 세대별, 지역별, 성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1인가구의 생애주기, 지역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실태와 삶의 질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정책 욕구에 맞는 적절한 정책제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

서구의 1인가구의 증가는 개인화와 자아를 성찰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기도 하였고(Esteve et al. 2020), 혹은 사회 내에서의 인간관계의 고립과 단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Giddens 1991; 이명진 2019). 그러나 최근 아시아, 특히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1인가구의 확대는 개인화의 논리를 넘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과 도시의 주거여건이 결합한 현상으로 파악된다(Ronald 2017: 25-6; Yeung & Cheung 2015; Dales 2014). 1인가구의 급증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는데,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 젊은 세대에서의 비혼의 증가, 청년 실업 증가로 인한 소득 부족에 따른 결혼 지연, 직장이나 교육문제로 인

한 거주지 선택, 이혼율 증가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가구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영역만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의 다층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1인가구는 일반적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경제적 빈곤이나 안전 등의 문제에서 더욱 취약하여 이들의 세대별 실태와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존재한다. 또한 국가 정책은 일반적으로 다인가구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방향이 지속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1인가구 관련 정책 대응이 요청된다. 1인가구의 구성 원인의 다양성이 보여주듯이, 전라북도 도농의 지역적 격차에 따라 어떤 유형의 1인가구가 집중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경제활동, 문화, 여가생활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서의 새로운 수요와 상품의 확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1인가구의 삶을 도와주는 스마트 홈 시스템이나 네트워킹 강화 사업과 같은 공동체 구축 사업 등이 요청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소득, 안전, 주거, 경제 등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가. 1인가구 관련 지원 정책

국내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제 3조 정의, 2-2항에서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계획’ 제 15조에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명시하고, 제 20조 가족실태조사에서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 및 정책 수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통적인 결혼관계 외의 다양한 가족유형이 출현함에 따라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 및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었고(여성가족부, 2017),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비혼, 1인가구 증가 등 다양한 돌봄과 친밀성의 욕구에 대응하고, 가족 다양성의 증가를 반영하여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여성가족부 2021).

특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족의 다양성 증가에 따라, 모든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비혼이나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의 모습에서 다양한 돌봄과 친밀성에 대해 포용적인 입장으로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제안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1인가구 지원에 적용 가능한 주거, 안전, 건강 및 돌봄, 고용 등에 대한 정책들을 살펴보는 동시에, 지방정부에서의 1인가구 지원 조례와 다양한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그 성과를 살펴보았다.

나. 전라북도 1인가구 실태

전라북도 1인가구 실태분석을 위해서는 국내 및 전북지역의 1인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혼인에 대한 태도와 경험, 생애주기, 거주지역, 경제적 조건 등의 구체적 구분을 통해 1인가구 내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1인가구 형성 및 유지, 주거형태, 주거 안정성, 주거환경, 안전, 직업적 특성과 안정성, 소득 현황, 사회적 관계망, 여가, 건강,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질, 소비습관 등이 설문을 진행하였다.

전라북도 1인가구 실태에 대해서는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와 1인가구 성별 및 세대별 변화 추이 등을 통해 1인가구의 시계열적 구성의 변화를 파악하고, 1인가구의 주거 현황 및 세대별 차이 및 고용률 등의 통계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1인가구 관련 주거 여건, 고용 및 직업 활동, 안전, 돌봄 관련 활동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1인가구 삶의 질 및 정책 수요 관련 심층면접을 통해 1인가구의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가족과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등에 따른 전반적인 상황과 삶의 질, 만족도, 그리고 정책에 대한 요구와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다. 전라북도 내 1인가구 지원사업과 그 현황

전라북도 내 1인가구에 대한 조례는 현재 군산시, 익산시, 장수군의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존재하지만 고독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1인가구 전반에 대한 지원을 논의가 중점은 아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에 대한 조례는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전라북도, 진안군이 마련하고 있으나, 점차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만의 대한 문제에서 1인가구 지원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농촌 1인가구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을 통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도시의 1인가구, 특히 나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와 사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 1인가구 지원사업 발굴

전라북도 1인가구 증가에 맞춘 소득·안전·주거·관계망·산업 등 영역별 대응 전략 발굴을 통한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1인가구 지원체계의 확립, 주거와 안전, 경제·일자리, 사회적 관계와 삶의 질 등으로 그 분야를 구

분하고, 각각의 여건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1인가구 지원체계) 생애주기, 성별, 지역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적절하고 유효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인가구 지원의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1인가구 지원센터나 1인가구를 위한 조례 등의 사업을 제안하였다.

(주거와 안전) 청년·고령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공유주택 활성화 방안과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통한 지원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 1인가구나 취약계층 안전망 확충 방안으로, 안전한 귀가를 위한 CCTV 확충과 “안심이 앱”, “1인가구 안심홈세트” 등의 스마트 시티 구축 방안 등을 도입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경제·일자리) 취약 1인가구 기본 생활보장 및 돌봄 방안으로, 취약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의 수급 지원망 구축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과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의 기초소득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유망 산업 육성 방안으로, 외식산업이나 생산업, 서비스업에 있어서 1인가구 특화시장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템의 지속개발과 컨설팅 지원으로 산업의 활력을 높임과 동시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상호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관계 및 삶의 질)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생성을 위해, 건강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여, 1인가구의 안정적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지원망 구축 방안도 찾아, 1인가구가 생활에 있어서 불편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장

1인가구 현황 및 정책

Jeonbuk Institute

-
1. 성별·연령별 1인가구 현황
 2. 1인가구 관련 지원 정책

제2장 1인가구 현황 및 정책

1. 성별·연령별 1인가구 현황

가. 전국 1인가구 현황

일반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에 따르면 다인가구(4인 이상)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1인가구는 2000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15.5% 수준이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31.7%로 가구원수별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인가구는 2000년 19.1%에서 2020년 28.0%로 약 8.9%p 증가하였다. 반면 4인가구는 2000년 3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0년 15.6%로 15%p 이상 감소하였고, 5인 이상 가구도 2000년 13.4%에서 2020년 4.5%로 1/3 수준으로 감소해 전체가구 중 가장 규모가 작게 나타났다.

2000년과 2005년에는 4인가구의 구성비가 가장 높았으나 2010년에는 2인가구 구성비가 가장 높았고, 2015년 이후 현재까지는 1인가구 구성비가 가장 높고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어 가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소규모화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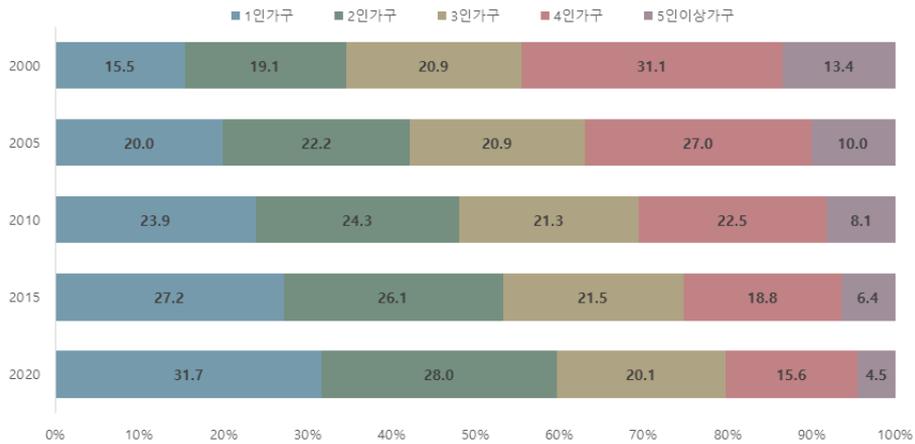
〈표2-1〉 전국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20)

(단위 : 가구,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2019년	2020	
일반가구	14,311,807 100.0	15,887,128 100.0	17,339,422 100.0	19,111,030 100.0	19,979,188 100.0	20,343,188 100.0	20,926,710 100.0	
가구 원수	1인	2,224,433 15.5	3,170,675 20.0	4,142,165 23.9	5,203,440 27.2	5,848,594 29.3	6,147,516 30.2	6,643,354 31.7
	2인	2,730,548 19.1	3,520,545 22.2	4,205,052 24.3	4,993,818 26.1	5,445,691 27.3	5,663,330 27.8	5,864,525 28.0
	3인	2,987,405 20.9	3,325,162 20.9	3,695,765 21.3	4,100,979 21.5	4,203,792 21.0	4,217,736 20.7	4,200,629 20.1
	4인	4,447,170 31.1	4,289,035 27.0	3,898,039 22.5	3,588,931 18.8	3,396,320 17.0	3,300,114 16.2	3,271,315 15.6
	5인 이상	1,922,251 13.4	1,581,711 10.0	1,398,401 8.1	1,223,862 6.4	1,084,791 5.4	1,014,492 5.0	946,887 4.5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단위 :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그림 2-1〉 전국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20)

전국 1인가구의 성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여성의 구성비가 약 15%p 더 높지만, 2015년 이후는 성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남성 1인가구의 증가세가 매우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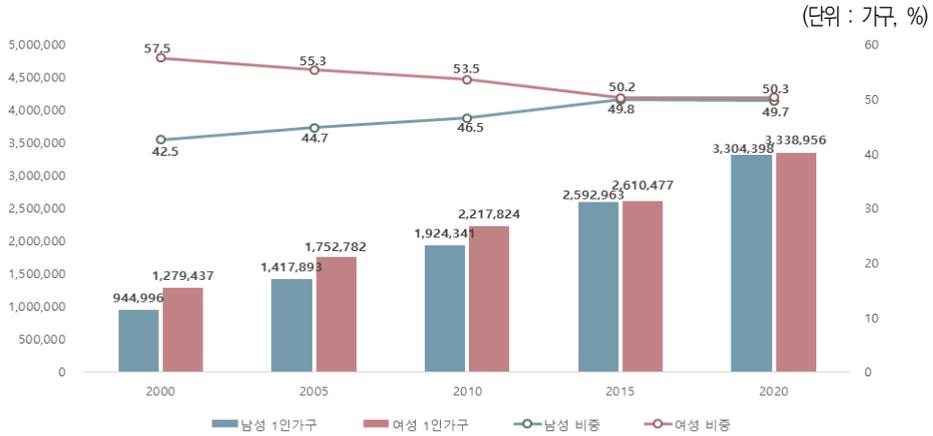
2000년 기준 전국 1인가구의 성별 구성비는 여성이 57.5%, 남성이 42.5%로 남성 1인가구보다 여성 1인가구 인구가 33만 명 이상 많았으나, 그 차이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0년에는 전체 1인가구 중 남성 1인가구 49.7%, 여성 1인가구 50.3%로 성별 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 1인가구는 2000년 1,279,437가구에서 2020년 3,338,956가구로 161.0% 증가하였고, 남성 1인가구는 동기간 944,996가구에서 3,304,398가구로 249.7%가 증가하였다.

〈표2-2〉 전국 1인가구의 성별 변화 추이(2000~2020)

(단위 : 가구,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2019년	2020
전체 1인가구	2,224,433 100.0	3,170,675 100.0	4,142,165 100.0	5,203,440 100.0	5,848,594 100.0	6,147,516 100.0	6,643,354 100.0
남자	944,996 42.5	1,417,893 44.7	1,924,341 46.5	2,592,963 49.8	2,906,320 49.7	3,053,733 49.7	3,304,398 49.7
여자	1,279,437 57.5	1,752,782 55.3	2,217,824 53.5	2,610,477 50.2	2,942,274 50.3	3,093,783 50.3	3,338,956 50.3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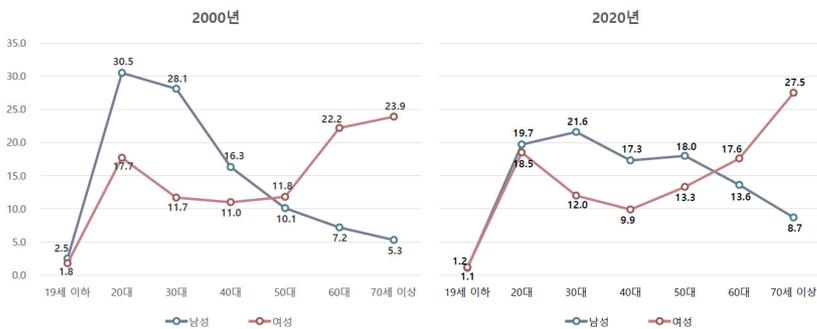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그림 2-2〉 전국 1인가구의 성별 구성비 추이(2000~2020)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비를 비교한 결과, 남성은 20~30대의 청년층, 여성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00년 기준 1인가구 중 남성의 연령대는 20대가 30.5%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8.1%로 뒤를 이어 20~30대 청년층이 58.6%에 육박한 반면 여성의 연령대는 70세 이상이 23.9%로 가장 많고, 60대가 22.2%로 뒤를 이어 60대 이상의 노년층 비중이 46.1%를 차지하였다. 2020년에는 남성의 경우 30대 구성비가 21.6%로 가장 높고, 20~30대 청년층이 41.3%로 많았으며 여성은 70대 이상 구성비가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 노년층이 45.1%로 많이 나타났다.

(단위 :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그림 2-3〉 전국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20년)

〈표2-3〉 전국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20년)

(단위 : 가구, %)

구 분	2000년			2020년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전체 1인가구	2,224,433 <i>100.0</i>	944,996 <i>100.0</i>	1,279,437 <i>100.0</i>	6,643,354 <i>100.0</i>	3,304,398 <i>100.0</i>	3,338,956 <i>100.0</i>
20세 미만	46,576 <i>2.1</i>	23,857 <i>2.5</i>	22,719 <i>1.8</i>	76,202 <i>1.1</i>	35,708 <i>1.1</i>	40,494 <i>1.2</i>
20~29세	514,200 <i>23.1</i>	287,980 <i>30.5</i>	226,220 <i>17.7</i>	1,266,911 <i>19.1</i>	650,151 <i>19.7</i>	616,760 <i>18.5</i>
30~39세	415,264 <i>18.7</i>	265,986 <i>28.1</i>	149,278 <i>11.7</i>	1,115,518 <i>16.8</i>	714,727 <i>21.6</i>	400,791 <i>12.0</i>
40~49세	295,010 <i>13.3</i>	154,305 <i>16.3</i>	140,705 <i>11.0</i>	903,816 <i>13.6</i>	572,267 <i>17.3</i>	331,549 <i>9.9</i>
50~59세	246,105 <i>11.1</i>	95,243 <i>10.1</i>	150,862 <i>11.8</i>	1,039,495 <i>15.6</i>	594,697 <i>18.0</i>	444,798 <i>13.3</i>
60~69세	351,574 <i>15.8</i>	67,846 <i>7.2</i>	283,728 <i>22.2</i>	1,038,985 <i>15.6</i>	451,014 <i>13.6</i>	587,971 <i>17.6</i>
70세 이상	355,704 <i>16.0</i>	49,779 <i>5.3</i>	305,925 <i>23.9</i>	1,202,427 <i>18.1</i>	285,834 <i>8.7</i>	916,593 <i>27.5</i>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1인가구는 모든 시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모든 시도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기준 모든 시도에서 10%대에 불과하던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2020년 14개 시도에서 30%를 넘었고, 나머지 지역도 1인가구가 전체 가구 중 2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전체 가구의 36.3%가 1인가구로 나타났고, 강원(35.0%)과 서울(34.9%), 충북(34.8%)이 뒤를 이었다. 2000년 대비 2020년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전이 21.1%p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서울과 부산(각 18.6%p) 역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울산과 경남은 동기간 13.8%p만이 증가하여 1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3.8%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2000년 대비 2020년 비중은 16.4%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4〉 전국 시도별 1인가구 변화 추이(2000~2020)

(단위 : 가구, 전체가구 중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2019년	2020
전국	2,224,433 15.5	3,170,675 20.0	4,142,165 23.9	5,203,440 27.2	5,848,594 29.3	6,147,516 30.2	6,643,354 31.7
서울	502,245 16.3	675,739 20.4	854,606 24.4	1,115,744 29.5	1,229,421 32.0	1,299,787 33.4	1,390,701 34.9
부산	154,237 13.8	222,515 18.8	290,902 23.4	361,749 27.1	404,408 29.7	423,227 30.7	455,207 32.4
대구	107,913 14.2	148,331 18.2	192,472 22.2	239,517 25.8	269,903 28.2	284,416 29.4	304,543 30.9
인천	97,127 13.0	141,511 17.2	190,882 20.8	243,678 23.3	275,898 25.2	297,865 26.6	324,841 28.3
광주	60,207 14.7	87,447 19.0	122,506 23.7	163,577 28.8	174,614 30.2	182,364 31.1	193,948 32.4
대전	62,742 15.2	98,678 20.6	134,938 25.3	169,391 29.1	195,544 32.5	205,165 33.7	228,842 36.3
울산	42,532 13.9	57,923 17.1	77,421 20.7	103,551 24.5	110,236 25.6	116,015 26.5	122,848 27.7
세종	- -	- -	- -	21,889 29.1	35,763 30.0	39,078 30.1	43,577 31.3
경기	337,555 12.6	562,995 16.9	777,360 20.3	1,026,471 23.4	1,197,586 25.2	1,290,893 26.3	1,406,010 27.6
강원	91,545 18.8	122,139 23.5	155,453 27.9	189,379 31.2	206,295 32.8	208,857 32.9	231,371 35.0
충북	78,780 17.1	114,584 22.7	150,455 26.9	173,598 28.8	204,109 31.8	215,196 32.9	236,208 34.8
충남	101,097 17.2	149,102 22.6	201,875 27.0	234,513 29.5	270,497 31.8	280,773 32.5	304,973 34.2
전북	104,780 17.4	136,754 22.1	175,026 26.5	213,750 29.8	232,587 31.7	238,746 32.3	255,269 33.8
전남	130,679 19.7	163,718 24.6	197,084 28.9	218,864 30.4	235,062 31.9	238,147 32.1	256,633 33.7
경북	163,919 18.5	224,611 23.9	289,704 28.8	322,569 30.4	353,702 32.3	360,213 32.7	388,791 34.4
경남	162,923 17.1	226,117 21.4	286,485 24.9	346,754 27.6	379,719 29.1	391,421 29.6	417,737 30.9
제주	26,152 16.6	38,511 21.5	44,996 24.0	58,446 26.5	73,250 29.4	75,353 29.7	81,855 31.1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나. 전라북도 1인가구 현황

전라북도의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는 전국과 마찬가지로 4인 이상의 다인 가구는 감소하고, 2인 이하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경우 2000년 17.4%에서 2020년에는 33.8%로 16%p 이상 증가하였으며, 2인가구도 2000년 23.5%에서 2020년 30.9%로 7.4%p 증가하였다. 3인가구는 전국과 마찬가지로 2000년(18.7%) 대비 2020년(17.8%)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으며 4인가구는 2000년(25.3%) 대비 2020년(12.8%)의 구성비가 절반 수준, 5인 이상 가구는 2000년(15.1%)보다 2020년(4.7%)의 구성비가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 전라북도에서 구성비가 가장 높은 가구형태는 4인가구(25.3%)였으나, 2005년과 2010년은 2인가구(각각 26.6%, 28.2%) 구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5년 이후는 1인가구의 구성비가 30% 이상으로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 잡았다. 전라북도의 전체 가구가 2000년 601,965가구에서 2020년 755,575가구로 약 25.5% 증가하는 동안 전라북도의 1인가구는 2000년 104,780가구에서 2020년 255,269가구로 143.6% 증가하여 전체 가구보다 5배 이상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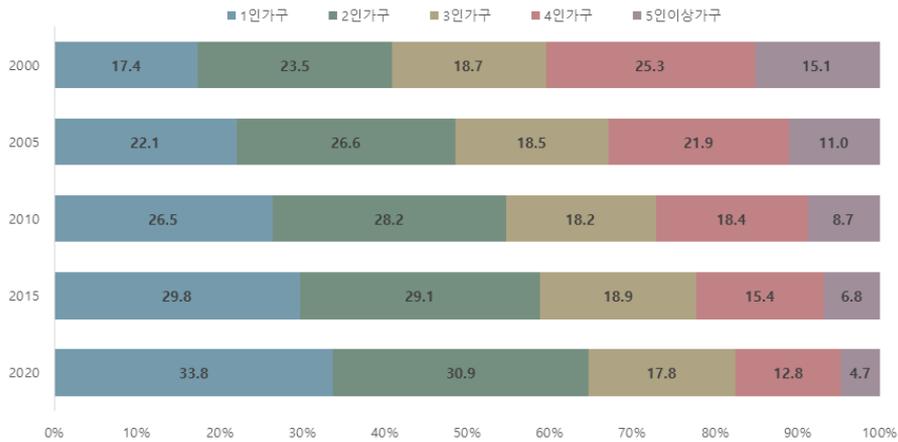
〈표2-5〉 전북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20)

(단위 : 가구,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가구	601,965 100.0	619,958 100.0	659,946 100.0	717,311 100.0	732,980 100.0	738,307 100.0	755,575 100.0	
가구 원수	1인	104,780 17.4	136,754 22.1	175,026 26.5	213,750 29.8	232,587 31.7	238,746 32.3	255,269 33.8
	2인	141,284 23.5	164,954 26.6	186,191 28.2	209,008 29.1	220,032 30.0	226,681 30.7	233,334 30.9
	3인	112,786 18.7	114,667 18.5	120,168 18.2	135,856 18.9	136,476 18.6	135,931 18.4	134,414 17.8
	4인	152,441 25.3	135,529 21.9	121,345 18.4	110,132 15.4	101,909 13.9	98,322 13.3	96,907 12.8
	5인 이상	90,674 15.1	68,054 11.0	57,216 8.7	48,565 6.8	41,976 5.7	38,627 5.2	35,651 4.7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단위 :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그림 2-4〉 전북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변화 추이(2000~2020)

전라북도 1인가구의 성별 변화 추이를 보면, 1인가구를 구성하는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으며, 성별 구성비 차이는 2000년(32.4%p)에 비해 2020년(4.6%p)에 많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국보다 1인가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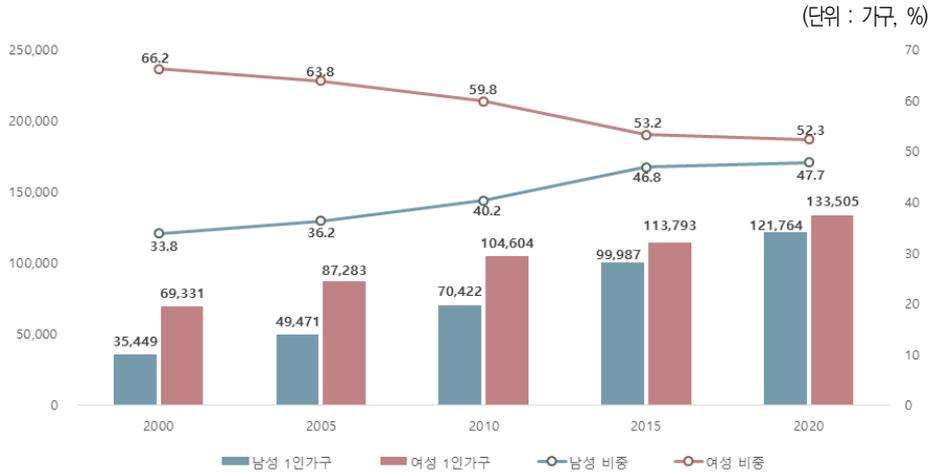
2000년 기준 전라북도의 1인가구는 여성이 66.2%, 남성이 33.8%를 차지하여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보다 30% 이상 많았으나,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2020년에는 전라북도 1인가구 중 남성이 47.7%, 여성이 5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여성 1인가구는 2000년 대비 2020년 92.6%가 증가하였고, 남성 1인가구는 2000년 대비 2020년 243.5%가 증가하여 남성의 증가세가 여성보다 2.63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2-6〉 전북 1인가구의 성별 변화 추이(2000~2020)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2019년	2020
전체	104,780	136,754	175,026	213,750	232,587	238,746	255,269
1인가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자	35,449 33.8	49,471 36.2	70,422 40.2	99,957 46.8	109,521 47.1	112,938 47.3	121,764 47.7
여자	69,331 66.2	87,283 63.8	104,604 59.8	113,793 53.2	123,066 52.9	125,808 52.7	133,505 52.3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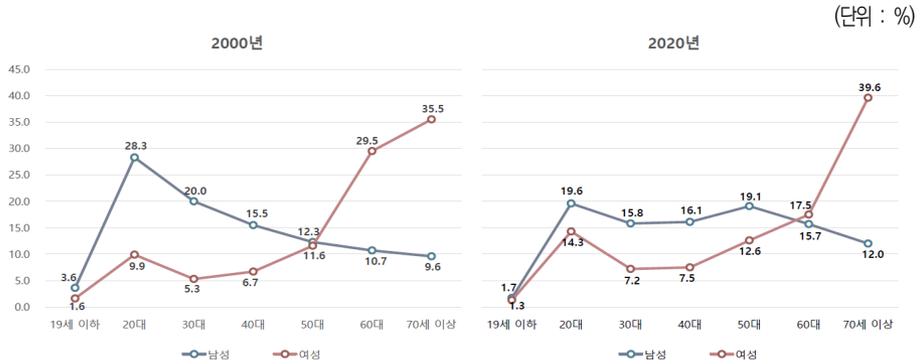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그림 2-5〉 전북 1인가구 성별 변화 추이(2000~2020)

전라북도 1인가구의 연령대는 남성과 여성 모두 전국 평균보다 고령연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2000년 남성 1인가구의 연령대는 20대가 28.3%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20.0%로 뒤를 이어 20~30대 청년층 비중이 48.3%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국의 청년층 비중보다는 10%p 이상 낮았고 60대 이상의 노년층 비중이 20.3%로 같은 해 전국의 비중보다 약 8%p 높았다. 여성의 경우 2000년을 기준으로 70세 이상 연령대가 35.5%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60대가 29.5%로 뒤를 이었는데, 60대 이상 노년층의 비중이 65.0%p에 육박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전국보다도 20%p 가까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남성은 20대의 비중이 1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 1인가구의 연령대는 19세 이하 연령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60대 이상 노년층 비중이 57.2%로 2000년(65.5%)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 중 70세 이상 연령대의 비중이 39.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여성 1인가구 중 70세 이상 연령대 비중인 27.5%보다도 12%p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도 여성 1인가구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그림 2-6〉 전북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20년)

〈표2-7〉 전북 1인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비교(2000년 vs 2020년)

(단위 : 가구, %)

구분	2000년			2020년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전체 1인가구	104,780 100.0	35,449 100.0	69,331 100.0	255,269 100.0	121,764 100.0	133,505 100.0
20세 미만	2,395 2.3	1,292 3.6	1,103 1.6	3,798 1.5	2,102 1.7	1,696 1.3
20~29세	16,873 16.1	10,028 28.3	6,845 9.9	42,882 16.8	23,840 19.6	19,042 14.3
30~39세	10,735 10.2	7,076 20.0	3,659 5.3	28,941 11.3	19,269 15.8	9,672 7.2
40~49세	10,123 9.7	5,485 15.5	4,638 6.7	29,597 11.6	19,582 16.1	10,015 7.5
50~59세	12,367 11.8	4,357 12.3	8,010 11.6	40,124 15.7	23,291 19.1	16,833 12.6
60~69세	24,230 23.1	3,801 10.7	20,429 29.5	42,429 16.6	19,063 15.7	23,366 17.5
70세 이상	28,057 26.8	3,410 9.6	24,647 35.5	67,498 26.4	14,617 12.0	52,881 39.6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전라북도 내 도시를 대표하는 전주시와 농촌을 대표하는 임실군의 1인가구 현황을 비교해보면, 전주시의 경우 여성은 60대 이상이 41.6%로 가장 많고, 남성은 20~30대가 4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실군은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 이상 1인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여성은 74.3%, 남성은 44.1%가 60대

이상 1인가구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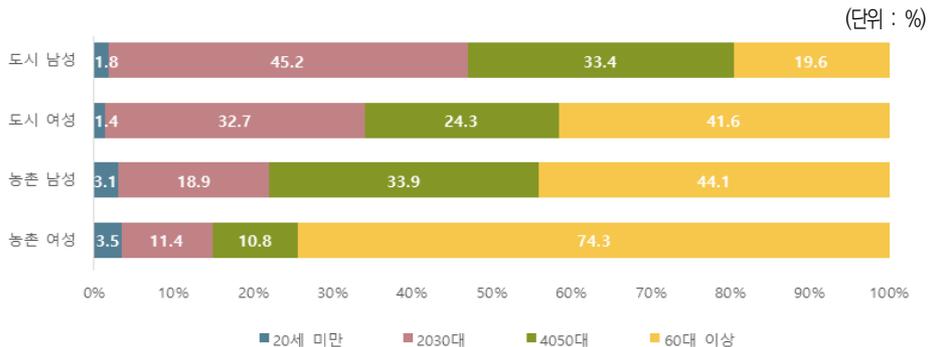
이처럼 1인가구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분포가 상이하므로, 사회적·지역적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욕구를 이해하여 각 특성에 적합한 정책제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표2-8〉 도시-농촌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 분포 비교(전주시vs임실군)

(단위 : 가구, %)

구분		계	20세 미만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라북도	계	255,269 100.0	3,798 1.5	71,823 28.1	69,721 27.3	109,927 43.1
	남자	121,764 100.0	2,102 1.7	43,109 35.4	42,873 35.2	33,680 27.7
	여자	133,505 100.0	1,696 1.3	28,714 21.5	26,848 20.1	76,247 57.1
도시 (전주시)	계	89,038 100.0	1,446 1.6	34,623 38.9	25,640 28.8	27,329 30.7
	남자	44,046 100.0	799 1.8	19,902 45.2	14,729 33.4	8,616 19.6
	여자	44,992 100.0	647 1.4	14,721 32.7	10,911 24.3	18,713 41.6
농촌 (임실군)	계	4,800 100.0	159 3.3	707 14.7	1,013 21.1	2,921 60.9
	남자	2,137 100.0	67 3.1	403 18.9	725 33.9	942 44.1
	여자	2,663 100.0	92 3.5	304 11.4	288 10.8	1,979 7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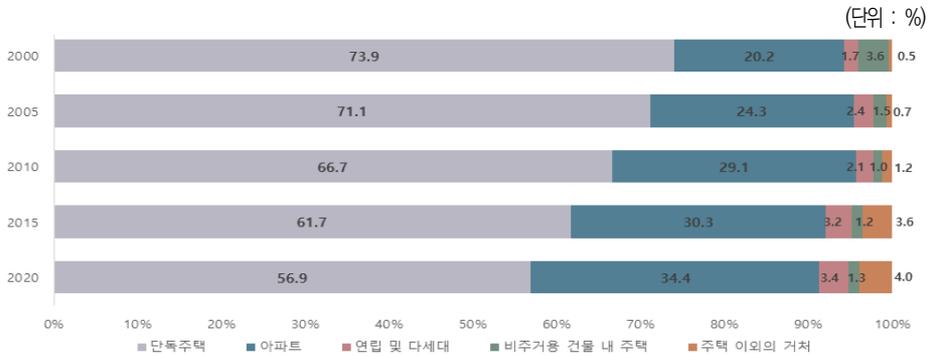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

〈그림 2-7〉 전북 성별 1인가구의 도시-농촌 간 구성비 비교(전주시vs임실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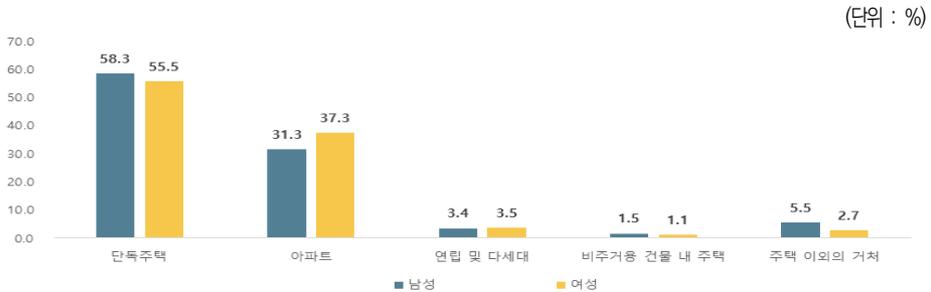
전라북도 1인가구의 가장 주된 거처는 '단독주택'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전체 1인가구 거처의 73.9%가 단독주택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가장 최근 인 2020년에는 56.9%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전라북도 1인가구의 과반 이상이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와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이외의 거처'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2000년 20.2%에서 2020년 34.4%로 약 14.2%p 증가하였고, '연립 및 다세대'는 2000년 1.7%에서 2020년 3.4%,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주택 이외의 거처'는 동기간 0.5%에서 4.0%로 증가하였다.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그림 2-8〉 전북 1인가구의 거처종류별 구성비 추이(200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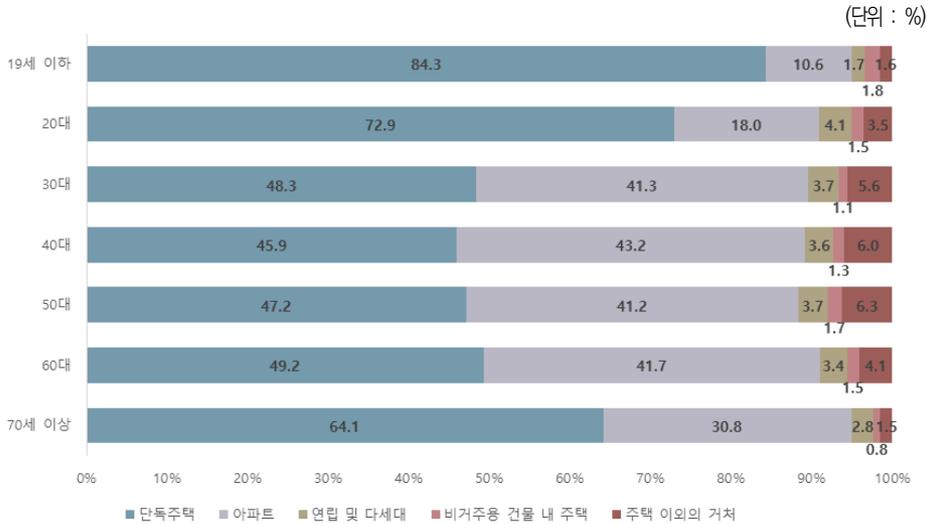
전라북도 성별 1인가구의 거처종류는 남성보다 여성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단독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그 외 거처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

〈그림 2-9〉 전북 1인가구의 성별·거처종류별 구성비

전라북도 연령대별 1인가구의 거주종류를 확인한 결과 19세 이하 1인가구의 84.3%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높았고, 20대가 72.9%, 70세 이상이 64.1%로 단독주택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60대는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40%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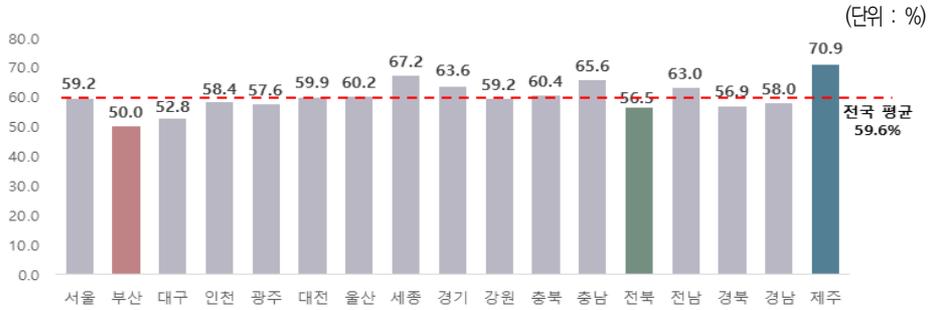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

〈그림 2-10〉 전북 1인가구의 연령별·거처종류별 구성비

시도별 1인가구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1인가구 고용률은 2020년 기준 56.5%로 17개 시도 중 부산과 대구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고용률은 제주가 70.9%로 가장 높고 세종 67.2%, 충남 65.6%, 경기 6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산의 1인가구 고용률은 50.0%에 불과하여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였고 대구 52.8%, 전북 56.5%, 경북 56.9%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1인가구 고용률이 가장 높은 제주와 부산의 고용률 차이는 20.9%p였으며 제주와 전북과는 14.4%p 차이가 나타났다.

전북의 1인가구 고용률은 2016년 57.1%, 2017년 52.7%, 2018년 52.5%, 2019년 55.8%, 2020년 50.0%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20년 고용률이 가장 낮으며 2020년 1인가구 고용률은 전년 대비 5.8%p 감소하였다.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0.

〈그림 2-11〉 전국 시도별 1인가구 고용률

전라북도 가구원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게 나타나며 1인가구는 과반 이상이 100만원 미만 저소득 구간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30대와 40대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구간 비중이 높았으며 10대와 60대 이상 그룹에서는 저소득 분포가 높게 나타났는데 100만원 미만 소득 비율이 각각 81.8%, 74.6%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농촌 1인가구에서 저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2-9〉 전라북도 가구원별 월평균 가구소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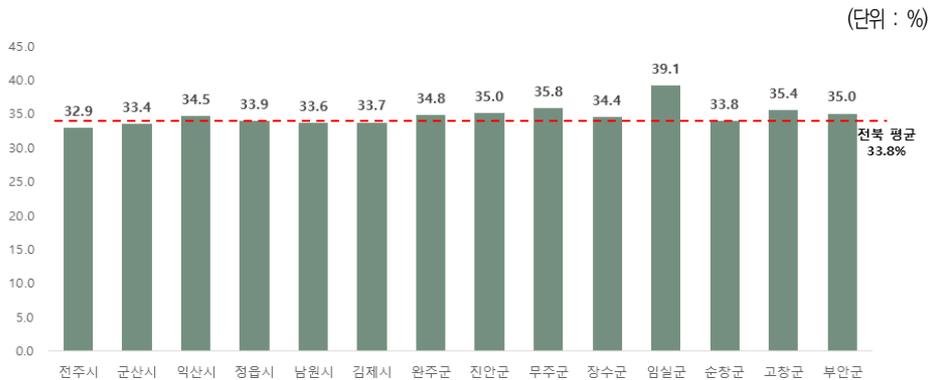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전체가구	1인	59.0	23.2	10.5	4.6	0.9	0.7	1.1	
	2인	21.1	27.4	22.0	14.0	6.7	4.3	4.5	
	3인	6.0	24.0	17.2	18.0	12.5	6.8	15.6	
	4인 이상	0.7	8.3	24.7	23.5	16.4	9.3	17.2	
1인 가구	연령	10대	81.8	18.2	0.0	0.0	0.0	0.0	0.0
		20대	46.3	33.3	16.7	3.7	0.0	0.0	0.0
		30대	27.8	16.7	33.3	22.2	0.0	0.0	0.0
		40대	7.7	23.1	34.6	19.2	3.8	0.0	11.5
		50대	31.8	28.8	18.2	10.6	4.5	3.0	3.0
		60대 이상	74.6	20.5	3.8	0.8	0.0	0.4	0.0
	성별	남자	44.7	22.3	17.9	9.5	2.2	0.6	2.8
		여자	68.8	23.8	5.4	1.2	0.0	0.8	0.0
	지역	도시	53.5	23.0	13.6	5.6	1.4	0.9	1.9
		농촌	64.2	23.5	7.5	3.5	0.4	0.4	0.4
	전체	n	462	473	445	348	207	121	207
		%	20.4	20.9	19.7	15.4	9.1	5.3	9.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19)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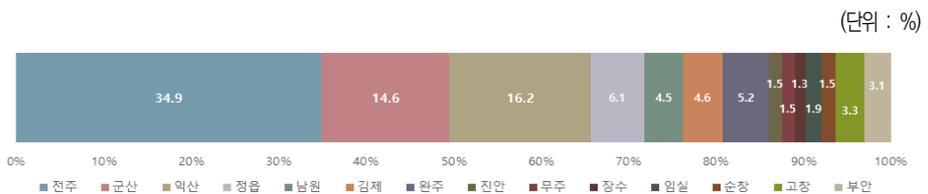
2020년 기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전체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임실군으로 전체 가구 중 39.1%가 1인가구로 나타났다. 임실군을 이어 무주군 35.8%, 고창군 35.4%, 부안군과 진안군 35.0% 순으로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전체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주시로 전체 가구의 32.9%가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시 33.4%, 남원시 33.6%와 김제시가 33.7%로 상대적으로 전체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았던 임실군과 무주군,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등은 비중이 낮은 전주시나 군산시보다 고령화가 더 많이 진행된 지역으로 해당 지역 1인가구 중 상당수가 독거노인인 노년층일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전라북도의 전체 1인가구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전주시가 89,038명(34.9%)으로 가장 많은 1인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익산시 41,275명(16.2%), 군산시 37,319명(14.6%) 순으로 1인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가 가장 조금 거주하는 지역은 장수군(3,231명, 1.3%)이었다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

〈그림 2-12〉 전북 시군별 일반가구 중 1인가구 비중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

〈그림 2-13〉 전북 전체 1인가구의 시군별 구성비

전라북도 시군별로 2000년 대비 2020년 1인가구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전주시가 2000년 24,059명에서 2020년 89,038명으로 270.1%가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1인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군산시가 2000년 11,603명에서 2020년 37,319명으로 2배 넘는 221.6%가 증가하였으며 완주군과 익산시가 각각 148.3%, 13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기간 1인가구의 증가율이 가장 적은 지역은 순창군으로 2000년 2,985명이었던 1인가구가 2020년 3,938명으로 단 31.9%만이 증가하였다. 고창군(46.0%)과 부안군(51.7%) 역시 2000년 대비 2020년 1인가구의 증가폭이 50% 수준이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여 다른 지역보다 1인가구의 증가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할 점은 전체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군단위 지역 중에서도 인구의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임실군과 무주군, 고창군, 등인 반면, 2000년 대비 2020년의 1인가구 수가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부분 시지역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많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라는 점이다.

(단위 : 가구)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

<그림 2-14> 전북 시군별 1인가구 비교(2000년 vs 2020년)

〈표2-10〉 전북 시군별 가구 변화 추이(2000~2020)

(단위 : 가구,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	
	일반 가구	1인 가구								
전라 북도	601,965	104,780 17.4	619,958	136,754 22.1	659,946	175,026 26.5	717,311	213,750 29.8	755,575	255,269 33.8
전주	182,420	24,059 13.2	199,905	35,623 17.8	224,883	51,166 22.8	247,223	68,972 27.9	270,768	89,038 32.9
군산	82,092	11,603 14.1	84,736	17,021 20.1	94,944	23,591 24.8	106,127	31,080 29.3	111,817	37,319 33.4
익산	100,901	17,351 17.2	104,695	23,283 22.2	109,391	30,138 27.6	117,517	35,959 30.6	119,474	41,275 34.5
정읍	44,174	9,198 20.8	43,430	10,820 24.9	43,716	12,551 28.7	45,119	13,962 30.9	45,970	15,563 33.9
남원	32,627	7,098 21.8	32,668	8,674 26.6	31,329	9,156 29.2	33,145	10,378 31.3	33,974	11,404 33.6
김제	34,867	7,101 20.4	34,045	8,732 25.6	33,295	10,059 30.2	34,671	10,795 31.1	34,697	11,679 33.7
완주	25,354	5,395 21.3	26,692	6,141 23.0	29,493	8,012 27.2	35,902	10,671 29.7	38,551	13,398 34.8
진안	10,225	2,127 20.8	9,176	2,373 25.9	9,153	3,119 34.1	9,932	3,175 32.0	10,674	3,735 35.0
무주	9,686	2,099 21.7	9,259	2,486 26.8	9,476	3,132 33.1	9,948	3,197 32.1	10,469	3,748 35.8
장수	8,582	1,941 22.6	8,226	2,231 27.1	8,300	2,601 31.3	8,975	2,866 31.9	9,383	3,231 34.4
임실	11,951	2,971 24.9	11,053	3,325 30.1	10,693	3,609 33.8	11,347	3,708 32.7	12,288	4,800 39.1
순창	11,758	2,985 25.4	11,026	3,349 30.4	10,891	3,687 33.9	11,440	3,826 33.4	11,647	3,938 33.8
고창	24,120	5,702 23.6	22,893	6,596 28.8	22,782	7,458 32.7	23,468	7,773 33.1	23,512	8,326 35.4
부안	23,208	5,150 22.2	22,154	6,100 27.5	21,600	6,747 31.2	22,497	7,388 32.8	22,351	7,815 35.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표2-11〉 전북 시군별 1인가구 성별 비중 추이(2010~2020)

(단위 : 가구, %)

구분	2010			2015			2020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전주	51,166	23,570 46.1	27,596 53.9	68,972	34,363 49.8	34,609 50.2	255,269	121,764 47.7	133,505 52.3
군산	23,591	11,517 48.8	12,074 51.2	31,080	16,612 53.4	14,468 46.6	89,038	44,046 49.5	44,992 50.5
익산	30,138	13,738 45.6	16,400 54.4	35,959	17,894 49.8	18,065 50.2	37,319	19,338 51.8	17,981 48.2
정읍	12,551	3,969 31.6	8,582 68.4	13,962	5,634 40.4	8,328 59.6	41,275	20,488 49.6	20,787 50.4
남원	9,156	2,804 30.6	6,352 69.4	10,378	4,156 40.0	6,222 60.0	15,563	6,777 43.5	8,786 56.5
김제	10,059	2,961 29.4	7,098 70.6	10,795	4,016 37.2	6,779 62.8	11,404	4,695 41.2	6,709 58.8
완주	8,012	3,598 44.9	4,414 55.1	10,671	5,412 50.7	5,259 49.3	11,679	4,655 39.9	7,024 60.1
진안	3,119	1,008 32.3	2,111 67.7	3,175	1,225 38.6	1,950 61.4	13,398	7,078 52.8	6,320 47.2
무주	3,132	994 31.7	2,138 68.3	3,197	1,236 38.7	1,961 61.3	3,735	1,639 43.9	2,096 56.1
장수	2,601	736 28.3	1,865 71.7	2,866	1,076 37.5	1,790 62.5	3,748	1,555 41.5	2,193 58.5
임실	3,609	929 25.7	2,680 74.3	3,708	1,394 37.6	2,314 62.4	3,231	1,325 41.0	1,906 59.0
순창	3,687	881 23.9	2,806 76.1	3,826	1,291 33.7	2,535 66.3	4,800	2,137 44.5	2,663 55.5
고창	7,458	1,900 25.5	5,558 74.5	7,773	2,797 36.0	4,976 64.0	3,938	1,525 38.7	2,413 61.3
부안	6,747	1,817 26.9	4,930 73.1	7,388	2,851 38.6	4,537 61.4	8,326	3,228 38.8	5,098 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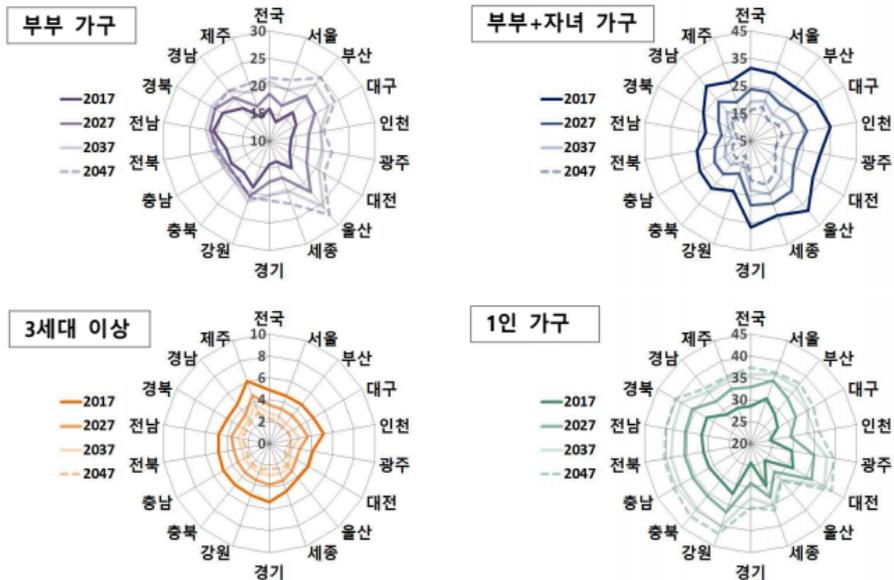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다. 향후 1인가구 추계 현황

통계청이 2019년 12월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7~2047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47년을 기준으로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1인가구가 주된 가구 유형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7년 기준 경기, 인천, 대구 등 10개 시도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유형이 ‘부부+자녀가구’인 반면 전북을 포함한 7개 시도에서는 ‘1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단위 : %)



자료: 통계청(2019).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7~2047년」 보도자료.

〈그림 2-15〉 전국 시도별 가장 주된 가구 유형 추이(2017-2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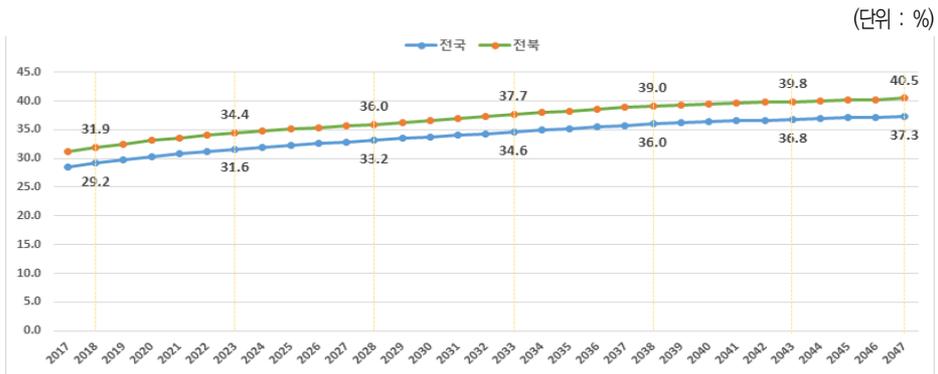
2017년부터 2047년까지 전국 평균 및 전라북도 가구원수 규모 추세를 살펴보면 전북의 전체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은 2017년 31.2%, 2027년 35.7%, 2037년 38.9%, 2047년 40.5%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반면 4인가구의 경우는 2017년에는 17.7%이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2047년에는 5.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북의 1인가구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2-12〉 전국과 전북의 가구원 수 규모 추세(2017-2047)

(단위 : 천 가구, %)

구분	2017		2019		2027		2037		2047	
	전국	전북								
1인	5,583	227	5,987	238	7,114	268	8,076	293	8,320	295
	28.5	31.2	29.8	32.5	32.9	35.7	35.7	38.9	37.3	40.5
2인	5,218	214	5,537	221	6,695	245	7,550	259	7,801	256
	26.7	29.4	27.5	30.1	30.9	32.7	33.4	34.3	35.0	35.1
3인	4,161	136	4,249	137	4,471	138	4,462	132	4,313	126
	21.3	18.7	21.1	18.6	20.7	18.4	19.7	17.5	19.3	17.3
4인	3,469	105	3,302	98	2,660	75	2,040	54	1,566	42
	17.7	14.5	16.4	13.4	12.3	10.0	9.0	7.2	7.0	5.7
5인 이상	1,140	45	1,041	40	709	25	471	15	303	10
	5.8	6.2	5.2	5.4	3.3	3.3	2.1	2.0	1.4	1.4

자료: 통계청(2019).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7~2047년」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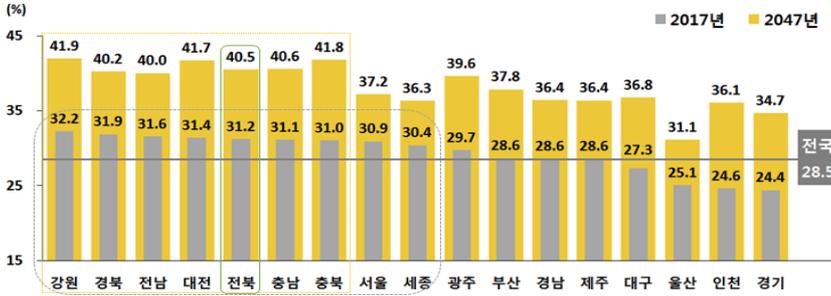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9).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7~2047년」 보도자료.

〈그림 2-16〉 전국 및 전북 1인가구 비율 변화 추이(2017~2047)

통계청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강원도(32.2%), 경상북도(31.9%), 전라남도(31.6%), 대전광역시(31.4%), 전라북도(31.2%) 순으로 높은 반면, 경기도(24.4%), 인천광역시(24.6%), 울산광역시(25.1%)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약 30년 후인 2047년의 경우 전체 가구 중 1인가구의 구성비는 강원도(41.9%), 충청북도(41.8%), 대전광역시(41.7%), 충청남도(40.6%), 전라북도(40.5%) 순으로 높고, 울산광역시(31.1%), 경기도(34.7%), 인천광역시(36.1%) 순으로 낮을 것으로 추계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17개 시도 중 2017년 1인가구의 구성비가 31.2%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고, 30년 후인 2047년에는 40.5%로 10명 중 4명은 1인가구일 것으로

로 예측된다. 2047년까지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은 증가할 것이며,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7개 시도에서는 1인가구의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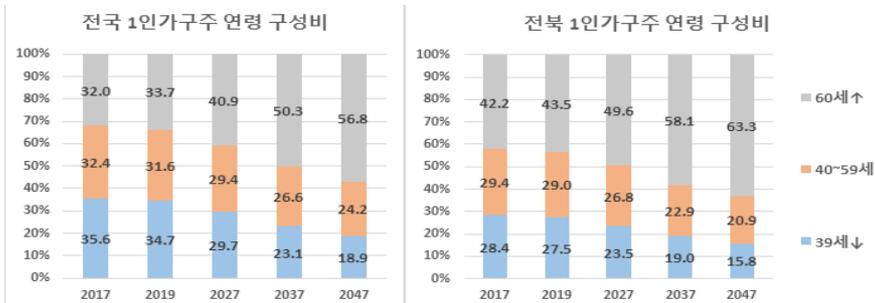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9).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7~2047년」 보도자료.

〈그림 2-17〉 시도별 1인가구 구성비(2017 vs 2047)

1인가구의 연령 구성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전국의 경우 1인가구 중 39세 이하의 청년 비중이 35.6%로 가장 높고, 40~59세 32.4%, 60세 이상 32.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47년에는 전체 1인가구 중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56.8%로 과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의 경우는 전국 평균과는 다르게 이미 2017년부터 60세 이상 노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인가구 중 노년층의 구성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 1인가구 중 60세 이상의 노년층 비중은 전라남도(50.2%)·전라북도(42.2%)·경상북도(41.9%) 순으로 높았고, 향후 2047년에는 전라북도를 포함한 7개 시도는 노년 1인가구의 비중이 60%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단위 : %)



자료: 통계청(2019).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7~2047년」 보도자료.

〈그림 2-18〉 전국 및 전북 1인가구주 연령 구성비 변화 추이(2017-2047)

2. 1인가구 관련 지원 정책

가. 중앙정부 1인가구 관련 지원 정책

국내 1인가구 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 3조 정의, 2-2항에서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에서, 계획 내용 중에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이 명시되어있고, 제 20조 가족실태조사에서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1인가구와 비혼 등의 증가에 따른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 구성원의 돌봄” 책임이 아닌 “돌봄의 사회적 분담 확대”를 지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21). 특히,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1인가구를 비롯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이나 낙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등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외식서비스나 스마트 홈 시스템 등의 1인가구 관련 유망사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1) 주거지원정책

현재 주거지원정책은 1인가구를 대상으로 명시한 경우는 거의 부재하였고, 세대別に 따라,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나 장애인, 저소득 청년의 경우 임대주택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토지공사 및 SH공사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대학생 전세 임대, 희망하우징, 두레 주택 등이 1인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주거급여, 임차가구지원, 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을 통해 1인가구 청년이나 노년층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수행 중에 있다.

〈표2-13〉 1인가구가 수혜 가능한 중앙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정책	주요내용
주택청약	- 청약통장 가입자 중 일정한 지역을 갖춘 자에게 신청을 받아 당첨자 선정 - 1인가구는 청약에 우선순위가 없으며, 가점 선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함(청약가점에 부양가족 수 포함)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가점에 있어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미성년자녀 수 등이 포함되어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불리함
(청년)전세임대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최장 20년)
행복주택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 - 공급물량의 80%는 젊은층에, 20%는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
주택도시기금	-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용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수익·손익공유형모기지, 오피스텔구입자금 등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주거비 지원. 단, 1인가구는 월 71만원 이하 소득이 해당
임차가구 지원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맞춤형 급여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맞춤형으로 급여 지원 - 생계 중위소득 30%(기본 생활비 지원), 의료 중위소득 40%(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 중위소득 43%(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리모델링 임대사업	-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원을 금리 1.5%로 융자 가능 - 월세는 시세의 50% 수준이고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대학생과 노인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제공 - 1순위는 무주택 대학생과 독거노인, 2순위는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자료: 노경혜 외(2018)에서 재구성. 이수인 외 2020a에서 재인용

2) 안전 지원 정책

안전지원 정책에 있어, 1인가구를 한정으로 하는 정책은 없으나, 1인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안전지원 정책은 비상벨 설치,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안전 귀가 서비스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표2-14〉 1인가구가 수혜 가능한 중앙정부의 안전 지원 정책

정책	주요내용
성범죄자 알람서비스	- 해당 읍, 면, 동을 검색해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 사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 시, 신체정보 등)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를 제공
SOS 국민안심 서비스	-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 및 여성을 대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신고 센터(또는 보호자)에 긴급 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365일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활동 지원

자료: 노경혜 외(2018)에서 재구성. 이수인 외(2020a)에서 재인용

3) 건강 및 돌봄

1인가구를 위한 건강이나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혼자서 살아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방문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환자가족지원, 단기가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독거노인 보호사업으로는 방문서비스를 통한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정서지원, 건강·영양관리 등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는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민간자원봉사자와의 연계를 통해 안부확인 등을 제공하는 독거노인사랑 잇기 서비스, 무연고 독거노인의 상주 또는 연고자 되어 최소한의 의례를 지원하는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노인성 질병이나 고령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1인가구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2-15〉 1인가구가 수혜 가능한 중앙정부의 건강/돌봄 지원 정책

정책	주요내용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혼자서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을 제공
독거노인 보호사업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정기적 안전 확인 및 정서지원, 건강·영양관리 등 생활교육 등), 독거노인사랑 잇기 서비스(민간자원봉사자 연계 통해 안부확인 등), 무연고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무연고 독거노인의 상주 또는 연고자 되어 최소한의 의례지원) 등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를 제공

자료: 양수진 외(2018)에서 재구성. 이수인 외(2020a)에서 재인용

나. 지방자치단체 1인가구 관련 지원정책

1) 1인가구 지원 조례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2018년 이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광역 단위의 10 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에 1인가구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도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인가구 관련 조례는 크게 1인가구 전반과 관련한 지원 조례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그리고 청년에 관련한 조례로 구분할 수 있다.

1인가구 지원 조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인가구와 지역사회 연결망의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공동체 강화, 사회친화 환경 조성,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1인가구가 공동체와의 연결고리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유주택’이나 ‘공유주방’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표2-16〉 1인가구 지원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복지지원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체 강화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 15., 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2019. 10. 15., 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 가구를 우리 사회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2019. 5. 16., 일부개정)

2) 전라북도 내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라북도의 경우 1인가구 지원 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1인가구와 관련하여 장수군에서 「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2017년 12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2020년 3월에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2020년 5월에 「군산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들 기초 지자체의 조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항을 중점을 두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수군의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장수군에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의 정서적·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지원대상,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익산시와 군산시의 경우는 1인가구의 범위를 노인과 장년층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소외·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추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표2-17〉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단체	제/개정일	조례명	소관부서/ 관리책임부서	
서울	광진구	2019.3.12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서울	2019.5.16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가족담당관
	관악구	2021.11.11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	복지정책과
	광진구	2020.5.19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다문화팀
	금천구	2017.5.15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기획예산과
	노원구	2019.3.27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서대문구	2018.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도봉구	2020.5.7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동대문구	2020.4.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	가정복지과
	마포구	2020.9.24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여성가족과
	성동구	2019.7.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청년과
	성동구	2021.4.1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양천구	2017.12.2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용산구	2017.4.7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복지국 어르신청소년과
	은평구	2021.9.30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중구	2019.8.9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지원과
	중랑구	2021.9.29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여성가족과
	강남구	2018.12.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강동구	2017.8.9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서초구	2018.12.13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	밝은미래국 가족정책과
강동구	2020.7.8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여성가족과	
영등포구	2019.6.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자치단체	제/개정일	조례명	소관부서/ 관리책임부서	
부산	부산	2016.11.2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남구	2019.3.13	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생활국 주민지원과
	동구	2020.8.5	부산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복지지원과
	부산진구	2017.1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부산진구	2021.7.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여성가족담당
	북구	2019.5.29	부산광역시 북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주민생활지원국 희망복지과
	서구	2021.8.17	부산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가족행복과
	수영구	2019.12.27	부산광역시 수영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영동구	2021.6.30	부산광역시 영도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해운대구	2017.1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동래구	2019.2.11	부산광역시 동래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대구	대구	2018.10.1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관
	서구	2019.8.12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인천	남동구	2019.6.28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주민생활국 노인장애인과
	동구	2018.12.26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부평구	2019.4.22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광주	광주	2019.10.15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1.10.1	광주광역시 광산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복지정책과
	남구	2021.6.7	광주광역시 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여성가족과
	남구	2019.1.8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장애인과
	동구	2020.5.28	광주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자치단체	제/개정일	조례명	소관부서/ 관리책임부서	
대전	대전	2019.8.9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공동체지원국 가족돌봄과
	대덕구	2020.3.27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복지정책과
	대덕구	2021.2.10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미래교육과
	동구	2021.7.1	대전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여성아동과
	서구	2020.7.6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	복지정책과
	유성구	2020.12.11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미래전략과
울산	울산	2019.3.7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복지여성건강국 복지인구정책과
	남구	2019.12.31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복지지원과
	동구	2021.6.24	울산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울주군	2019.3.21	울산광역시 울주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중구	2021.9.27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복지지원과
	중구	2021.5.3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정책 조례	복지지원과
세종	세종	2017.9.29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경기도	경기	2020.7.15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광명시	2019.6.25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광주시	2021.1.4	광주시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구리시	2019.6.25	구리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복지정책과
	성남시	2018.12.24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복지국 사회복지과
	안산시	2020.10.7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안양시	2021.2.19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복지정책과

자치단체	제/개정일	조례명	소관부서/ 관리책임부서	
경기도	양평군	2019.12.26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의왕시	2021.8.3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이천시	2021.6.25	이천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복지정책과
	하남시	2019.5.13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강원도	속초시	2020.4.17	속초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주민생활지원과
	속초시	2021.6.23	속초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가족지원과
	원주시	2019.11.15	원주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태백시	2018.4.6	태백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충청 북도	괴산군	2021.4.2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기획팀
	옥천군	2021.7.14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음성군	2020.12.7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보건소 건강증진과
	진천군	2019.9.20	진천군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주민복지과
	청주시	2019.9.20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충주시	2021.5.28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충청 남도	당진시	2021.5.14	당진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지속가능발전 담당관
	충남	2019.5.30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정책관
	부여군	2020.6.30	부여군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사회복지과
전라 북도	장수군	2017.12.5	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주민복지실
	군산시	2020. 5.11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복지정책과
	익산시	2020.3.30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복지정책과
전라 남도	전남	2020.5.21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여성가족정책관
	담양군	2020.1.7	담양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행복과
	광양시	2018.9.27	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수시	2021.6.30	여수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여성가족과

자치단체	제/개정일	조례명	소관부서/ 관리책임부서	
경상 북도	상주시	2019.7.16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경남	2019.12.26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여성가족청소년국 가족지원과
경상 남도	김해시	2019.2.12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과
	김해시	2020.4.3	김해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여성아동과
	밀양시	2019.10.31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주민생활지원과
	창원시	2018.11.15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창원시	2020.2.7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산청군	2019.3.29	산청군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민원국 주민복지과
	진주시	2021.5.31	진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복지정책과
제주도	제주도	2020.4.13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제주도	2021.8.9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검색일 2020.7.31., 2021.11.22

3

장

전북지역 1인가구의 특성 및 이해

Jeonbuk Institute

-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2.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본 도시남성 1인가구 경험
 3. 전라북도 1인가구 특성

제 3 장 전북지역 1인가구의 특성 및 이해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가. 조사개요

1) 조사 방법

본 조사는 전라북도 1인가구의 생활 및 사회적 관계, 경제·사회활동과 생활환경 실태를 파악하고자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조사는 2019년 9월~11월에 농촌 1인가구 4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 조사는 2020년 10월~11월에 도시 여성 1인가구 20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도시 남성 1인가구 2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조사가 이루어져 총 851명의 전라북도 1인가구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에서 농촌지역은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임실군, 고창군의 읍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시지역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의 동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 내용

본 조사의 설문 내용은 이수인 외(2020a)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만족도”, 이수인 외(2020b) “전북 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와 동일하며 해당 설문조사의 문항은 기존 1인가구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노경혜 외, 2018; 박은미, 2018; 이중섭, 2012; 홍승아 외 2017)를 토대로 구성되었다.

〈표3-1〉 전라북도 1인가구 생활실태 조사 문항

항목	주요 내용
일반적 특성과 1인가구 형성원인	지역, 성별, 연령, 빈곤여부, 자녀수, 1인가구 형성원인(사별, 이혼, 비혼, 자녀독립 등), 독거이유, 결혼유무, 결혼의향, 1인가구 지속에 대한 입장, 1달 적정 생활비, 1달 적정 용돈

항목	주요 내용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	병원이나 치료, 1달 평균 병원비, 병원방문 횟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병원 접근성, 한의원 접근성, 일상생활 도우미 여부, 가족인지 아닌지, 도움받는 시간, 우울, 불안, 자살생각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자녀수, 자녀와 만남 빈도, 도움 청할 수 있는 사람 수, 하루 접촉 인원, 동네친구 수, 가까이 지내는 친척 수, 자녀로부터의 지원(금전, 병간호, 가사지원, 고민 상담 등), 가족과의 일체감 및 거리감, 가족과의 분리감, 지역사회 소속감, 참여하는 마을 활동 여부, 혼자 생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빈곤, 외로움, 식사, 주위시선, 필요시 도움 요청 가능 여부)
경제활동	소득, 소득원, 자산정도, 경제활동 유무와 종류,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 일을 하는 이유, 일을 하고 싶은 최대 연령, 원하는 급여, 가계관련 고민
여가 및 사회활동	TV시청, 신문구독, 인터넷 이용, 영화, 스포츠, 여행, 경로당 이용여부, 안한다면 그 이유, 사회복지관 이용 여부, 안한다면 그 이유 등, 참여하는 종교생활 종류와 빈도, 친목단체 참여 정도, 자원봉사활동 여부와 시간
생활 및 주거환경	현재 주거 유형, 거주기간,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불편함, 거주 지속 여부, 그 이유, 지역 내 통근 가능 여부, 거주지에서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편리성 정도, 목욕장소와 횟수, 혼자서 목욕가능한지 여부와 못할시 도우미 있는지, 건강이 나빠져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거주형태

자료 : 이수인 외(2020b), 전북 여성1인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이 외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하고 있는 삶의 만족도 지표를 활용하였다. 해당 지표는 건강, 가족의 수입, 현재 거주지,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과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이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나.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전라북도 1인가구 실태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는 851명이며 그 중 남성은 404명(47.5%), 여성은 447명(52.5%)이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13.4%로 가장 적고, 30대 20.8%, 40대 19.6%, 50대 20.6%이며 60대 이상이 25.6%로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동부 거주자가 450명으로 52.9%이며 읍면부 거주자가 401명으로 47.1%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과 대졸이 각각 307명(36.8%), 305명(36.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중졸 97명(11.6%), 초졸 이하

70명(8.4%), 대학원 이상 37명(4.4%) 순이었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자가 315명(37.5%)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별거 219명(26.1%), 사별 153명(18.2%), 기혼 152명(18.1%) 순이었다.

〈표3-2〉 전라북도 1인가구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N	%
계		851	100.0
성별	남성	404	47.5
	여성	447	52.5
연령	20대	114	13.4
	30대	177	20.8
	40대	167	19.6
	50대	175	20.6
	60대 이상	218	25.6
지역	동부	450	52.9
	읍면부	401	47.1
학력	초졸	70	8.4
	중졸	97	11.6
	고졸	307	36.8
	대졸	305	36.6
	대학원 이상	37	4.4
	기타	18	2.2
혼인상태	기혼	152	18.1
	미혼	315	37.5
	이혼/별거	219	26.1
	사별	153	18.2

2) 1인가구의 형성

전라북도 1인가구의 생활기간은 평균 6.82년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1인가구 생활기간은 6.79년, 여성은 6.84년으로 여성의 생활기간이 조금 더 길었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의 1인가구 생활기간 평균이 4.72년으로 가장 짧았고, 40~50대 장년층은 7.52년, 60대 이상 노년층은 8.54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6.00년)보다 도시(7.72년)의 평균 1인가구 생활기간이 길었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연령과 지역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표3-3〉 1인가구 생활기간

(단위 : 명, 년)

		N	M	SD	F/t	p
전체		843	6.82	6.571	-	-
성별	남성	400	6.79	6.336	-0.109	.913
	여성	443	6.84	6.783		
연령	20~30대	289	4.72	4.196	25.326	.000***
	40~50대	340	7.52	7.000		
	60대 이상	214	8.54	7.692		
지역	도시	400	7.72	6.908	3.804	.000***
	농촌	443	6.00	6.144		

주 : *p<.05, **p<.01, ***p<.001

1인가구 형성이유에 대해서는 이혼/별거/사별로 인하여 1인가구가 되었다는 응답자가 38.0%로 가장 많았고, 직장/학교 때문에 1인가구가 되었다는 응답률이 29.5%로 뒤를 이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해서, 편의/자유를 위해서는 각각 8.8%, 8.5%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이민, 이사, 독립으로 인해서 6.7%, 결혼을 안해서 6.0%, 부모/형제가 사망해서 2.5%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직장/학교 때문에 1인가구가 되었다는 응답률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이혼/별거/사별로 인하여 1인가구가 되었다는 응답률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은 직장/학교로 인해 1인가구가 되었다는 응답률이 48.1%로 절반에 가까웠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해서, 편의/자유를 위해서 라는 응답률도 17.0%, 14.5%로 다른 집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40~50대 장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에서는 이혼/별거/사별로 인하여 1인가구가 되었다는 응답률이 각각 40.3%,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의 경우 직장/학교로 인해 1인가구가 되었다는 응답률이 41.2%로 가장 높은 반면, 농촌은 이혼/별거/사별로 인하여 1인가구가 되었다는 응답률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3-4〉 1인가구 형성 이유

(단위 : 명, %)

		N	직장/ 학교	이혼/ 별거/ 사별	부모/ 형제 사망	가족과 사는 것 불편	가족의 0인 이사 독립	편의/ 자유를 위해	결혼을 안해서	χ^2 (p)
전체		845	29.5	38.0	2.5	8.8	6.7	8.5	6.0	
성별	남성	402	32.6	30.6	3.5	8.5	8.2	9.5	7.2	21.688** (.001)
	여성	443	26.6	44.7	1.6	9.0	5.4	7.7	5.0	
연령	20~30대	289	48.1	9.7	1.7	17.0	3.1	14.5	5.9	279.159*** (.000)
	40~50대	340	27.4	40.3	3.8	4.7	7.4	7.9	8.5	
	60대 이상	216	7.9	72.2	1.4	4.2	10.6	1.4	2.3	
지역	도시	398	41.2	30.2	0.8	5.8	7.0	8.0	7.0	65.588*** (.000)
	농촌	447	19.0	45.0	4.0	11.4	6.5	8.9	5.1	

주 : *p<.05, **p<.01, ***p<.001

1인가구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률(만족함+매우 만족함)은 42.1%이며 만족하지 않다는 응답률(만족하지 않음+전혀 만족하지 않음)은 27.0%로 1인가구의 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7.6%)보다 여성(46.3%)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여 20~30대는 과반이 넘는 61.8%가 1인가구 생활에 만족한 반면, 40~50대는 33.3%, 60대 이상은 29.9%만이 1인가구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39.1%)보다 도시(45.6%)의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연령과 지역 변수였으며 각 응답을 점수화시켰을 때 연령별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 20~30대의 만족도가 3.68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의 만족도가 2.8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3-5〉 1인가구 만족도

(단위 : 명, %, 점/5점기준)

		N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임	만족함	매우 만족함	χ^2 (p)	M
전체		851	4.7	22.3	30.8	31.1	11.0		3.22
성별	남성	404	5.2	25.2	31.9	28.7	8.9	8.299 (.081)	3.11
	여성	447	4.3	19.7	29.8	33.3	13.0		3.31

		N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임	만족함	매우 만족함	χ^2 (p)	M
연령	20~30대	291	2.7	6.9	28.5	43.6	18.2	113.725*** (.000)	3.68
	40~50대	342	2.9	28.7	35.1	26.3	7.0		3.06
	60대 이상	218	10.1	33.0	27.1	22.0	7.8		2.84
지역	도시	401	4.0	17.5	32.9	31.4	14.2	16.901** (.002)	3.34
	농촌	450	5.3	26.7	28.9	30.9	8.2		3.10

주 : 점수(M)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p<.05, **p<.01, ***p<.001

1인가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건강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창업과 직장생활이 뒤를 이었고, 인간관계, 재테크, 여가생활 등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건강, 직장생활, 취업/창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도 건강, 취업/창업, 직장생활 순으로 관심이 높았다. 20~30대는 직장생활과 취업/창업에 이어 결혼이 중요한 관심사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은 건강과 인간관계, 취업/창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도시는 건강, 직장생활, 취업/창업 순으로, 농촌은 건강, 취업/창업, 직장생활 순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6〉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중응답)

(단위 : 점)

		취업/ 창업	직장 생활	학업/ 진학	건강	인간 관계	연애	여가 생활	결혼	재테크	내집 마련	기타
전체		205.0	198.0	45.0	261.0	148.5	72.5	103.0	67.0	119.5	43.5	7.0
성별	남성	85.0	93.0	24.0	117.0	66.0	44.0	50.5	41.0	54.5	23.0	4.0
	여성	120.0	105.0	21.0	144.0	82.5	28.5	52.5	26.0	65.0	20.5	3.0
연령	20~30대	87.0	92.0	31.0	22.5	33.5	36.5	25.0	45.5	31.0	27.0	3.5
	40~50대	80.5	93.0	10.0	100.5	50.5	30.5	41.5	19.0	71.0	14.0	1.0
	60대 이상	37.5	13.0	4.0	138.0	64.5	5.5	36.5	2.5	17.5	2.5	2.5
지역	도시	82.5	100.5	27.5	131.5	68.5	25.0	65.0	24.5	46.5	23.0	4.0
	농촌	122.5	97.5	17.5	129.5	80.0	47.5	38.0	42.5	73.0	20.5	3.0

주 : 종합=[(1순위)*2+(2순위)]/2

	전체	성별		연령			지역	
		남성	여성	2030	4050	60+	도시	농촌
1순위	건강	건강	건강	직장생활	건강	건강	건강	건강
2순위	취업/창업	직장생활	취업/창업	취업/창업	직장생활	인간관계	직장생활	취업/창업
3순위	직장생활	취업/창업	직장생활	결혼	취업/창업	취업/창업	취업/창업	직장생활

〈그림 3-1〉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1위~3위)

1인가구 생활의 장점으로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종합점수가 5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가시간 활용(306점), 일/직장 몰입(203점), 자유로운 연애관계(106.5점), 가족 부양 부담 완화(89점) 순으로 점수가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성별, 연령, 지역 등 인구 특성에 따른 집단 간 비교에서도 모든 집단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장 큰 장점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시간 활용, 일/직장 몰입 순으로 종합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3-7〉 1인가구 생활의 장점(다중응답)

(단위 : 점)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가시간 활용	일/직장 몰입	자유로운 연애관계	가족 부양 부담 완화	기타
전체		539.0	306.0	203.0	106.5	89.0	8.5
성별	남성	254.5	150.5	105.5	55.5	28.0	4.5
	여성	284.5	155.5	97.5	51.0	61.0	4.0
연령	20~30대	174.0	107.0	71.5	52.5	22.0	2.5
	40~50대	209.5	123.0	98.0	40.5	34.5	1.5
	60대 이상	155.5	76.0	33.5	13.5	32.5	4.5
지역	도시	243.0	157.0	98.5	48.0	42.5	6.0
	농촌	296.0	149.0	104.5	58.5	46.5	2.5

주 : 종합=[(1순위)*2+(2순위)]/2

	전체	성별		연령			지역	
		남성	여성	2030	4050	60+	도시	농촌
1순위	의사결정							
2순위	여가시간							
3순위	일/직장 몰입							

〈그림 3-2〉 1인가구 생활의 장점(1위~3위)

1인가구 생활의 단점에 대해서는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 3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로움이 329.5점, 경제적 불안감이 290점으로 뒤를 이었다. 1인가구에 대한 주위 시선은 133점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85점), 주택관리의 어려움(40.5점), 반려동물 키우기(26점), 임종 불안감(20점)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남성은 1인가구의 단점으로 외로움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여성은 경제적 불안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연령별로 20~30대는 경제적 불안을, 40~50대는 외로움을, 60대 이상은 위급 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단점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지역별로 도시는 위급 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나타났고 외로움, 경제적 불안이 뒤를 이은 반면, 농촌은 외로움이 가장 큰 단점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불안, 위급 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 뒤를 이었다.

〈표3-8〉 1인가구 생활의 단점(다중응답)

(단위 : 점)

		경제적 불안감	외로움	위급시 대처	주위의 시선	안전 불안감	임종 불안감	반려동물 키우기	주택관리 어려움
전체		290.0	329.5	331.0	133.0	85.0	20.0	26.0	40.5
성별	남성	100.0	191.5	172.5	71.5	11.5	9.5	13.0	19.5
	여성	190.0	138.0	158.5	61.5	73.5	10.5	13.0	21.0
연령	20~30대	106.0	93.0	100.0	30.0	54.0	2.5	16.0	21.5
	40~50대	113.0	144.0	128.5	74.5	24.0	6.5	8.0	9.0
	60대 이상	71.0	92.5	102.5	28.5	7.0	11.0	2.0	10.0
지역	도시	120.5	149.5	178.0	42.0	48.5	9.0	11.5	29.0
	농촌	169.5	180.0	153.0	91.0	36.5	11.0	14.5	11.5

주 : 종합=[(1순위)*2+(2순위)]/2

	전체	성별		연령			지역	
		남성	여성	2030	4050	60+	도시	농촌
1순위	위급시 대처	외로움	경제적 불안	경제적 불안	외로움	위급시 대처	위급시 대처	외로움
2순위	외로움	위급시 대처	위급시 대처	위급시 대처	위급시 대처	외로움	외로움	경제적 불안
3순위	경제적 불안	경제적 불안	외로움	외로움	경제적 불안	경제적 불안	경제적 불안	위급시 대처

〈그림 3-3〉 1인가구 생활의 단점(1위~3위)

향후 희망하는 가구/거주형태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32.5%로 가장 많았고, 지금처럼 1인가구로 살고 싶다는 응답률도 26.8%로 높게 나타났다. 원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률은 18.9%, 주거 공동체 등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률은 13.3%, 친구 등 친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률은 8.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42.6%로 월등히 높았던 반면, 여성은 지금처럼 계속 1인가구로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응답에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44.6%였으나 40~50대는 29.6%, 60대 이상은 20.9%에 불과하여 청년층 응답률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주거 공동체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률은 60대 이상에서 17.2%로 20~30대의 응답률(8.0%)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응답률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 간 차이는 성별과 연령 집단에서 나타났다.

〈표3-9〉 향후 희망하는 가구·거주형태

(단위 : 명, %)

		N	지금처럼 계속 혼자	원가족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친구 등 친한 사람	주거 공동체	χ^2 (p)
전체		843	26.8	18.9	32.5	8.5	13.3	
성별	남성	401	20.9	19.2	42.6	7.2	10.0	41.888*** (.000)
	여성	442	32.1	18.6	23.3	9.7	16.3	
연령	20~30대	287	29.6	10.1	44.6	7.7	8.0	54.337*** (.000)
	40~50대	341	25.5	22.0	29.6	7.6	15.2	
	60대 이상	215	25.1	25.6	20.9	11.2	17.2	

		N	지금처럼 계속 혼자	원가족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친구 등 친한 사람	주거 공동체	χ^2 (p)
지역	도시	396	26.0	19.9	32.8	9.1	12.1	1.698 (.791)
	농촌	447	27.5	17.9	32.2	8.1	14.3	

주 : *p<.05, **p<.01, ***p<.001

3) 1인가구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

1인가구의 병원 방문 빈도는 가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48.8%로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월 1~2회 방문이 37.4%, 주 1~2회 방문이 10.6%, 주 3~4회 방문이 2.5% 순으로 나타났고 거의 매일 병원에 방문한다는 응답률은 0.8%에 불과하였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방문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방문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보다 농촌의 병원 방문 빈도가 높았다. 특히 연령별로는 20~30대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72.9%에 육박하는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15.6%만이 병원을 가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노년층 1인가구의 경우 일주일에 1번 이상 병원에 방문한다는 응답률이 31.7%로 40~50대 장년층(10.3%)과 20~30대 청년층(4.1%) 응답률보다 3배에서 7배 이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3-10〉 병원 방문빈도

(단위 : 명, %)

		N	안간다	월 1~2회	주 1~2회	주 3~4회	거의 매일	χ^2 (p)
전체		851	48.8	37.4	10.6	2.5	0.8	
성별	남성	404	53.5	36.6	6.7	2.2	1.0	15.056** (.005)
	여성	447	44.5	38.0	14.1	2.7	0.7	
연령	20~30대	291	72.9	23.0	3.1	1.0	0.0	194.107*** (.000)
	40~50대	342	49.4	39.8	8.5	2.3	0.0	
	60대 이상	218	15.6	52.8	23.9	4.6	3.2	
지역	도시	401	50.4	41.1	7.0	1.0	0.5	20.168*** (.000)
	농촌	450	47.3	34.0	13.8	3.8	1.1	

주 : *p<.05, **p<.01, ***p<.001

구급약 구입의 용이성에 대해 확인한 결과 1인가구 응답자의 71.3%는 구급약을 구하기 쉽다고 응답하였고, 28.7%만이 구하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구급약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경우 구급약을 어떻게 공급받는지에 대해서는 기타(약국, 편의점, 미리 구비해놓음 등) 응답이 33.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친구 22.5%, 가족 19.1%, 이웃 17.8%, 종교기관 7.6%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인구특성은 60대 이상의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로 노년층의 34.3%, 농촌 거주자의 32.0%가 구급약을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표3-11〉 구급약 구입 용이성

(단위 : %)

	구하기 쉬움	구하기 어려움	구하기 어렵다면, 어디서 구하는지?					x ² (p)	
			가족	친구	이웃	종교기관	기타		
전체	71.3	28.7	19.1	22.5	17.8	7.6	33.1		
성별	남성	70.5	29.5	18.3	19.3	15.6	5.5	41.3	0.202 (.354)
	여성	71.9	28.1	19.7	25.2	19.7	9.4	26.0	
연령	20~30대	75.3	24.7	24.2	31.8	9.1	3.0	31.8	5.488 (.064)
	40~50대	71.4	28.6	18.0	26.0	13.0	10.0	33.0	
	60대 이상	65.7	34.3	15.7	8.6	32.9	8.6	34.3	
지역	도시	75.0	25.0	23.4	11.7	11.7	6.4	46.8	5.041* (.015)
	농촌	68.0	32.0	16.2	29.6	21.8	8.5	23.9	

주 : *p<.05, **p<.01, ***p<.001

본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72.6%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7.4%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71.0%)보다 여성(74.0%)이, 연령별로는 나이가 적을수록, 지역별로 농촌보다 도시 거주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1인가구 평균 약 2.14명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지지자에 대해 20~30대 청년층은 평균 2.58명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평균 1.81명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적었다.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족이 46.1%로 가장 많았고, 친구 39.2%, 이웃 8.3%, 종교기관/동호회 등 회원 5.1%, 정부지원 도우미 1.3%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으며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30대의 경우 가족보다 친구가 도움을 준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3-12〉 도구적 지지 현황

(단위 : %, 명)

		없음	있음	(명)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χ^2 (p)
					가족	친구	이웃	정부지원 도우미	종교기관 /동호회	
전체		27.4	72.6	2.14	46.1	39.2	8.3	1.3	5.1	
성별	남성	29.0	71.0	2.16	43.4	44.5	7.1	0.4	4.6	0.928 (.188)
	여성	26.0	74.0	2.12	48.5	34.6	9.3	2.2	5.6	
연령	20~30대	23.8	76.2	2.58	47.4	47.9	1.4	0.9	2.3	3.072 (.215)
	40~50대	28.7	71.3	1.95	46.4	41.4	5.4	1.7	5.0	
	60대 이상	30.3	69.7	1.81	43.7	23.2	22.5	1.3	9.3	
지역	도시	20.5	79.5	2.18	49.8	40.0	5.1	0.3	4.8	18.140*** (.000)
	농촌	33.6	66.4	2.09	42.1	38.3	11.7	2.4	5.5	

주 : *p<.05, **p<.01, ***p<.001

지난 6개월 간 자살과 관련된 생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문항의 평균이 1.6점~1.8점에 불과하여 1인가구의 자살 생각 관련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별로는 농촌에서 자살과 관련된 생각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13〉 지난 6개월 간 자살관련 생각 경험

(단위 : 점/5점기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음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적 있음	자해하고 싶은 적이 있었음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었음	자살 생각 (종합)
전체		1.81	1.80	1.67	1.64	1.73
성별	남성	1.78	1.77	1.64	1.60	1.70
	여성	1.83	1.82	1.70	1.68	1.76
	t	-0.896	-0.910	-1.435	-1.685	-1.314
연령	20~30대	1.66	1.65	1.59	1.52	1.60
	40~50대	1.86	1.84	1.68	1.67	1.76
	60대 이상	1.93	1.93	1.77	1.76	1.85
	F	10.262***	9.718***	4.816**	9.731***	10.553***
지역	도시	1.71	1.70	1.59	1.55	1.64
	농촌	1.90	1.89	1.74	1.72	1.81
	t	-3.678**	-3.742***	-3.464**	-3.892**	-4.057**

주 :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 경험이 많음을 의미함

*p<.05, **p<.01, ***p<.001

1인가구의 지난 1개월 간 심리상태는 피곤, 기력저하가 2.72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면조절 어려움 2.60점, 과식, 식욕저하 2.55점, 일에 흥미 없음 2.52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가끔 경험한다는 3점 이하로 평점이 나타나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2.47점)보다 여성(2.52점)이,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별로는 도시(2.44점)보다 농촌(2.55점)의 심리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에 따라서는 20~30대 청년층의 평점이 2.35점에 불과한 반면, 60대 이상은 2.62점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은 노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집단보다 불안한 심리상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3-14〉 지난 1개월 간 심리상태

(단위 : 점/5점기준)

		수면조절 어려움	피곤, 기력저하	과식, 식욕저하	일에 흥미 없음	우울감 절망감	집중 어려움	나 때문에 가족 불행	심리 상태 (종합)
전체		2.60	2.72	2.55	2.52	2.47	2.36	2.26	2.50
성별	남성	2.59	2.71	2.53	2.53	2.42	2.30	2.20	2.47
	여성	2.61	2.72	2.57	2.51	2.52	2.42	2.32	2.52
	t	-0.342	-0.160	-0.687	0.257	-1.821	-2.020*	-2.032*	-1.159*
연령	20~30대	2.45	2.61	2.41	2.40	2.31	2.20	2.06	2.35
	40~50대	2.61	2.75	2.59	2.58	2.56	2.40	2.39	2.55
	60대 이상	2.77	2.82	2.68	2.59	2.56	2.51	2.34	2.62
	F	8.091***	4.042*	6.787**	4.586*	8.594***	9.483***	13.538***	11.269***
지역	도시	2.56	2.70	2.54	2.49	2.43	2.27	2.11	2.44
	농촌	2.63	2.73	2.56	2.55	2.51	2.44	2.40	2.55
	t	-1.299	-0.522	-0.395	-0.946	-1.384	-3.019**	-4.939***	-2.380*

주 :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한 심리상태를 의미함

*p<.05, **p<.01, ***p<.001

각 영역에 대한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관계가 3.46점으로 가장 높았고, 건강 3.43점, 여가생활 및 전반적 만족 3.40점, 가족관계 3.39점, 현재 거주지 3.35점, 직업 3.18점, 가계 수입 3.09점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3.34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3.30점)보다 남성(3.38점)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20~30대는 3.51점이던 삶의 질 만족도가 40~50대 3.27점, 60대 이상 3.20점으로 낮아졌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3.20점) 보다 도시(3.49점)의 삶의 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는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재 거주지, 여가생활, 전반적 만족 영역에서는 농촌 거주자의 만족도가 가장 낮아 60대 이상 노인 1인가구와 농촌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요구된다.

〈표3-15〉 각 영역에 대한 삶의 만족도

(단위 : 점/5점기준)

		건강	가계 수입	현재 거주지	가족 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여가 생활	전반적 만족	삶의 질 (종합)
전체		3.43	3.09	3.35	3.39	3.18	3.46	3.40	3.40	3.34
성별	남성	3.45	3.16	3.38	3.38	3.27	3.50	3.43	3.43	3.38
	여성	3.41	3.03	3.32	3.39	3.10	3.42	3.37	3.37	3.30
	t	0.626	2.355 [*]	1.135	-0.129	2.970 ^{**}	.447	1.053	1.245	1.913
연령	20~30대	3.84	3.32	3.44	3.64	3.30	3.62	3.42	3.53	3.51
	40~50대	3.42	3.01	3.28	3.25	3.20	3.41	3.36	3.30	3.27
	60대 이상	2.89	2.90	3.34	3.26	2.98	3.32	3.43	3.38	3.20
	F	81.523 ^{***}	19.259 ^{***}	3.704 [*]	22.291 ^{***}	9.566 ^{***}	11.158 ^{***}	0.576	7.371 ^{**}	22.157 ^{***}
지역	도시	3.60	3.27	3.48	3.55	3.32	3.58	3.56	3.55	3.49
	농촌	3.28	2.94	3.24	3.24	3.05	3.35	3.25	3.27	3.20
	t	5.383 ^{***}	5.878 ^{***}	4.518 ^{***}	5.594 ^{***}	4.653 ^{***}	4.504 ^{***}	5.511 ^{***}	5.556 ^{***}	7.542 ^{***}

주 :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p<.05, **p<.01, ***p<.001

4) 가족 및 사회적 관계

1인가구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견해를 확인한 결과, 가족주의적 견해가 가장 약하고, 수직적 개인주의적 견해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단결, 부양 등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가족주의적 견해의 경우 5점 만점에 2.93점에 불과하였으며 성별로는 여성(2.85점)보다 남성(3.02점)이 더 가족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주의적인 경향이 강하였고,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2.85점)보다 도시(3.02점)에서 더 가족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는 성별과 지역 변수였다. 타인과 나를 구별하는 수평적 개인주의의 경우 전체 1인가구의 점수는 3.00점으로 나타났으며 여성(2.91점)보다는 남성(3.10점)이, 연령이 낮을수록(60대 이상 2.90점, 20~30대 3.10점), 농촌(2.93점)보다는 도시(3.08점)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모든 인구학적 변수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경쟁과 관련된 수직적 개인주의의 경우 3.31점으로 가족주의나 수평적 개인주의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성별로는 여성(3.25점)보다 남성(3.37점)의 수직적 개인주의 경향이 더 강했고, 연령이 낮을수록 수직적 개인주의가 강해져 20~30대가 3.43점으로 가장 높고, 40~50대가 3.34점, 60대 이상은 3.10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가 3.51점으로 농촌(3.12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어떠한 변수보다 지역 변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모든 인구학적 변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었다.

〈표3-16〉 가족 및 사회관계에 대한 견해

(단위 : 점/5점기준)

		가족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M	t/F	M	t/F	M	t/F
전체		2.93	-	3.00	-	3.31	-
성별	남성	3.02	3.365**	3.10	4.159***	3.37	2.495*
	여성	2.85		2.91		3.25	
연령	20~30대	2.85	2.664	3.10	6.529**	3.43	13.479***
	40~50대	2.96		2.97		3.34	
	60대 이상	2.99		2.90		3.10	
지역	도시	3.02	3.232**	3.08	3.375**	3.51	7.924***
	농촌	2.85		2.93		3.12	

주 : 가족주의 구성문항 ①가족은 어떠한 희생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서로 단결해야 한다. ②부모와 자식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한다. ③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④나의 의사결정에서 내 가족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수평적 개인주의 구성문항 ①나는 다른 사람과 틀려도 자주 내 방식대로 한다. ②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③나는 다음 사람들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자신에 의존한다.

수직적 개인주의 구성문항 ①나는 매사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려 한다. ②경쟁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원칙이다. ③타인이 나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나는 분발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견해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p<.05, **p<.01, ***p<.001

1인가구 응답자 중 86.7%는 고민상담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

며 13.3%는 대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성(11.6%)보다 남성(15.1%)이 고민상담 대상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상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20~30대는 9.6%만이 응답하였으나 60대 이상은 17.4%가 고민상담 대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도시 거주자는 7.2%만이 상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농촌에서는 2배가 넘는 18.7%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주된 고민상담 대상을 조사한 결과 친구, 선후배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형제자매, 부모, 자녀 등 가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17〉 고민상담 대상

(단위 : %, 명)

	없음	있음	(명)	주된 고민상담 대상									x ² (p)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이웃	상담사 복지사	성직자	없음		
전체	13.3	86.7	2.19	8.2	14.2	7.2	48.1	5.7	5.8	1.6	3.7	5.5		
성별	남성	15.1	84.9	2.34	8.3	11.1	5.8	55.6	4.5	2.3	1.5	4.3	6.6	36.216*** (.000)
	여성	11.6	88.4	2.06	8.1	17.0	8.4	41.4	6.8	9.0	1.6	3.2	4.5	
연령	20~30대	9.6	90.4	2.69	18.1	12.9	0.0	56.4	6.3	0.3	0.3	1.7	3.8	229.443*** (.000)
	40~50대	13.7	86.3	2.04	4.5	18.5	5.7	48.4	8.4	3.3	1.8	3.6	6.0	
	60대 이상	17.4	82.6	1.73	0.9	9.3	19.0	36.6	0.9	17.1	2.8	6.5	6.9	
지역	도시	7.2	92.8	2.29	6.9	13.5	6.9	56.6	5.1	2.3	0.8	3.6	4.6	34.187*** (.000)
	농촌	18.7	81.3	2.08	9.5	14.9	7.4	40.5	6.3	9.0	2.3	3.8	6.3	

주 : *p<.05, **p<.01, ***p<.001

부모와의 소통빈도에 대해서 직접 만남은 월 1회 미만이 39.7%로 가장 많았고, 월 1회 이상 30.4%, 월 4회 이상 19.5%, 만남 없음 10.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보다는 남성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직접 만남 빈도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 간 차이는 연령 집단에서 나타났다. 부모와의 전화 연락은 월 4회 이상이 40.9%로 가장 많았고, 월 1회 이상 34.2%, 월 1회 미만 16.1%, 없음 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접 만남과 마찬가지로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이 더 자주 전화로 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연령 집단에서 나타났다.

〈표3-18〉 가족 및 친구 소통빈도 - 부모

(단위 : %)

		직접 만남				χ^2 (p)	전화 연락				χ^2 (p)
		월 4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미만	없음		월 4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미만	없음	
전체		19.5	30.4	39.7	10.4		40.9	34.2	16.1	8.8	
성별	남성	22.8	29.2	38.9	9.1	4.338 (.227)	42.1	37.3	13.4	7.2	5.847 (.119)
	여성	16.7	31.4	40.3	11.5		39.9	31.5	18.4	10.2	
연령	20~30대	23.7	36.0	36.7	3.5	63.156*** (.000)	53.6	30.9	12.9	2.5	111.159*** (.000)
	40~50대	16.9	29.7	41.7	11.7		34.0	41.8	15.8	8.4	
	60대 이상	13.9	11.1	43.1	31.9		19.4	16.7	29.2	34.7	
지역	도시	19.0	31.7	38.9	10.5	0.527 (.913)	41.3	34.1	14.1	10.5	3.293 (.349)
	농촌	20.1	29.2	40.4	10.3		40.6	34.2	17.9	7.3	

주 : *p<.05, **p<.01, ***p<.001

형제자매와의 소통빈도에 대해서는 직접 만남은 월 1회 미만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화 연락은 월 1회 이상은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통이 없다는 응답률도 직접 만남은 17.6%, 전화 연락은 11.4%로 나타나 형제자매 간의 소통이 부모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별로는 형제자매와의 소통 빈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30대는 소통이 없다는 응답률이 직접 만남에서는 7.9%, 전화 연락에서는 5.1%에 불과한 반면, 60대 이상 집단에서는 소통이 없다는 응답률이 직접 만남 33.1%, 전화 연락 24.4%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형제자매 간의 소통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 간 차이는 직접 만남은 연령, 전화 연락은 연령과 지역에서 나타났다.

〈표3-19〉 가족 및 친구 소통빈도 - 형제자매

(단위 : %)

		직접 만남				χ^2 (p)	전화 연락				χ^2 (p)
		월 4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미만	없음		월 4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미만	없음	
전체		8.9	26.7	46.8	17.6		21.6	37.6	29.4	11.4	
성별	남성	8.5	26.2	47.3	18.0	0.325 (.955)	19.1	37.1	29.4	14.4	7.422 (.060)
	여성	9.3	27.1	46.4	17.1		23.8	38.1	29.4	8.7	

		직접 만남					전화 연락				
		월 4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미만	없음	χ^2 (p)	월 4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미만	없음	χ^2 (p)
연령	20~30대	15.8	34.4	41.9	7.9	86.405*** (.000)	34.7	36.5	23.7	5.1	91.113*** (.000)
	40~50대	6.7	27.7	48.3	17.3		17.1	44.3	28.7	9.8	
	60대 이상	2.2	12.9	51.7	33.1		9.3	26.7	39.5	24.4	
지역	도시	8.8	27.1	49.6	14.5	5.043 (.169)	24.8	38.8	29.1	7.3	14.211** (.003)
	농촌	9.0	26.4	44.3	20.3		18.7	36.6	29.6	15.2	

주 : *p<.05, **p<.01, ***p<.001

자녀와의 소통빈도는 직접 만남의 경우 월 1회 미만이 37.2%로 가장 높았고, 월 1회 이상 29.4%, 월 4회 이상 22.0%, 만남 없음 11.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화 연락은 월 4회 이상 50.8%, 월 1회 이상 29.5%, 월 1회 미만 11.4%, 없음 8.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으나 남성보다 여성이 자녀와의 소통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20~30대가 직접 만남에서 월 4회 이상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소통이 없다는 응답률도 31.1%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화 연락의 경우 40~50대 집단에서 월 4회 이상 연락한다는 응답률이 59.2%로 과반을 넘었다. 직접 만남과 전화 연락 모두 연령별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보다 도시 거주자가 자녀와의 소통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직접 만남의 경우에만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3-20〉 가족 및 친구 소통빈도 - 자녀

(단위 : %)

		직접 만남					전화 연락				
		월 4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미만	없음	χ^2 (p)	월 4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미만	없음	χ^2 (p)
전체		22.0	29.4	37.2	11.5		50.8	29.5	11.4	8.2	
성별	남성	19.7	29.8	36.8	13.6	2.519 (.472)	45.5	31.6	13.0	10.0	5.289 (.152)
	여성	23.6	29.1	37.4	9.9		54.9	28.0	10.2	6.9	
연령	20~30대	39.2	18.9	10.8	31.1	109.137*** (.000)	47.1	16.2	11.8	25.0	47.460*** (.000)
	40~50대	27.2	34.9	28.0	10.0		59.2	25.8	9.2	5.8	
	60대 이상	9.2	26.2	58.3	6.3		41.5	38.6	14.0	5.8	

		직접 만남					전화 연락				
		월 4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미만	없음	χ^2 (p)	월 4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미만	없음	χ^2 (p)
지역	도시	25.0	29.5	39.3	6.1	13.346** (.004)	53.9	28.4	11.9	5.8	4.414 (.220)
	농촌	19.5	29.3	35.4	15.8		48.3	30.5	11.0	10.3	

주 : *p<.05, **p<.01, ***p<.001

친구와의 소통빈도는 직접 만나는 경우 월 1회 이상이 41.3%로 가장 높았고, 월 4회 이상은 38.9%, 월 1회 미만 17.0%, 없음 2.9% 순으로 나타났고, 전화 연락은 월 4회 이상이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 1회 이상 27.5%, 월 1회 미만 6.8%, 없음 2.9% 순으로 나타나 1인가구는 가족보다는 친구와의 소통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직접 만남과 전화 연락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빈도가 잦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 수록 친구와의 소통 빈도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보다 농촌의 소통빈도가 직접 만남과 전화 연락 모두 더 많았다.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의미 있는 변수는 연령 변수로 나타났다.

〈표3-21〉 가족 및 친구 소통빈도 - 친구

(단위 : %)

		직접 만남					전화 연락				
		월 4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미만	없음	χ^2 (p)	월 4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미만	없음	χ^2 (p)
전체		38.9	41.3	17.0	2.9		62.8	27.5	6.8	2.9	
성별	남성	39.8	42.8	15.1	2.3	3.128 (.372)	63.5	27.5	7.3	1.8	3.531 (.317)
	여성	38.0	39.9	18.7	3.4		62.3	27.5	6.4	3.9	
연령	20~30대	48.8	38.3	11.1	1.7	38.933*** (.000)	78.4	16.4	4.2	1.0	57.341*** (.000)
	40~50대	38.8	42.6	16.0	2.7		59.6	29.8	8.0	2.7	
	60대 이상	25.6	43.1	26.5	4.7		46.9	38.9	8.5	5.7	
지역	도시	36.2	41.5	19.0	3.3	3.615 (.306)	60.9	29.2	6.6	3.3	1.766 (.622)
	농촌	41.3	41.0	15.2	2.5		64.6	26.0	7.0	2.5	

주 : *p<.05, **p<.01, ***p<.001

양육, 간병, 가사 등 가족돌봄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인가구의 절반 정도인 50.5%는 수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49.5%는 수행한다고 응답하였다. 돌봄을 수행한다고 응답한 1인가구 중 부모를 돌보는 사람은 50.5%, 자녀는 47.6%, 배우자 8.6%, 손자녀 6.7%, 형제자매 6.5%, 기타 1.9% 등이었다. 성별로 남성(48.3%)보다 여성(50.6%)이 돌봄을 수행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50대 장년층에서 65.1%가 돌봄을 수행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집단보다 응답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 응답자(50.9%)가 농촌 응답자(48.2%)보다 돌봄 수행을 한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돌봄 대상에 대해서는 남성은 부모가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자녀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돌봄 대상으로 부모를 응답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40~50대는 자녀, 60대 이상은 손자녀에 대한 응답률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의 경우 부모를 돌본다는 응답률이 57.6%,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률이 50.2%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의 경우 손자녀를 돌본다는 응답률이 10.9%로 농촌(2.8%)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3-22〉 가족돌봄(양육, 간병, 가사 등) 수행

(단위 : %)

	수행 안함	돌봄 수행	χ^2 (p)	돌봄 대상 (다중응답)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손자녀	자녀	기타	
전체	50.5	49.5		50.5	8.6	6.5	6.7	47.6	1.9	
성별	남성	51.7	48.3	0.446 (.275)	58.8	12.9	6.2	4.6	44.8	3.1
	여성	49.4	50.6		43.3	4.9	6.7	8.5	50.0	0.9
연령	20~30대	60.7	39.3	55.851*** (.000)	68.4	7.0	14.9	0.0	20.2	5.3
	40~50대	34.9	65.1		48.6	10.8	4.5	1.8	61.7	0.5
	60대 이상	61.6	38.4		30.5	4.9	0.0	29.3	47.6	1.2
지역	도시	49.1	50.9	0.597 (.241)	42.8	9.5	7.0	10.9	44.8	3.0
	농촌	51.8	48.2		57.6	7.8	6.0	2.8	50.2	0.9

주 : *p<.05, **p<.01, ***p<.001

이웃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중요한 편(중요함+매우 중요함)이라는 응답률이 45.8%, 중요하지 않은 편(중요하지 않음+전혀 중요하지 않음)이라는 응답률이 18.7%로 이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남성(41.8%)보다 여성(49.5%)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20~30대는 25.4%, 40~50대는 47.1%, 60대 이상은 71.1%가 중요한 편이라고 인식하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웃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43.6%)보다 농촌(47.8%) 거주자가 이웃의 중요도를 더 높게 인식하였고 성별, 연령, 지역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표3-23〉 이웃의 중요도

(단위 : 명, %, 점/5점기준)

		N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χ^2 (p)	M
전체		851	5.9	12.8	35.5	34.4	11.4		3.33
성별	남성	404	5.2	15.8	37.1	31.9	9.9	9.617* (.047)	3.25
	여성	447	6.5	10.1	34.0	36.7	12.8		3.39
연령	20~30대	291	12.0	21.6	40.9	21.3	4.1	153.229*** (.000)	2.84
	40~50대	342	4.4	9.9	38.6	38.6	8.5		3.37
	60대 이상	218	0.0	5.5	23.4	45.4	25.7		3.91
지역	도시	401	2.7	14.5	39.2	32.9	10.7	17.962** (.001)	3.34
	농촌	450	8.7	11.3	32.2	35.8	12.0		3.31

주 : 점수(M)가 높을수록 이웃이 중요하다고 평가함을 의미함

*p<.05, **p<.01, ***p<.001

1인가구의 주민참여활동 빈도는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58.8%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연 1~2회 14.4%, 연 3~6회 5.9%, 월 1회 가량 15.2%, 주 1~2회 이상 5.8%로 나타났다. 주민참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남성(56.6%)보다 여성(60.9%)이 더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주민참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높아졌는데 20~30대는 81.1%가 참여하지 않는 반면 60대 이상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32.1%에 불과하였다. 지역별로는 농촌(48.8%)보다 도시(70.1%)에서 주민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1회 이상의 빈도로 주민참여활동을 한다는 응답률은 성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지만 연령과 지역별로는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 20~30대는 5.9%만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주민참여활동을 하지만 40~50대는 22.5%, 60대 이상은 38.6%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도시의 경우 월 1회 이상 주민참여활동을 하는 응답자가 10.4%에 불과한 반면, 농촌은 30.3%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주민참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성별을 제외한 연령, 지역 변수였다.

〈표3-24〉 주민참여활동 빈도

(단위 : 명, %)

		N	참여 안함	연 1~2회	연 3~6회	월 1회 가량	주 1~2회 이상	χ^2 (p)
전체		851	58.8	14.4	5.9	15.2	5.8	
성별	남성	403	56.6	15.6	6.7	16.9	4.2	7.036 (.134)
	여성	447	60.9	13.2	5.1	13.6	7.2	
연령	20~30대	291	81.1	8.9	4.1	5.2	0.7	162.851*** (.000)
	40~50대	341	56.9	14.4	6.2	19.6	2.9	
	60대 이상	218	32.1	21.6	7.8	21.6	17.0	
지역	도시	401	70.1	15.0	4.5	8.2	2.2	59.500*** (.000)
	농촌	449	48.8	13.8	7.1	21.4	8.9	

주 : *p<.05, **p<.01, ***p<.001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체 1인가구 응답자의 42.0%가 친목도모라고 응답하였으며 네트워크 구축 32.6%, 지역 소속감 증대 18.1%, 경제적 이익 17.0%, 봉사활동 15.1%, 지역사회운동 일환 12.1%, 기타 3.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친목도모 응답률이 여성(37.3%)보다 남성(47.2%)이 약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이익과 봉사활동 응답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20~30대의 경우 네트워크 구축을 바란다는 응답률이 35.0%로 가장 높은 반면 40~50대와 60대 이상은 친목도모가 각각 47.2%,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와 농촌 모두 친목도모를 바란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도시(37.7%)보다 농촌(45.9%)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3-25〉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바라는 점(다중응답)

(단위 : %)

		친목도모	네트워크 구축	지역 소속감 증대	봉사활동	경제적 이익	지역사회 운동 일환	기타
전체		42.0	32.6	18.1	15.1	17.0	12.1	3.6
성별	남성	47.2	33.2	18.4	13.8	14.3	11.2	4.1
	여성	37.3	32.0	17.8	16.2	19.5	12.8	3.2
연령	20~30대	27.4	35.0	16.2	11.2	17.7	12.6	6.9
	40~50대	47.2	28.4	18.5	18.5	18.5	11.3	2.4
	60대 이상	52.5	35.9	19.8	14.7	13.8	12.4	1.4
지역	도시	37.7	33.6	16.5	16.8	15.8	13.7	4.1
	농촌	45.9	31.7	19.5	13.5	18.1	10.6	3.2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가 34.1%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귀찮아서 16.6%, 가치관/세대 차이 때문에 11.3%,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 10.5%, 생활방식의 차이 때문에 7.7% 순으로 나타났다.

〈표3-26〉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다중응답)

(단위 : %)

		귀찮음	시간이 없음	어울리고 싶지 않음	가치관/세대 차이	생활방식 차이
전체		16.6	34.1	10.5	11.3	7.7
성별	남성	18.6	34.0	9.6	12.1	8.1
	여성	14.7	34.2	11.3	10.6	7.5
연령	20~30대	20.4	45.0	12.5	15.6	10.4
	40~50대	19.8	36.1	9.8	8.6	7.1
	60대 이상	6.1	16.0	9.0	9.9	5.2
지역	도시	14.9	40.7	13.6	11.4	10.1
	농촌	18.1	28.2	7.7	11.3	5.6

이웃과의 사회적 거리에 대해서는 이웃과 사귄 수 있는 방법을 원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3.0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을 원한다는 문항의 점수가 3.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해관계로 협동하는 이웃은 3.27점, 독립된 사생활 유지는 3.23점으로 나타나 1인가구는 이웃과 정서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기 보다는 사회적 네트워크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특히 연령별 차이는 이웃과의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는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독립된 사생활 유지의 경우 20~30대는 3.57점, 40~50대는 3.16점, 60대 이상은 2.89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 경향이 높은 반면 이웃을 사귄 수 있는 방법을 원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20~30대 2.80점, 40~50대 3.00점, 60대 이상 3.29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3-27〉 이웃과의 사회적 거리

(단위 : 점/5점기준)

		독립된 사생활 유지	최소한의 도움만 나누는 이웃	이웃을 사귄 수 있는 방법 원함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이웃	이해관계로 협동하는 이웃
전체		3.23	3.13	3.01	3.33	3.14	3.27
성별	남성	3.26	3.13	2.99	3.31	3.08	3.26
	여성	3.21	3.12	3.02	3.35	3.19	3.28
	t	0.867	0.130	-0.459	-0.687	-1.629	-0.349
연령	20~30대	3.57	3.13	2.80	3.06	2.80	2.97
	40~50대	3.16	3.02	3.00	3.32	3.14	3.27
	60대 이상	2.89	3.29	3.29	3.70	3.58	3.69
	F	33.393***	5.698*	20.456***	37.344***	45.241***	43.532***
지역	도시	3.36	3.18	3.06	3.35	3.13	3.29
	농촌	3.12	3.08	2.96	3.31	3.14	3.26
	t	3.604***	1.741	1.822	0.652	-0.299	0.472

주 :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p<.05, **p<.01, ***p<.001

1인가구가 지난 1년간 참여해온 사회단체/모임을 조사한 결과, 동창회가 40.1%로 가장 많았고, 종교단체 29.3%, 여가모임 28.7%, 지역사회모임 25.4%, 시민사회단체 7.8%, 정치단체 2.6%, 이익단체 1.8% 순으로 나타났으며 활동하는 모임이 없는 1인가구는 전체 응답자의 1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단체/모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임별로는 남성은 동창회를, 여성은 종교단체 활동을 많이 하였으며 20~30대와 40~50대는 동창회를 많이 참여하는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지역사회모임을 응답자의 절반인 50.0%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촌의 경우 지역사회 모임 참여율이 34.0%로 도시(15.7%)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여가모임의 경우 도시가 33.7%로 농촌(24.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3-28〉 1년간 참여한 사회단체/모임(다중응답)

(단위 : 명, 점/5점기준, %)

		동창회	지역사회 모임	여가모임	정치단체	이익단체	시민사회 단체	종교단체	활동하는 모임 없음
전체		40.1	25.4	28.7	2.6	1.8	7.8	29.3	16.8
성별	남성	46.3	24.3	32.1	4.0	1.2	9.4	21.5	13.6
	여성	34.5	26.4	26.4	1.3	2.2	6.3	36.2	19.7
연령	20~30대	43.1	10.0	30.9	3.1	1.4	5.5	21.3	24.4
	40~50대	44.2	22.8	32.5	2.3	2.9	8.5	26.0	14.9
	60대 이상	29.8	50.0	19.7	2.3	0.5	9.6	45.0	9.6
지역	도시	43.4	15.7	33.7	1.7	2.0	10.0	27.2	19.7
	농촌	37.2	34.0	24.2	3.3	1.6	5.8	31.1	14.2

주 : *p<.05, **p<.01, ***p<.001

1인가구 중 53.5%는 자신의 노후가 염려된다고 응답하였고, 17.8%만이 노후가 염려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염려된다는 응답률은 성별로는 남성(50.0%)보다 여성(56.7%)이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는 40.2%에 불과하였으나 40~50대는 60.2%, 60대 이상은 61.0%가 노후가 염려된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도시(49.3%)보다 농촌(57.3%)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노후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연령과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3-29〉 노후에 대한 걱정

(단위 : 명, %, 점/5점기준)

		N	전혀 염려 되지 않음	염려되지 않음	보통	염려됨	매우 염려됨	χ^2 (p)	M
전체		850	5.4	12.4	28.7	42.2	11.3		3.42
성별	남성	404	4.7	13.1	32.2	39.9	10.1	6.245 (.182)	3.38
	여성	446	6.1	11.7	25.6	44.4	12.3		3.45

		N	전혀 염려 되지 않음	염려되지 않음	보통	염려됨	매우 염려됨	χ^2 (p)	M
연령	20~30대	291	9.6	16.8	33.3	33.7	6.5	42.715*** (.000)	3.11
	40~50대	341	3.2	10.6	26.1	45.5	14.7		3.577
	60대 이상	218	3.2	9.2	26.6	48.6	12.4		3.578
지역	도시	400	5.8	14.5	30.5	40.0	9.3	7.516 (.111)	3.32
	농촌	450	5.1	10.4	27.1	44.2	13.1		3.50

주 : 점수(M)가 높을수록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을 의미함
*p<.05, **p<.01, ***p<.001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체적 건강이 종합점수가 가장 높았고, 저축과 보험/연금에 그 뒤를 이었다. 1인가구는 노후에 대비하여 안정적 거주지나 사회적 관계보다는 건강과 경제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나 건강에 이어 남성은 보험/연금, 저축 순으로 종합점수가 높은 반면 여성은 저축, 보험/연금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경우 저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고, 보험/연금, 건강이 뒤를 이었으나 40~50대와 60대 이상은 건강이 중요하다는 응답 경향이 가장 많았고, 40~50대는 보험/연금, 저축 순, 60대 이상은 저축, 보험연금 순으로 종합점수가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와 농촌 모두 건강, 저축, 보험/연금 순으로 종합점수가 나타났다.

〈표3-30〉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다중응답)

(단위 : 점)

		저축	보험/연금	가족관계	친구관계	신체적 건강	안정된 거주	기타
전체		281.5	267.5	111.5	85.0	377.0	133.0	7.0
성별	남성	118.5	129.0	56.0	42.0	188.0	62.0	4.0
	여성	163.0	138.5	55.5	43.0	189.0	71.0	3.0
연령	20~30대	122.0	89.0	39.5	35.0	88.5	54.0	4.0
	40~50대	106.5	129.5	41.0	20.5	149.5	56.5	2.0
	60대 이상	53.0	49.0	31.0	29.5	139.0	22.5	1.0
지역	도시	138.5	127.0	53.5	40.0	183.5	49.5	0.5
	농촌	143.0	140.5	58.0	45.0	193.5	83.5	6.5

주 : 종합=[(1순위)*2+(2순위)]/2

	전체	성별		연령			지역	
		남성	여성	2030	4050	60+	도시	농촌
1순위	건강	건강	건강	저축	건강	건강	건강	건강
2순위	저축	보험/연금	저축	보험/연금	보험/연금	저축	저축	저축
3순위	보험/연금	저축	보험/연금	건강	저축	보험/연금	보험/연금	보험/연금

〈그림 3-4〉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1위~3위)

5) 경제활동

1인가구 응답자의 직업은 농림어업 종사자가 15.3%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사자가 13.3%, 자영업자 11.5%, 사무 종사자 10.8%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1인가구 중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10.5%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농림어업 종사자가 21.0%로 여성(10.1%)보다 10%p 이상 많았고, 여성은 서비스 종사자가 17.8%로 월등히 많이 나타나 남성(8.4%)의 두 배 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20~30대는 사무종사자의 비율인 높은 반면 40~50대와 60대 이상은 농림어업종사자와 자영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 도시는 서비스 종사자와 자영업자, 농촌은 농림어업종사자의 비율이 높았다.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은 남성(7.2%)보다 여성(13.5%)이 높았고, 60대 이상 응답자의 31.8%가 일을 하지 않아 다른 집단보다 월등히 응답률이 높았으며 농촌(9.4%)보다 도시(11.7%)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3-31〉 직업별 경제활동 현황

(단위 : %)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직 종사자	농림어업 종사자	기능원	장치,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자영업	학생	기타	일 안함
전체		3.3	9.9	10.8	13.3	8.7	15.3	2.8	2.0	7.2	11.5	3.4	1.2	10.5
성별	남성	4.7	12.6	10.1	8.4	5.0	21.0	5.4	3.5	7.2	9.9	4.2	0.7	7.2
	여성	2.0	7.4	11.5	17.8	12.1	10.1	0.4	0.7	7.2	13.0	2.7	1.6	13.5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직 종사자	농림어업 종사자	기능원	장치,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자영업	학생	기타	일 안함
연령	20~30대	1.4	13.7	21.3	15.1	13.1	4.1	3.4	2.7	4.8	5.5	9.6	1.0	4.1
	40~50대	5.6	12.0	8.5	14.4	8.8	18.2	3.8	2.1	9.7	14.1	0.3	0.3	2.3
	60대 이상	2.3	1.4	0.5	9.2	2.8	25.8	0.5	0.9	6.5	15.7	0.0	2.8	31.8
지역	도시	3.7	13.0	14.0	16.5	8.0	1.0	2.0	2.2	5.0	16.5	5.7	0.7	11.7
	농촌	2.9	7.1	8.0	10.5	9.4	28.1	3.6	1.8	9.2	7.1	1.3	1.6	9.4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1인가구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비율이 39.7%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 22.4%, 임시직 20.9%, 일용직 11.6%, 무급가족종사자 2.8%, 고용주 2.6% 순으로 비율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남성은 상용직, 자영업자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으나 여성은 상용직, 임시직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고, 상용직의 경우 여성(36.1%)보다 남성(43.5%)이 높았으나 임시직은 남성(12.5%)보다 여성(28.8%)의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여성 1인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는 상용직이 55.2%로 과반 이상, 임시직이 24.1%로 나타났고, 40~50대는 상용직이 39.8%, 자영업자가 23.4% 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은 자영업자가 41.8%로 가장 많았고, 임시직이 17.1%로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도 10.3%로 나타나 다른 연령 집단보다 월등히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는 상용직 응답률이 50.9%로 농촌(30.4%)보다 약 20%p 높았고, 농촌은 일용직 비율이 17.0%로 도시(5.1%)보다 10%p 이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응답률의 차이는 모든 인구학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었다.

〈표3-32〉 종사상지위별 경제활동 현황

(단위 : 명, %)

		N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χ^2 (p)
전체		741	39.7	20.9	11.6	2.6	22.4	2.8	
성별	남성	359	43.5	12.5	12.8	2.8	25.3	3.1	29.736*** (.000)
	여성	382	36.1	28.8	10.5	2.4	19.6	2.6	

		N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χ^2 (p)
연령	20~30대	261	55.2	24.1	8.0	1.1	10.3	1.1	133.574*** (.000)
	40~50대	334	39.8	20.1	12.3	3.6	23.4	0.9	
	60대 이상	146	11.6	17.1	16.4	2.7	41.8	10.3	
지역	도시	336	50.9	18.8	5.1	2.1	22.0	1.2	50.028*** (.000)
	농촌	405	30.4	22.7	17.0	3.0	22.7	4.2	

주 : *p<.05, **p<.01, ***p<.001

1인가구의 6개월 간 월평균 소득은 200~299만원 구간이 28.9%로 가장 많았고, 100~199만원 18.9%, 300~399만원 18.0%, 400만원 이상 13.1%, 50~99만원 11.7%, 50만원 미만 6.1%, 소득 없이 3.3%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의 월평균 소득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남성은 200~299만원 구간의 수입이 33.3%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100~199만원 구간의 수입이 26.9%로 가장 높았고,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응답률은 남성 38.4%, 여성 24.2%로 남성이 14.2%p 더 높았고, 100만원 미만의 소득 응답률은 남성 17.9%, 여성 24.3%로 여성이 6.4%p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는 성별, 연령, 지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었다.

〈표3-33〉 6개월 간 월평균 소득

(단위 : %)

		소득 없음	50만원 미만	50~ 99만원	100~ 199만원	200~ 299만원	300~ 399만원	400만원 이상	χ^2 (p)
전체		3.3	6.1	11.7	18.8	28.9	18.0	13.1	
성별	남성	2.8	5.3	9.8	10.4	33.3	22.2	16.2	51.447*** (.000)
	여성	3.9	6.8	13.6	26.9	24.7	14.0	10.2	
연령	20~30대	2.5	3.2	8.5	21.6	39.2	13.4	11.7	174.071*** (.000)
	40~50대	1.5	1.5	6.8	18.7	29.1	24.9	17.5	
	60대 이상	7.9	18.5	25.4	14.8	13.2	12.7	7.4	
지역	도시	5.5	7.0	11.0	14.5	29.0	18.8	14.3	21.379** (.002)
	농촌	1.2	5.1	12.5	23.0	28.9	17.4	12.0	

주 : *p<.05, **p<.01, ***p<.001

1인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50~99만원이 29.1%로 가장 높고, 100~144만원

22.6%, 50만원 미만 14.6%, 150~199만원 10.2%, 300만원 이상 10.0%, 200~249만원 7.2%, 250~299만원 6.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생활비가 여성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40~50대의 생활비가 가장 높은 반면 60대 이상 노인 1인가구의 경우 주거비 포함 생활비가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68.8%로 과반을 넘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보다 도시 거주자의 월평균 생활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표3-34〉 6개월 간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

(단위 : %)

		50만원 미만	50~ 99만원	100~ 149만원	150~ 199만원	200~ 249만원	250~ 299만원	300만원 이상	χ^2 (p)
전체		14.6	29.1	22.6	10.2	7.2	6.4	10.0	
성별	남성	11.6	26.5	24.3	11.6	7.4	8.2	10.4	12.965* (.044)
	여성	17.3	31.4	21.1	9.0	7.0	4.7	9.6	
연령	20~30대	9.6	35.1	26.5	10.0	4.1	3.8	11.0	177.956*** (.000)
	40~50대	4.1	22.6	24.9	13.5	11.4	10.3	13.2	
	60대 이상	37.6	31.2	13.8	5.5	4.6	3.7	3.7	
지역	도시	14.5	27.2	21.2	12.2	10.0	6.7	8.2	15.336* (.018)
	농촌	14.7	30.7	23.8	8.5	4.7	6.0	11.6	

주 : *p<.05, **p<.01, ***p<.001

생활비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은 저축이 327.5점으로 종합점수가 가장 높았고, 식비 287.5점, 가족부양비 183.5점, 주거비 150.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가생활비와 자기개발비는 각각 99.0점, 56.5점에 불과하여 1인가구의 경우 여가나 자기개발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저축과 식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 1순위와 2순위로 나타났다지만, 3순위는 남성의 경우 사교활동비, 여성의 경우 주거비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지출항목에 순위가 많은 차이가 나타났는데,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식비, 저축, 사교활동비 순으로 순위가 나타났고, 40~50대는 저축, 가족부양비, 식비 순으로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은 식비, 주거비, 사교활동비 순으로 지출항목의 순위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도시와 농촌 모두 저축과 식비가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나 3위는 도시의 경우 사교활동비, 농촌의 경우 가족부양비로 다르게 나타났다.

〈표3-35〉 생활비에서 많이 지출되는 항목(다중응답)

(단위 : 점)

		저축	식비	여가생활비	자기개발비	사교활동비	가족부양비	주거비
전체		327.5	287.5	99.0	56.5	169.0	183.5	150.5
성별	남성	146.0	145.0	46.0	17.0	98.5	93.5	58.5
	여성	181.5	142.5	53.0	39.5	70.5	90.0	92.0
연령	20~30대	118.5	120.0	49.0	31.0	51.0	27.5	39.5
	40~50대	159.5	96.0	32.0	20.5	55.0	108.0	40.5
	60대 이상	49.5	71.5	18.0	5.0	63.0	48.0	70.5
지역	도시	162.5	133.0	57.0	26.5	80.0	77.5	64.5
	농촌	165.0	154.5	42.0	30.0	89.0	106.0	86.0

주 : 종합=[(1순위)*2+(2순위)]/2

	전체	성별		연령			지역	
		남성	여성	2030	4050	60+	도시	농촌
1순위	저축	저축	저축	식비	저축	식비	저축	저축
2순위	식비	식비	식비	저축	가족부양비	주거비	식비	식비
3순위	가족부양비	사교활동비	주거비	사교활동비	식비	사교활동비	사교활동비	가족부양비

〈그림 3-5〉 생활비에서 많이 지출되는 항목(1위~3위)

반면 생활비에서 적게 지출되는 항목은 자기개발비가 종합점수 26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저축 221점, 여가생활비 205.5점, 가족부양비 180.0점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자기개발비, 저축, 여가생활비 순으로 생활비에서 지출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자기개발비, 여가생활비, 저축 순으로 나타났다. 20~30대는 가족부양비가 가장 적은 반면, 40~50대는 자기개발비, 60대 이상은 저축이 생활비에서 가장 적게 지출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는 자기개발비, 저축, 가족부양비 순으로, 농촌은 자기개발비, 여가생활비, 저축 순으로 생활비에서 지출이 적었다.

〈표3-36〉 생활비에서 적게 지출되는 항목(다중응답)

(단위 : 점)

		저축	식비	여가생활비	자기개발비	사회활동비	가족부양비	주거비
전체		221.0	111.0	205.5	268.5	119.0	180.0	162.0
성별	남성	110.5	43.0	94.0	139.0	46.5	82.0	85.5
	여성	110.5	68.0	111.5	129.5	72.5	98.0	76.5
연령	20~30대	74.0	28.5	55.5	80.5	42.0	93.5	60.5
	40~50대	70.0	46.5	96.0	115.0	53.0	48.0	78.5
	60대 이상	77.0	36.0	54.0	73.0	24.0	38.5	23.0
지역	도시	111.5	57.0	80.5	122.0	59.0	91.5	75.5
	농촌	109.5	54.0	125.0	146.5	60.0	88.5	86.5

주 : 종합=[(1순위)*2+(2순위)]/2

	전체	성별		연령			지역	
		남성	여성	2030	4050	60+	도시	농촌
1순위	자기 개발비	자기 개발비	자기 개발비	가족 부양비	자기 개발비	저축	자기 개발비	자기 개발비
2순위	저축	저축	여가 생활비	자기 개발비	여가 생활비	자기 개발비	저축	여가 생활비
3순위	여가 생활비	여가 생활비	저축	저축	주거비	여가 생활비	가족 부양비	저축

〈그림 3-6〉 생활비에서 적게 지출되는 항목(1위~3위)

생활비 마련 방법은 근로소득이 79.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족의 지원 9.2%, 저축 4.7%, 사회급여 4.1%, 기타 2.6%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근로소득이 84.3%로 여성(74.9%)보다 응답률이 약 10%p 높았으며 여성은 가족의 지원(10.5%)과 저축(6.5%) 응답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근로소득 응답률이 20~30대와 40~50대가 각각 85.9%, 91.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60대 이상은 51.4%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이 낮았고, 저축(16.1%), 사회급여(11.9%) 응답률이 다른 연령 집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농촌은 도시보다 근로소득 응답률이 높았으며 도시는 저축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 간 차이는 성별, 연령에서 나타났다.

〈표3-37〉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명, %)

		N	근로소득	가족의 지원	저축	사회급여	기타	χ^2 (p)
전체		849	79.4	9.2	4.7	4.1	2.6	
성별	남성	402	84.3	7.7	2.7	3.5	1.7	13.367* (.010)
	여성	447	74.9	10.5	6.5	4.7	3.4	
연령	20~30대	290	85.9	12.1	0.3	0.3	1.4	191.136*** (.000)
	40~50대	341	91.8	2.3	1.2	2.3	2.3	
	60대 이상	218	51.4	16.1	16.1	11.9	4.6	
지역	도시	400	78.0	9.3	6.3	3.5	3.0	5.185 (.269)
	농촌	449	80.6	9.1	3.3	4.7	2.2	

주 : 기타는 친구에게 빌림, 대출, 배우자의 지원, 임대소득 등을 포함함
*p<.05, **p<.01, ***p<.001

1인가구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확인한 결과 유년기의 계층의식(2.81점)보다 현재의 계층의식(2.74점)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유년기와 현재 계층의식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성은 유년기의 계층을 현재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 20~30대와 40~50대는 유년기의 계층이 현재 계층보다 더 높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60대 이상의 경우 유년기보다 현재의 계층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유년기와 현재 계층의식의 차이를 많이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도시 거주 응답자였는데, 3.03점이었던 유년기 계층의식 점수가 현재는 2.82점으로 낮아져 가장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농촌은 유년기보다 현재의 계층이 상승했다고 평가하였다.

〈표3-38〉 주관적 계층의식

(단위 : 명, 점/5점기준)

		유년기 계층의식(M1)			현재 계층의식(M2)			Paired-t (M1-M2)
		N	M	t/F	N	M	t/F	
전체		851	2.81		851	2.74		2.409 [†]
성별	남성	404	2.86	0.757 (.449)	404	2.86	3.815*** (.000)	-0.481
	여성	447	2.79		447	2.64		3.641***

		유년기 계층의식(M1)			현재 계층의식(M2)			Paired-t (M1-M2)
		N	M	t/F	N	M	t/F	
연령	20~30대	291	2.99	18.431*** (.000)	291	2.85	6.063** (.002)	3.075**
	40~50대	342	2.85		342	2.75		2.249*
	60대 이상	218	2.51		218	2.58		-1.018
지역	도시	401	3.03	6.993*** (.000)	401	2.82	2.602** (.009)	5.101***
	농촌	450	2.61		450	2.67		-1.351

주 : 계층의식 = 극빈층(1) < 하층(2) < 중하층(3) < 중상층(4) < 상층(5)

*p<.05, **p<.01, ***p<.001

6) 여가 및 교육

1인가구가 주로 여가를 함께하는 대상은 친구가 46.3%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으며 혼자 보낸다 13.6%, 이웃과 함께 한다 13.5%, 가족 11.2%, 동호회 9.5%, 직장동료 5.9%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다. 성별로 남성은 친구와 함께한다는 응답률(48.9%)이 여성(43.9%)보다 높았고, 혼자 보낸다는 응답(16.2%)도 여성(11.3%)보다 5%p 이상 높았다. 반면 여성은 이웃과 함께한다는 응답률이 18.3%로 남성(8.2%)보다 2배 이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20~30대의 경우 친구와 함께한다는 응답률이 66.3%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40~50대는 41.9%, 60대 이상은 26.2%로 연령이 높을수록 친구와 함께한다는 응답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50대는 가족과 함께한다는 응답률이 15.8%로 높았고, 60대 이상은 이웃과 함께한다는 응답률이 37.4%로 20대~30대(2.1%)와 40~50대(8.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와 농촌 모두 친구와 함께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농촌(44.4%)보다 도시(48.4%)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가족과 함께한다는 응답률 역시 농촌(7.0%)보다 도시(15.9%)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농촌의 경우 이웃과 여가생활을 함께한다는 응답률이 21.3%로 도시(4.8%)보다 5배 가까이 높았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 간 차이는 모든 인구학적 변수에서 나타났다.

〈표3-39〉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대상

(단위 : 명, %)

		N	가족	친구	이웃	직장동료	혼자	동호회	χ^2 (p)
전체		843	11.2	46.3	13.5	5.9	13.6	9.5	
성별	남성	401	9.5	48.9	8.2	6.5	16.2	10.7	24.217*** (.000)
	여성	442	12.7	43.9	18.3	5.4	11.3	8.4	
연령	20~30대	288	9.4	66.3	2.1	4.9	10.8	6.6	196.579*** (.000)
	40~50대	341	15.8	41.9	8.2	8.5	15.2	10.3	
	60대 이상	214	6.1	26.2	37.4	3.3	15.0	12.1	
지역	도시	397	15.9	48.4	4.8	5.0	16.6	9.3	63.984*** (.000)
	농촌	446	7.0	44.4	21.3	6.7	11.0	9.6	

주 : *p<.05, **p<.01, ***p<.001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률(충분함+매우 충분함)은 40.7%로 부족하다는 응답률(부족함+매우 부족함) 24.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응답률이 35.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응답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연령 집단에서는 응답률의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률이 20~30대는 36.5%, 40~50대는 31.3%로 낮은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률이 61.0%로 2배 가까이 높았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농촌보다 도시 거주자가 조금 더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40〉 여가시간 충분 정도

(단위 : 명, %, 점/5점기준)

		N	매우 부족함	부족함	보통	충분함	매우 충분함	χ^2 (p)	M
전체		851	2.9	21.3	35.1	36.1	4.6		3.18
성별	남성	404	2.2	19.8	38.9	35.1	4.0	5.971 (.201)	3.19
	여성	447	3.6	22.6	31.8	36.9	5.1		3.17
연령	20~30대	291	2.7	26.5	34.4	34.4	2.1	73.177*** (.000)	3.07
	40~50대	342	3.2	25.1	40.4	28.7	2.6		3.02
	60대 이상	218	2.8	8.3	28.0	50.0	11.0		3.58

		N	매우 부족함	부족함	보통	충분함	매우 충분함	χ^2 (p)	M
지역	도시	401	2.0	20.7	35.9	35.2	6.2	7.229 (.124)	3.23
	농촌	450	3.8	21.8	34.4	36.9	3.1		3.14

주 : 점수(M)가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평가함을 의미함
*p<.05, **p<.01, ***p<.001

여가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일이 바빠서 부족하다는 응답의 종합점수가 251.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191.0점, 쉬고 싶어서 73.5점, 혼자 할 만한 것이 없어서 44.0점, 프로그램 부족 43.5점, 여가시설 부족 43.0점, 하기 싫어서 32.0점, 여가정보 부족 26.5점,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17.0점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여가시간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일이 바빠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쉬고 싶어서 순으로 응답을 많이 하였고, 지역별로는 도시와 농촌 모두 일이 바빠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쉬고 싶어서 순으로 응답을 한 반면 연령 집단에서는 20~30대와 40~50대는 동일하게 응답경향이 나타났으나 60대 이상의 경우 일이 바쁘기보다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3-41〉 여가시간이 부족한 이유(다중응답)

(단위 : 점)

		일이 바빴	경제적 부담	가족 돌봄	프로그램 부족	여가 시설 부족	여가 정보 부족	함께할 사람이 없음	하기 싫어서	쉬고 싶어서	혼자 할 만한 것 없음
전체		251.0	191.0	27.0	43.5	43.0	26.5	17.0	32.0	73.5	44.0
성별	남성	122.0	86.0	7.0	22.0	30.0	15.5	9.0	15.5	37.0	21.0
	여성	129.0	105.0	20.0	21.5	13.0	11.0	8.0	16.5	36.5	23.0
연령	20~30대	91.5	58.0	7.5	18.0	17.0	7.0	4.5	15.0	33.5	14.5
	40~50대	133.0	91.0	14.0	19.0	15.5	14.0	6.0	12.5	32.0	19.0
	60대 이상	26.5	42.0	5.5	6.5	10.5	5.5	6.5	4.5	8.0	10.5
지역	도시	126.5	74.5	15.0	21.5	20.0	10.5	5.5	14.5	42.0	22.0
	농촌	124.5	116.5	12.0	22.0	23.0	16.0	11.5	17.5	31.5	22.0

주 : 종합=[(1순위)*2+(2순위)]/2

	전체	성별		연령			지역	
		남성	여성	2030	4050	60+	도시	농촌
1순위	일이 바쁨	경제적 부담	일이 바쁨	일이 바쁨				
2순위	경제적 부담	일이 바쁨	경제적 부담	경제적 부담				
3순위	쉬고 싶음	시설 부족	쉬고 싶음	쉬고 싶음				

〈그림 3-7〉 여가시간이 부족한 이유(1위~3위)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취미 관련 프로그램이 315.0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 관련 프로그램 195.0점, 직업 훈련 프로그램 133.5점, 노후 설계 125.5점, 학위 취득 119.0점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남성은 취미 관련, 건강 관련, 노후 설계가 종합 점수가 높은 상위 3개의 프로그램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취미 관련, 건강 관련, 학위 취득 순으로 종합점수가 높았다. 연령별로 20~30대는 취미 관련, 학위 취득, 외국어, 인문교양 프로그램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40~50대는 취미 관련, 건강 관련, 노후 설계 순으로, 60대 이상은 건강 관련, 취미 관련, 노후 설계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는 취미 관련, 건강 관련, 노후 설계 순으로, 농촌은 취미 관련, 건강 관련, 학위 취득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3-42〉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다중응답)

(단위 : 점)

		학위 취득	취미 관련	외국어 인문교양	직업 훈련	노후 설계	시민 활동	한글 교육	농업 교육	컴퓨터 교육	건강 관련	종교 관련	가정관리 음식교육
전체		119.0	315.0	97.0	133.5	125.5	67.5	11.5	45.5	43.0	195.0	40.5	62.0
성별	남성	43.0	160.0	46.0	62.0	64.0	26.5	4.0	30.5	23.5	92.0	16.5	24.5
	여성	76.0	155.0	51.0	71.5	61.5	41.0	7.5	15.0	19.5	103.0	24.0	37.5
연령	20~30대	76.5	132.0	62.0	57.5	17.5	12.0	1.0	10.5	16.0	23.5	4.5	20.0
	40~50대	33.0	130.0	30.5	56.5	68.5	27.0	1.5	26.5	17.5	75.0	14.0	20.0
	60대 이상	9.5	53.0	4.5	19.5	39.5	28.5	9.0	8.5	9.5	96.5	22.0	22.0
지역	도시	58.5	160.5	46.5	54.5	66.5	43.0	1.5	13.5	23.5	81.5	15.0	31.5
	농촌	60.5	154.5	50.5	79.0	59.0	24.5	10.0	32.0	19.5	113.5	25.5	30.5

주 : 종합=[(1순위)*2+(2순위)]/2

	전체	성별		연령			지역	
		남성	여성	2030	4050	60+	도시	농촌
1순위	취미 관련	건강 관련	취미 관련	취미 관련				
2순위	건강 관련	건강 관련	건강 관련	학위 취득	건강 관련	취미 관련	건강 관련	건강 관련
3순위	직업 훈련	노후 설계	학위 취득	인문교양	노후 설계	노후 설계	노후 설계	학위 취득

〈그림 3-8〉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1위~3위)

7) 생활 및 주거환경

1인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가 52.2%로 가장 많고, 전세 19.9%, 월세 19.0%, 사글세 6.6%, 관사 등 무상 2.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자가와 무상의 비율이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월세와 사글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경우 월세가 35.5%로 가장 높고, 전세 28.3%, 자가 23.4%, 사글세 12.1%, 무상 0.7% 순으로 나타난 반면, 40~50대는 자가 58.4%, 60대 이상은 자가 81.1%로 연령이 낮은 20~30대 1인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자가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으나 도시가 농촌보다 전세 비율이 높고, 농촌이 도시보다 사글세와 무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는 성별을 제외한 연령과 지역 변수였다.

〈표3-43〉 주택 점유형태

(단위 : 명, %)

		N	자가	전세	월세 (보증금有)	사글세 (보증금無)	무상 (관사 등)	χ^2 (p)
전체		846	52.2	19.9	19.0	6.6	2.2	
성별	남성	403	53.6	19.9	18.9	4.5	3.2	8.961 (.062)
	여성	443	51.0	19.9	19.2	8.6	1.4	
연령	20~30대	290	23.4	28.3	35.5	12.1	0.7	205.320*** (.000)
	40~50대	339	58.4	21.5	12.4	4.1	3.5	
	60대 이상	217	81.1	6.0	7.4	3.2	2.3	

		N	자가	전세	월세 (보증금有)	사글세 (보증금無)	무상 (관사 등)	χ^2 (p)
지역	도시	397	52.1	22.7	18.6	5.8	0.8	11.207* (.024)
	농촌	449	52.3	17.4	19.4	7.3	3.6	

주 : *p<.05, **p<.01, ***p<.001

전라북도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37.4%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 28.4%, 연립/다세대 27.8%, 오피스텔 5.1%,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단독주택의 경우 남성(40.1%)이 여성(34.9%)보다 거주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비율이 각각 2%p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20~30대는 단독주택에 거주한다는 응답률이 21.0%에 불과했으나 40~50대는 38.1%, 60대 이상은 58.1%로 연령이 높을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30대의 경우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한다는 응답률이 43.1%로 다른 집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40~50대는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응답률이 33.1%로 다른 집단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는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응답률이 41.3%로 가장 높은 반면, 농촌은 단독주택에 거주한다는 응답률이 54.9%로 과반을 넘어 지역에 따라서 주택 유형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제외한 연령, 지역 변수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었다.

〈표3-44〉 주택 유형

(단위 : 명, %)

		N	단독	연립/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기타	χ^2 (p)
전체		848	37.4	27.8	28.4	5.1	1.3	
성별	남성	401	40.1	27.4	27.2	4.0	1.2	3.779 (.437)
	여성	447	34.9	28.2	29.5	6.0	1.3	
연령	20~30대	290	21.0	43.1	23.8	9.7	2.4	118.066*** (.000)
	40~50대	341	38.1	24.0	33.1	3.5	1.2	
	60대 이상	217	58.1	13.4	27.2	1.4	0.0	
지역	도시	400	17.8	32.5	41.3	7.0	1.5	133.649*** (.000)
	농촌	448	54.9	23.7	17.0	3.3	1.1	

주 : 기타는 여관/여인숙 등을 포함함

*p<.05, **p<.01, ***p<.001

현재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직장(학교)과 거리가 가까워서가 338.5점으로 종합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가 312.5점, 비용이 저렴해서 223.5점, 주거환경이 좋아서 90.0점, 교통이 편리해서 72.5점, 가족/친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67.0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직장과 거리가 가까워서,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 비용이 저렴해서 순으로 거주지 선택 이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는 직장과 거리가 가까워서, 비용이 저렴해서,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 순으로, 40~50대는 직장과 거리가 가까워서,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 비용이 저렴해서 순으로, 60대 이상은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 비용이 저렴해서, 교통이 편리해서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 거주자는 직장과 거리가 가까워서,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 비용이 저렴해서 순으로, 농촌은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 직장과 거리가 가까워서, 비용이 저렴해서 순으로 거주지 선택 이유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3-45〉 거주지 선택이유(다중응답)

(단위 : 점)

	직장 (학교) 거리	비용 저렴	본 거주지	가족/ 친구와의 거리	거주환경 안전	좋은 주거환경	교통 편리	주변 편의시설	의료시설 접근성	
전체	338.5	223.5	312.5	67.0	58.5	90.0	72.5	21.5	19.5	
성별	남성	171.0	100.0	154.0	33.5	14.5	40.5	34.5	11.5	8.0
	여성	167.5	123.5	158.5	33.5	44.0	49.5	38.0	10.0	11.5
연령	20~30대	165.0	79.5	56.0	21.5	26.0	38.0	24.5	5.5	4.0
	40~50대	151.0	96.0	113.0	29.0	20.5	35.5	25.0	7.0	4.5
	60대 이상	22.5	48.0	143.5	16.5	12.0	16.5	23.0	9.0	11.0
지역	도시	167.5	95.0	125.5	26.5	32.0	53.0	54.0	13.0	9.0
	농촌	171.0	128.5	187.0	40.5	26.5	37.0	18.5	8.5	10.5

주 : 종합=[(1순위)*2+(2순위)]/2

	전체	성별		연령			지역	
		남성	여성	2030	4050	60+	도시	농촌
1순위	직장 거리	본 거주지	직장 거리	본 거주지				
2순위	본 거주지	본 거주지	본 거주지	비용 저렴	본 거주지	비용 저렴	본 거주지	직장 거리
3순위	비용 저렴	비용 저렴	비용 저렴	본 거주지	비용 저렴	교통 편리	비용 저렴	비용 저렴

〈그림 3-9〉 거주지 선택이유(1위~3위)

주택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높은 주택비용이 43.3%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원하는 위치에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은 12.1%, 지역에 대한 정보 부족 11.3%, 좋은 집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 부족은 10.9%가 응답했다. 주택을 선정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률은 21.1%로 나타났다. 성별로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주택비용과 좋은 집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했던 점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으며, 남성은 원하는 위치에 매물이 부족했다는 점이 여성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택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률이 증가하여 20~30대는 9.0% 뿐이었던 응답률이 60대 이상에서는 38.0%로 나타났다. 20~30대와 40~50대는 높은 주택비용을 어려운 점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은 도시에 비해 주택비용이 높아서 어려웠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도시는 농촌보다 좋은 집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과 원하는 위치에 매물이 부족해서 주택을 선정하는 데 어려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는 연령변수로 나타났다.

〈표3-46〉 주택선정 시 가장 어려움 점

(단위 : 명, %)

		N	좋은 집 선별정보 부족	원하는 위치에 매물부족	높은 주택비용	지역에 대한 정보부족	기타	어려움 없음	χ^2 (p)
전체		842	10.9	12.1	43.3	11.3	1.2	21.1	8.824 (.116)
성별	남성	399	9.8	15.3	41.1	10.5	1.3	22.1	
	여성	443	12.0	9.3	45.4	12.0	1.1	20.3	

		N	좋은 집 선별정보 부족	원하는 위치에 매물부족	높은 주택비용	지역에 대한 정보부족	기타	어려움 없음	χ^2 (p)
연령	20~30대	290	13.8	15.5	47.9	13.1	0.7	9.0	74.361*** (.000)
	40~50대	339	10.9	9.1	47.2	10.9	0.9	20.9	
	60대 이상	213	7.0	12.2	31.0	9.4	2.3	38.0	
지역	도시	398	12.6	14.1	41.7	11.1	1.5	19.1	6.881 (.230)
	농촌	444	9.5	10.4	44.8	11.5	0.9	23.0	

주 : 기타는 여관/여인숙 등을 포함함

*p<.05, **p<.01, ***p<.001

1인가구가 평가하는 거주지역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 환경에 대해서 마을의 교통접근성은 5점 만점에 3.11점으로, 마을의 안전서비스는 5점 만점에 3.01점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의 안전 체감도는 폭력·범죄로부터의 안전 3.19점, 소음 등 사생활침해로부터의 안전 3.22점, 주택보안·도둑침입으로부터의 안전 3.16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전라북도의 1인가구는 거주지역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거주지역의 안전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환경 만족도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지역별로는 농촌보다 도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안전 체감도의 경우에는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의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농촌보다는 도시가 높게 나타났으나 소음 등 사생활침해 정도에 대해서는 농촌거주자가 더 안전하다고 체감하고 있었다.

〈표3-47〉 거주지역 만족도

(단위 : 점/5점기준)

		거주지역 환경 만족도		거주지역 안전 체감도		
		마을의 교통접근성	마을의 안전서비스	주변지역의 폭력·범죄로부터 안전 정도	소음 등 사생활침해 정도	주택보안상, 도둑침입에 대한 위험 정도
전체		3.11	3.01	3.19	3.22	3.16
성별	남성	3.14	3.10	3.33	3.30	3.28
	여성	3.08	2.91	3.06	3.14	3.05
	t	1.027	3.227**	4.935***	2.906**	4.083***

		거주지역 환경 만족도		거주지역 안전 체감도		
		마을의 교통접근성	마을의 안전서비스	주변지역의 폭력·범죄로부터 안전 정도	소음 등 사생활침해 정도	주택보안상, 도둑침입에 대한 위험 정도
연령	20~30대	3.09	3.02	3.32	3.32	3.30
	40~50대	3.08	2.98	3.13	3.16	3.11
	60대 이상	3.17	3.04	3.11	3.16	3.03
	F	0.794	0.487	5.926**	3.647*	7.481**
지역	도시	3.31	3.14	3.23	3.14	3.18
	농촌	2.92	2.90	3.16	3.29	3.13
	t	6.845***	4.349***	1.300	-2.647**	0.877

주 : 점수가 높을수록 거주지역 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함을, 안전 체감도에 대해서는 안전함을 의미함
*p<.05, **p<.01, ***p<.001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28.0%가 안전 귀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율방법활동 27.3%, 가로등 23.6%, 응급전화/응급벨 18.8%, 기타 2.2%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안전 귀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32.9%로 남성(22.6%)보다 10%p 이상 높았으며 남성은 가로등과 자율방법활동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는 안전 귀가서비스(29.9%)와 가로등(28.5%)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40~50대는 자율방법활동(32.6%)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안전 귀가서비스(32.6%)와 응급전화/응급벨(27.5%)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 농촌은 가로등(29.2%)과 자율방법활동(29.0%)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도시는 안전 귀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32.2%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는 성별, 연령, 지역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3-48〉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

(단위 : 명, %)

		N	가로등	응급전화 /응급벨	안전귀가 서비스	자율방법 활동	기타	χ^2 (p)
전체		850	23.6	18.8	28.0	27.3	2.2	
성별	남성	803	27.0	17.9	22.6	29.3	3.2	16.629** (.002)
	여성	447	20.6	19.7	32.9	25.5	1.3	

		N	가로등	응급전화 /응급벨	안전귀가 서비스	자율방법 활동	기타	χ^2 (p)
연령	20~30대	291	28.5	13.4	29.9	25.4	2.7	33.426*** (.000)
	40~50대	341	24.3	17.9	23.5	32.6	1.8	
	60대 이상	218	16.1	27.5	32.6	21.6	2.3	
지역	도시	401	17.5	21.4	32.2	25.4	3.5	26.108*** (.000)
	농촌	449	29.2	16.5	24.3	29.0	1.1	

주 : *p<.05, **p<.01, ***p<.001

1인가구의 29.1%는 공동주택 거주 의향이 없다고 밝혔으며, 오피스텔로 친교/운동 공간만 공유하는 형태에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률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공동주택의 거주 의향이 낮았으며 오피스텔로 친교/운동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와, 유주택 어르신과 청·장년이 함께 생활하는 형태에 대한 응답률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남성/여성 전용 공동주택과 화장실은 따로, 부엌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동주택을 선호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동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오피스텔 형태의 친교/운동공간만 공유하는 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유주택 어르신과 청·장년이 함께하는 거주형태와 남성/여성 전용 공동주택 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공동주택 거주의향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도시는 화장실은 따로, 부엌 등을 공유하는 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농촌은 유주택 어르신과 청·장년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는 성별과 연령, 지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었다.

〈표3-49〉 공동주택 거주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

		N	거주의향 없음	침실 따로, 화장실/부엌 공유	화장실 따로, 부엌 등 공유	오피스텔 형태, 친교/운동 공간 공유	유주택 어르신과 청·장년 함께	남성/여성 전용 공동주택	χ^2 (p)
전체		850	29.1	4.2	10.7	32.2	10.2	12.4	
성별	남성	403	33.5	4.0	8.2	35.2	12.4	5.0	51.460*** (.000)
	여성	447	25.1	4.5	13.0	29.5	8.3	19.0	

		N	거주의향 없음	침실 따로, 화장실/부엌 공유	화장실 따로, 부엌 등 공유	오피스텔 형태, 친교/운동 공간 공유	유주택 어르신과 청·장년 함께	남성/여성 전용 공동주택	χ^2 (p)
연령	20~30대	291	33.0	5.5	12.4	36.8	3.1	9.3	66.613*** (.000)
	40~50대	341	29.6	3.2	9.1	34.9	10.9	10.3	
	60대 이상	218	22.9	4.1	11.0	22.0	18.8	19.7	
지역	도시	401	29.4	4.7	15.0	31.7	7.5	10.7	20.876** (.002)
	농촌	449	28.7	3.8	6.9	32.7	12.7	13.8	

주 : *p<.05, **p<.01, ***p<.001

성별에 따른 범죄취약성에 대해서는 여성 1인가구가 위험할 것 같다는 응답률이 64.2%로 가장 높았고, 남성 1인가구가 위험할 것 같다는 응답률이 3.1%,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위험할 수 있다는 응답률은 32.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응답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와 60대 이상에 비해 40~50대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위험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 거주자가 여성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8.8%로 농촌(60.1%)보다 높았고, 농촌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위험하다는 응답률이 도시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는 지역변수였다.

범죄예방 및 대처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원한다는 응답률이 50.3%,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49.7%로 각각 절반 수준이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범죄예방 및 대처교육에 대한 욕구가 떨어졌다. 집단 간 응답의 차이는 성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3-50〉 범죄에 대한 취약성 및 예방교육의 필요성

(단위 : %)

		상대적 범죄취약성				범죄예방 및 대처교육 욕구		
		여성이 위험	남성이 위험	모두 위험	χ^2 (p)	원함	원하지 않음	χ^2 (p)
전체		64.2	3.1	32.7		50.3	49.7	
성별	남성	63.0	4.0	33.0	2.242 (.326)	43.0	57.0	16.326*** (.000)
	여성	65.2	2.2	32.5		56.9	43.1	

		상대적 범죄취약성				범죄예방 및 대처교육 욕구		
		여성이 위험	남성이 위험	모두 위험	χ^2 (p)	원함	원하지 않음	χ^2 (p)
연령	20~30대	67.7	2.1	30.2	5.161 (.271)	51.6	48.4	1.466 (.480)
	40~50대	60.3	4.1	35.6		51.5	48.5	
	60대 이상	65.6	2.8	31.7		46.7	53.3	
지역	도시	68.8	4.0	27.3	11.591** (.003)	49.5	50.5	0.195 (.355)
	농촌	60.1	2.2	37.6		51.0	49.0	

주 : *p<.05, **p<.01, ***p<.001

2.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본 도시남성 1인가구 경험

가. 심층면접조사 개요

1) 심층면접 방법 및 조사내용

심층면접은 2021년 1월 중순에서 하순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고, 전라북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0대에서 70대까지의 남성 1인가구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질의 내용은 1인가구 형성 원인과 유지, 주거경험, 경제적 안정성, 소비와 문화생활,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망, 1인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 수요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반구조화 된 면접 질문지를 바탕으로 면접 과정에서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논의를 추가하는 방식이었다. 면접은 1:1 개별면접으로 진행되었고, 면접시간은 면접 당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 장소는 응답자의 선호에 따라, 면접자의 직장이나 면접자 거주지 부근의 카페 등의 장소를 이용하였다.

심층면접의 질문은 전북 도시여성 1인가구에 대한 연구(이수인 외 2020b)에서 진행된 조사와 유사하게 설정되어, 이 연구에서는 남성 1인가구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소결 부분에서 기존에 진행된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질 연구』, 『전북 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도시지역을 중심으로』의 전라북도 1인가구 대상 설문과 심층면접의 결과를 통합하여 정리하였다.

〈표3-51〉 심층면접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1인가구 형성 원인과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형성의 이유와 시기 · 1인가구 지속기간 · 1인가구 삶에 대한 만족도
주거형태, 주거안전성, 주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형태와 선택 이유 · 안전 위협 경험과 대처 방안 · 주거 환경
직업과 경제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적 특성 · 안정성 · 소득 · 1인가구 지속 가능성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구분	조사내용
소비, 식당, 문화서비스	· 1인가구를 위한 소비, 식당, 문화서비스 · 만족스러운 부분 · 필요한 부분
사회적 관계망	·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유지 · 여가 및 취미활동 관계망
가족 형성에 대한 기대	· 결혼에 대한 본인의 기대 및 계획 · 결혼에 대한 집안이나 주변의 압력 여부 · 대처방안 · 사회적 태도와 압력
1인가구 노후 및 부모부양	· 노후 계획과 준비 · 부모 및 가족 돌봄 · 의료비 등을 위한 안전망 여부 ·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비
원하는 가족, 공동체상	· 희망하는 가족의 형태 · 공동주거 등에 대한 계획
1인가구 지원정책	· 1인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경험 여부 ·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 정책제언

2) 심층면접 응답자

심층면접의 대상자는 세대를 중심으로 표집 하였고, 결혼여부와 1인가구 원인 등을 다양화하여 선별하려고 하였다. 독립, 사별, 이혼 등의 원인으로 1인가구가 된 경우와 직장으로 인해 가족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중에는 1인가구 생활을 하는 케이스도 심층면접에 포함하여, 가족 이주 대신 1인가구를 선택한 이유에 주목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3-52〉 심층면접 대상자

연번	성별	연령	직업	결혼상태	주거형태
1	남성	30대	계약직 공무원	결혼하지 않음	빌라(전세)
2	남성	30대	프리랜서	결혼하지 않음	상가주택(월세)
3	남성	40대	회사원	기러기	원룸(월세)
4	남성	50대	언론인	이혼	아파트(월세)
5	남성	60대	개인사업	사별, 이혼	원룸(월세)
6	남성	70대	공공근로	이혼	원룸(월세)

나. 도시 남성 1인가구의 경험

1) 1인가구 형성과 유지

가) 1인가구 형성이유와 지속 기간

1인가구가 된 이유는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학이나 취업으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면서 나타났고, 이혼이나 자녀의 혼인 등으로 인해 혼자 살게 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1인가구 형성 원인은 부모님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직장이 생기면서 자신만의 공간을 위해 독립한 경우를 볼 수 있었고(면접자 1),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1인가구를 20년 가까이 지속한 경우도 있었다(면접자 2). 기혼인 경우에는, 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면접자 3)가 있었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뒤, 혼자 사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면접자 4, 6). 면접자 5번의 경우는 본인의 처음 설명에서는 사별하고, 딸하고 살다가 딸이 결혼한 뒤로 혼자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이후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재혼과 이혼의 경험이 그 사이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접자 5).

1인가구의 지속기간은 다른 지역 취업으로 인한 기러기 생활 6개월에서부터, 이혼 뒤 20여 년간 혼자 살고 있다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응답자의 대부분의 경우 1인가구가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나) 1인가구 만족도

청년층에서는 1인가구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가족에서 독립되어서 살면서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의 불편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답 : 괜찮죠. 같이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문 : 그래도 집에 있으면 도와줬던 일들이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답 :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감수할 만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직장하고 거리도 가까워졌고(심층면접 1).

자율적인 거? 같이 쉼어했던 경험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주변에, 거의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누군가 옆에 있다거나 하면 인식이 돼 가지고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심층면접 2).

또한 1인가구를 오래 경험하면서, 생활을 위해 만나는 사람들이나 삶의 방식이 안정되면서, 그 만족도가 높아지고,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지금은 그런 걸 떠나서 많이 일적으로 떠나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냈고... 이곳에 온 지 6년, 7년 됐으니까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도 됐는데. 그리고 또 제가 오래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나 봐요. 오히려 저희 집에 처음에는 사람들 많이 초대해서 밥도 먹고 했는데 이제는 저희 집 공간은 오롯이 나만의 공간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도 초대 안 하게 되고 혼자서 지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요즘에는 딱 퇴근하고 집 가면 나만의 공간, 편안한 공간, 이런 공간이 돼서 오히려 지금은 혼자 사는 게 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거기에, 나만의 공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조금 어색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심층면접 4)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는 1인가구의 경우,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 불편한 점이 있지만, 직장에 집중할 수 있고, 저녁에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점에 있어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만족도는 나쁘진 않은데... 1인가구로서는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가족이랑 같이 있는 거에 비하면 나쁘죠. 만족도라는 게 크게 불편한 게 없다는 의미고... 크게 불편한 게 없다는 점에서. 크게 만족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보통... 장점? 장점은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요... 단점은 일단은 식사부터 이제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니까 경제적인 비용. 그리고 가족들과의 단절?(심층면접 3)

그러나 사업실패와 사별과 이혼으로 혼자 사는 경우,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인가구를 선택해서 살고 있다기보다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건 악담이지. 외롭고... 첫째 돈이 없으니까 어느 분을 만나려고 해도 자존심 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남들같이 허황된 그런 건 없잖아 요. 그럼 못하지.(심층면접 5)

1인가구에 대한 만족도는 1인가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지의 여부와 다른 사회적 관계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하는지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 주거형태와 주거환경

가) 주거형태

주거형태는 6명의 응답자 중 한 명이 전세였는데, 월세 부담이 너무 심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빌라에 살고 있었다. 응답자들이 월세를 선택하는 이유에는 전세 값 마련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나타나기도 했지만, 한 응답자는 전세로 살다가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오히려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월세를 선택하고 있었다.

처음엔 2000만원 전세를 사는데, 경매가 들어와서요. 경매 들어와서 1000만원 받고 1000만원 못 받았지. 그래서 새로운 주인하고 돈도 없고 월세로 하자...(중략),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 무렵에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랬다고 하면서 자기만 주물주물하대. 그래서 더 받진 못했어요. 주민등록 안 든 사람은 10원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고. (중략)...반 받으면 많이 받은 거야. 여기 동호빌라라고 있잖아요. 경매가 들어온 지가 7~8년 됐는데도 안 사가요. 그런 곳은 누가 들어와도 2500에 사는 사람은 1000만원도 못 받는대요. 이게 건물에 따라서...(중략)... 내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지. 내가 애들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월세로 산다. 전세방을 가야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애들이 조금씩 해준 것이 은행에 있어요. 근데 아직 전세로 못 가고... 또 경매가 들어 올까봐 전세는 못 가고 그냥 이대로 살고 있어요.(심층면접 6)

이 응답자의 경우, 생활비가 한 달에 80만 원가량인데 비해, 월세 부담금이 27만원에 이르러, 전세를 선택하면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 있음에도, 전세 자금에 대한 안전망이 없으므로, 더 열악한 상황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다.

나) 안전에 대한 인식

남성 1인가구들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 1인가구에 비해 낮은 편이었고, 집 안에 문 닫고 들어가 있으면 괜찮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들의 경우 두려워했을 주변의 빈집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주변 집들이 비어있어서 조용하다고 평가하면서 크게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반응하거나, 도시여성 1인가구 면접자의 경우처럼 이사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안전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그래도 저는 남자다보니까 안전 쪽은 크게 신경 안 쓰고요. 환경은 제가 차가 있으니까 솔직히 좀 빌라가 외져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자였으면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동네가 조금 개발이 안 들어간 옛날 동네라 어둡고, 외져있고 이런 편이에요. 그렇다고 안전 문제가 있을 정도로 뭐가 있는 동네는 아닌데 낙후된 동네라서. 안전에 대한 걱정은 제가 없는 편이기도 하고. 주변이 안전 불감증 가질만한 상황도 아니고...(심층면접 1)

저야 문 잠그고 있으니까 안전인지 뭔지 모르지, 전혀... 조용하긴 해요. 사람이 다, 방이 비어있으니까. 많이... 여기가 아파트가, 원룸이 전주대학교 앞은 잘 되잖아요. 여기는 아예 없어. 방이 18개인데 10개 들어갈랑 말랑. 옆에도 비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비어있어요.(심층면접 5)

또한, 오히려 아파트의 다른 집들이 없는 상태여서, 흡연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세탁도 아무 때나 가능하다고 장점으로 파악하고 있기도 했다.

네. 문 열어놓고 다닐 때도 있어요. 누가 와서 가지고 갈 것도 없고. 침대랑 책상이랑 책꽂이를 들고 갈 일도 없고. 저야 뭐 중요한 게 핸드폰, 노트북 같은 거나 이런 건 차 안에다 넣어 놓고 다니니까요. 와서 가져갈 것도 없고. 가끔 까먹고 문 열어 놓고도 다니니까요. 그런 안전, 환경... 저희 집 근처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안 살고 있으니까... 밤에 세탁기를 돌려도 항의할 사람도 없고. 또 제가 5층이어서. 담배를 피우거든요. 요즘에 아파트에서 담배도 못 피잖아요. 근데 주위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담배 피워도 되고...(심층면접 4)

원룸에 사는 70대 1인가구 응답자는 “원룸에 혼자 사는 집에 도둑놈은 안 온대요. 주인 세대만 가지. 외박자 가져갈 것도 없고...”라고 농담으로 안전에 대해 가진 것이 없어, 큰 걱정이 없다고 대답하기도 했다(심층면접 6).

3) 경제적 상황

가) 소득과 경제적 안정성

직장이 있는 청년 1인가구의 경우는 노후에 대한 걱정도 아직 적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함에도, 일상을 영위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다.

제가 단순한진 모르겠는데 아직 혼자니까 크게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뭘 해도 혼자 먹고 살만큼은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충분히 혼자 소비할 만큼은... 크게 미래를 보고 이러면 당연히 안정적인 자리를 빨리 찾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했어요. 무감각했기도 했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미래를 볼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직에 대한 부담은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원래 처음 할 때부터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지 이런 것도 아니었고. 물론 지금은 원래 원하던 직업에 대한 생각은 조금 많이 꺾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뭘 어떻게 방향을 잡든 나 혼자만 생각을 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심층면접 1)

그러나 70대의 남성 독거노인의 경우, 수입원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로 한정되어, 한 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팍팍한 삶을 경험하고 있었다. 정해진 소득에서 월세와 약값 등을 제외하면, 아껴서 식비를 사용하는 외에는 다른 여유자금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답 : 기초연금 받고, 국민연금. 2개 해서 한 55만원.

문 : 이거로 생활이 되세요?

답 : 힘들죠.

문 : 약값 같은 거 있어서?

답 : 노인일자리를 하면 생활이 되고, 그걸 못하면 좀 부족하고.

문 : 노인일자리는 일당으로 받는 거예요?

답 : 한 달에 27만원.

문 : 그러면 매달 계약하는 거예요?

답 : 1년에 11달. 몇 년 전에는 10달 했는데... 한 2~3년 됐나? 11달 된지가.

(심층면접 6)

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어려움

1인가구로의 삶이 코로나를 통해 더 어려워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프리랜서 예술가인 응답자는, 예술계의 상황에 대해 직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대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차츰 익숙해졌고, 또한 정부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예술가를 위한 지원사업이 생기면서, 작품 매입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작품을 팔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것도 동료 작가들이랑 얘기해본 건데요. 교육 쪽, 방과 후나 교습소 운영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많이 힘들어했어요. 반면에 교수, 강의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영상으로라도 진행하니까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중에는 조금 편해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로 사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미술관에서 작품을 매입해준다거나... 코로나 관련해서 작가들한테 지원 목적으로 작품을 매입했었거든요. 이번에,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생겨서요. 오히려 코로나 때 괜찮았어요, 저는... 보통은 기관에서 작품을 매입도 하거든요. 미술관이거나 수도권 중앙에서 작품 매입도 하고 공고를 내기도 하는데, 인원이 적어요. 작년 코로나 관련해서는 상당수 작품을 매입을 했는데, 대신에 원래 가격보다는 많이 조금 깎아서 가져갔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더라도 작가들이 이제 그거라도... 보통은 기관은 잘, 그런 기회는 많이 없어요. 개인이 작품한 것을 사준다거나 이런... 큰 작품은 잘 구매가 안 되거든요. 소품 정도는, 소품이 판매되더라도 100만원 아래 정도라. 크게 도움은... 아까 생계 관련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예술인 복지재단 이쪽에서 작가들한테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작가들이 어떤 기업이랑 매칭이 돼서 기업이 요구하는 일과 작가가 할 수 있는 일을 조율해서 역할을 하면 한 달에 재단 쪽에서 120만원을 작가한테 지원을 해줘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거 하면서 조금 나왔어요. (심층면접 2)

그에 비해, 국가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있는 60대 초반의 경우, 아예 일이 없어서, 수입이 전무하다고 고백했다. 이런 경제적 문제의 해결은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용돈과 쌀 같은 것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 그러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셨어요?

답 : 아예 없어요. 일이.

....

문 : 식사나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답 : 제가 시골에 부모님이 계셔 가지고... 어머니 계셔 가지고, 쌀 같은 건 도
와주고 어머니가 용돈 좀 주고 쌀 같은 건 가져다 먹고(심층면접 5)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지면, 중지
했다가,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시작하는 방식이지만, 그래도 근무 일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1년에 11달을 채워주기 때문에, 1년 동안 받는 금액은 같지만, 규칙성은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여기도 작년 같은 경우는, 3~4월에는 일을 안 했죠. 코로나였으니까 시에서 못
하게 하면 여기도 안 해요. 조용해지면 하면서도 다 마스크 쓰고, 다 떨어져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교육을 받죠. 이제 올해 새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가 없어져야 일을 맘 놓고 하는데, 또 심하게 나오면 또 스톱해요...(월급을) 못
받고 그 다음달에 10일 할 거 15일 한다든지 13일을 한다든지 보충을 하는 거
야. 1년에 어떻게 됐든 간에...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다 채워
주는데, 이게 코로나가 제일 문제더라고(심층면접 6)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해,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활동 역시 위축되어 우울감이 심해진다고 응답하였다.

우울하단 걸로 말을 하면 한이 없지만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제 그러려
니 하고 사는 거지 뭐. 우울하고 심심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하면 못 살죠. 맨날
텔레비전 보면 엄청난 말만 나오고...(심층면접 6)

4) 소비와 문화

가) 1인가구를 위한 생활편의

1인가구가 경험하는 소비나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배달 주문의 경우, 일정
금액이 되어야 배달이 가능한데, 그 양이 2인분에 가까워서 과소비와 과식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1인가구가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한정되어
있는 편이어서, 아무래도 음식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식비 쪽에서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데.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웬만하면 나가서 먹고 이랬었는데 아무래도 혼자다 보니까 같이 안 먹으면 배달을 많이 시켜먹거든요. 근데 배달을 시키려다 보면 대부분 2인, 양 자체가 그렇게 배달이 돼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많이 먹고 싶지도 않은데 돈을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시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식비가 배달을 해서 먹으면서 너무 증가를 많이 했어요. 2인분을 혼자 계속 시켜먹는 느낌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좀 있죠.(심층면접 1)

예전에는 혼밥 이런 게 조금 그랬는데, 적응하니까 그런 것도 나쁘지 않고 이제 혼자 먹기에 제한적인 거죠. 식단이. 제가 어디 가서 혼자 파스타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분식집. 혼자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다양하지 않으니까. 이목이 아직까지는... 혼자 삼겹살 먹을 수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분식집 위주로 많이 가니까. 그런 게 조금 제한적, 불만족스러운 거... 문화서비스는 혼자서 운동하는 정도인데...(심층면접 3)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고민도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소비 여력이 있는 응답자들의 대답이었고, 소득 수준이 낮은 1인가구는 외식은 거의 불가능하고, 복지관에서 밥을 사 먹거나,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고 대답했다. 특히 요즘은 복지관이 코로나19로 운영을 하지 않아서, 식사가 더욱 부실해지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다.

나) 1인가구를 위한 제언

많은 음식물에 대한 포장 기준이 1인가구보다는 다인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의도하지 않게 음식물을 많이 사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유냉장고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음식물의 특성상, 유통기한의 문제와 관리, 식중독 등의 위험 등으로 쉽게 제도화하기는 힘들지만, 공유냉장고, 공유 주방 등의 제언은 공간과 식재료 등의 부족으로 건강한 음식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1인가구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선 사람들이랑 그런 공유냉장고 같은 것들 많이 건의를 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솔직히 1인가구가 되게 많아요. 마트 같은 데 가면 파 1단을 사도, 3단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1단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2단이 남으니까 이거는 1단 쓰

고 1단은 공유냉장고 같은 데다 넣어 놓고 이렇게 하자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도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은 어차피 3단 사면 다 잘라서 냉장고에 얼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활 속의 실천 아이디어들이 생기더라고요. 무도 반 정도 있으면 반 쓰고 나머지는 잘라서 얼려놓으면 되더라고요. (심층면접 4)

5) 가족 형성에 대한 기대와 어려움

1인가구의 지속과 결혼에 대한 의견은 각각의 1인가구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결혼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그 결혼을 실천하기 위한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결혼 상대자를 찾지 않고 있었다.

그거는 제일 바라지 않는 것. 1인가구를 계속하는 거는 제일 바라지 않는 것. 결혼하고 싶죠.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10년 뒤니까 자녀도 있었으면 좋겠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정도... (1인가구로) 계속 살고 싶고 이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라고 해야 되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요. 하면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굳이 고려할 상황은 아닌 거죠... 여자도 없고,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뭔가 그런 걸 생각할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제일 큰 것 같아요.(심층면접 1)

또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언제까지 혼자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언급했다. 자신의 의지나 상태와는 달리 주변에서 주는 압력으로 인해, 결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고백했다.

네. 맞아요. 심리적으로 솔직히 너무 편하고 좋은데. 혼자 이대로 뭐가 그냥 되는데대로 살아온 느낌도 있었고. 돈 벌고, 내가 쓰고, 여가시간에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는데. 성과에 대한 목적, 안정적인 자리에 대한 목적 없이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혼자 즐겁게 살고 싶어도 주변하고 비교를 시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데서 오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죠. 다 결혼을 하는구나, 다 이 나이쯤 되면 경제적인 이런 걸 가지고 집을 사서 뭘 하는구나. 그런 거에 대한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면...(심층면접 1)

그에 비해, 비슷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한 경우를 많이 본 응답자는 스스로 미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고, 따라서 결혼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혼과 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직업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하여, 결혼의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환경이 안 되고... 만약에 결혼을 했을 때 상황 같은 거를 선배들 사례를 보면서 저도 판단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봤거든요. 선생님들 작업 하시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 되고, 이걸 봤을 때 그냥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은 안 된다. 결혼보다는 작업을 계속하는 게 나한테는... 지금까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심층면접 2)

주말부부를 하고 있는 응답자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같이 살 예정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과 집, 주거, 문화시설 등의 환경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부분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자녀 교육이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죠. 교육도 크고, 교육이 가장 크고... 그리고 다른 지방에 살던지 예를 들어서 익산이나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대도시로 오는 거는 쉽게 오실 수가 있는데 서울에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중요한... 근데 아직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저 혼자 살기에는 불편하고 그런 건 없지만, 만약에 가족이 내려와서 산다고 하면 일단은 교육, 집, 주거, 그리고 가까운 마트라든가 문화시설 그런 거 보면... 아직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일단은 와이프가 약간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쉽게 결정하기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심층면접 3)

이혼한 뒤 11년간 1인가구를 경험한 응답자는 본인은 결혼에 대한 의지가 없음에도, 지역 공동체에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또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파악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변의 결혼 요구를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거는 있죠. 술 좋아하니까 술 먹고 조금 있다 전화를 안 받고 하면 '독거노인 혼자 집안에서 연락 안 돼서 죽었나' 그런 걱정은 좀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 몰라도 나중에는 혼자 살다가 그러면 어떡하냐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는 양반들은 있는데 그렇게... 그런 것들도 지역에서는... 지금은 혼자 살고

즐겁지만 나중에는 또 외롭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저를 아직도 여기에
올곧이 정착하지 못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결혼을 해
서 여기서 정착을 해라, 결혼을 해야지 진짜 여기 사람이 된다...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제가 훌쩍 또 다른 데로 떠나가면 안 되니까 자빠뜨리기 위한 그런
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정도지 뭐.(심층면접 4)

독거노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60대, 70대 두 사례 모두 결혼은 하고 싶지만,
스스로의 경제적 조건으로는 여성들과 결혼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파악하면
서, 아쉬움을 표현했다.

한다고 해봐도 혼자보다 둘이 낫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은 여성분도 그렇지
만... 조금 몇 사람 대화도 해보고 했지만, 자식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재혼은 하나의 물주로 생각. 그래서 내가 안 만나려고 해요. 기회 있어요. 나이
먹으면 자식들도 부모 입장을 생각 안 하는데. 나는 느꼈잖아요. 만약 나는 재혼
을 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젊으니까 둘이만 서로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심층면접 5)

우리가 그렇잖아요. 키도 조그만하지 뚱뚱하지. 여자들이 좋아하진 않죠. 돈이
나 많다면... 돈 많다면, 돈 많다고 한 번 빵을 치니까 사람이 따르더라고요. 세
상이 그래요... 아, 생각이야 누구든지 다 있죠. 있는데 그게 자기가 해나갈 수
없고,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몸은 말을 안 듣고 아예 포기를
하고 살아야죠.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심층면접 6)

실제로, 결혼에 대해 큰 의자가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스스로의 희망과는 달리
경제적인 조건에 의해 결혼이나 재혼을 포기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경제적인
사정이 가족 구성에 영향을 크게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노후 및 부모봉양

청년 1인가구의 경우 노후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아직 젊기 때문에 구체
적으로 상상하고 있지 않고, 그런 계획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계획을 세우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걸 상상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막연히 그

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교습소라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심층면접 2)

60대 1인가구의 경우,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합가를 하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반대하여 내려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다른 자식들로부터 일정정도 생활비를 받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부모를 봉양하기보다는 어머니에게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작년에 다 망해먹고 가려고 했더니, 어머님 자존심이 오지 말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하다고...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부조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000만원을 정기예금 시켜놨어. 그리고 자식들이 일곱이 월 100만원 씩 줘. 딸은 10만원, 아들은 20만원인데. 내가 못 주니까 동생 하나가 군인 중령이고, 하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만원 해가지고 50만원 하고. 딸들 해가지고 100만원 채우고 노인연금 나오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생활하시고. 그 양반은 괜찮지. 시골에서 쓸게 뭐가 있어. 텃밭에서 양파 다 나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양반한테 의지를 많이 하지.(심층면접 5)

그러나 그런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스스로를 돌보지 못할 상황이 오면 자살할 수 있도록 농약값이라도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말하여, 안타까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행히 건강이 괜찮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암이나 그러면 참 인생이... 어제 그제 사람 만나고 다녔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내가 보험도 없는데 만약 내가 무슨 몹쓸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농약 살 값은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 왜? 누구한테 피해 주고 뭐 하지 말고 혼자 스스로 아무 저기 없이 자 버려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죽음이라는 것을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이제 생각을 해. 이제 그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심층면접 5)

70대의 1인가구의 경우, 건강이 더욱 악화되면, 자신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친 50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양원에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좋은 요양원은 아니지만, 스스로의 연금으로 갈 수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계획은 다른 가족으로부터의 돌봄에 대해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만약 내가 정 몸이 안 좋겠다 싶으면 요양병원을 가든 요양원을 가든 그런 선택을 해서 마지막 길을 찾아 가는 거지. 다른 게 있겠어요...: 지금 내가 나오는 것이 일을 안 하면 한 50만원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들어가면 요양병원에서 될 것 같아요. 한 5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좋은 데도 많다고 하더라. 그런 데는 못 가고... 그런 데는 갈 수 있잖아요.(심층면접 6)

여성 1인가구의 경우, 특히 중년이나 비혼여성의 경우, 부모 부양에 대한 강한 압력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남성의 경우는 부모 돌봄에 대한 압력도 적은 편이었지만, 다른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유대감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유대감이 부족한 것은, 그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게 된 원인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이들이 가족으로부터 단절된 더욱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1인가구 지원정책

심층면접에서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청년 1인가구의 경우는 혼자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월세보다는 은행이자가 싼 점을 고려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법이나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의 방법 등 혼자 사는 법에 대한 기본 상식을 교육해 주는 강좌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1인가구가 보통 시작할 때 주변도 보고 하면, 결국에 크게는 직장 잡으면서 타지를 가면서 1인가구가 되고, 결혼하기 전까지. 또는 저 같은 케이스는 별로 없었거든요. 대부분 직장에 의한 타지로 가면서 1인가구가 되는데... 잘 몰라요. 특히 집 관련해서 전혀 몰라요. 저도 그랬고.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16년도부터 5년 중에서 1년 전세를 빼고 월세를 꼬박꼬박 다 냈어요. 그리고 처음에 나오면서 어떻게든 나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전세대출을 언제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될 거란 생각도 안 하고 당장 나오겠다는 생각에 집부터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집의 지원도 없는 상황이라 보증금이니 뭐니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되니까 카드로 소비를 대체하고 현금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소비 패턴도 꼬이고. 저는 원래도 경제적인 관념이 부족한 사람인데 소비 패턴까지 꼬이니까 견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2년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월세니 뭐니 하나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돈 낭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든 거죠. 이것 때문에 꼬인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저는 다 비슷하게 생각해요. 주변에 후배들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해주죠. 1년만 딱 참고 관사 살고, 원천징수 끊어지면, 근로소득 확인되면 그대로 전세대출부터 가라. 공무원은 다 된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는데, 특히 집 쪽에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어떤 일련의 안내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의 몇 년이 저희 나이 때는 되게 중요한데, 이 시기가 너무 의미 없이, 소비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특히 어려운 부분이 날라 갔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심층면접 1)

70대의 노인 1인가구의 경우, 주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자신의 경우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는 딸이 잘 살아서, 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주거 공급에 있어 생활수급자만이 아닌 조금 더 광범위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나는 내 생각인데. 혼자 사는 사람들 조사해서 서민 아파트라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이 있나 하고, 그래서 나는 궁금했죠... 근데 정부에서 하는 거는 첫째가, 1순위가 생활수급자더라고. 이런 사람들 줄을 서있으니까 우리는 감히 기대도 못 하고. 그러니까 생활수급자가 또 자꾸 늘어나나 봐요. 수백 명이 줄 서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얼씬도 못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수급자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집이라도... 그것도 아니고... 딸이 잘 산다고 해서 또 다 제외해버리거든. 딸 잘사는 거 뭘 소용 있어. 못 사는 아들보단 낫겠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따지고 보면 억울해요. 누가 딸한테 가서 손 벌리는 사람 있어요? 남의 집 가서 잘 사는 것만 해도 고맙지. 근데 딸 잘사니까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 우리 딸내미가 한의원에 30년 됐는데. 보너스까지 다 하면 한 1억은 나오나 봐요. 연봉이. 동사무소에서 쳐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딸이 돈 많이 번다고. 사위도 한 5000 벌고, 딸이 한 1억 된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런 소리가 제일 안타깝죠. (심층면접 6)

다. 농촌 1인가구와 도시 여성 1인가구의 심층면접 결과

1) 농촌 1인가구의 삶의 경험 분석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만족도』(이수인 외 2020a) 연구에서 실행된 농촌 1인가구에 대한 심층면접의 결과를 살펴보면, 1인가구 형성 사유의 많은

경우는 낭만적인 결혼의 지연과 이혼과 사별 등의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들의 경우는 결혼 시기가 늦추어진 경우이든 혹은 이혼을 한 경우든,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여성의 경우는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대신 사회적 가족 형태를 미래의 가족 형태로 파악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혼여성들의 경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직장을 찾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서 농촌지역의 보수성으로 인해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주택관리나 일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울 손길이 부족하고, 교통이나 병원 등의 기반시설이 농촌지역에 부족하여, 여성 1인가구가 사는데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의 정도는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한다는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은 일에 시간을 더 보내거나 혹은 술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대답하여, 남성 1인가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가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로 더욱 취약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 1인가구 중에서 귀촌을 통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자신의 미래와 노후의 모습을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사회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가는 새로운 방향을 꿈꾸는 반면, 이혼한 경우는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사는 삶을 기대하기도 하고, 더 나이가 있는 경우에는 요양원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2) 도시 여성 1인가구의 삶의 경험 분석

『전북 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도시지역을 중심으로』(이수인 외 2020b) 연구에서 진행된 도시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심층면접의 결과를 살펴보면, 도시 여성의 경우 1인가구의 형성은 세대에 따른 차이를 보여, 청년세대의 경우 학교나 직장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고, 만족도도 높았지만 스스로의 정체성을 1인가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미래에 다양한 가족형태로 이동할 수 있다고 열려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여성 1인가구의 주거 상황은 대체로 열악하여 인터뷰한 13명 중 자가는 3명이

고, 나머지는 월세에 살고 있어 주거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보안은 여전히 민감하고 불안한 이슈여서, 보안상의 이유로 잦은 이사를 경험하는 경우도 만날 수 있었다.

도시 여성 1인가구의 경제 상황은 이직이나 실직, 질병 혹은 이사 등의 큰 비용이 드는 상황에 대해 스스로 대처해야 하여, 다인가족에 비해 어려움이 있지만, 직업, 종사사의 지위 그리고 원가족을 비롯한 동원 가능한 네트워크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고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망에 참여하는 방식은 SNS에서 노인정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많은 응답자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사회적 관계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즉각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사회적 관계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중심점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특히 도시여성 1인가구의 경우 비혼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사회의 태도가 변화하고, 주변의 비혼 공동체 네트워크와의 활동을 통해 서로의 돌봄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인가구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는 비혼으로 스스로를 정체화한 이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의 지속을 위한 주거 공동체를 정책 요건으로 제안하기도 했고, 노년층의 경우는 경제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많이 언급했다.

3 전라북도 1인가구 특성

가. 전라북도 1인가구의 형성원인 및 특징

1) 1인가구 형성 원인 및 만족도

1인가구 형성이유에 대해서는 이혼/별거/사별로 인하여 1인가구가 되었다는 응답자가 38.0%로 가장 많았고, 직장/학교 때문에 1인가구가 되었다는 응답률이 29.5%의 순으로 나타나서, 가족 관계의 변화와 직장/학교의 원인이 67.5%를 차지하고 있다.

1인가구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률(만족함+매우 만족함)은 42.1%이며 만족하지 않다는 응답률(만족하지 않음+전혀 만족하지 않음)은 27.0%로 1인가구의 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응답자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남성(37.6%)보다 여성(46.3%)의 만족도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의 차이에 더해, 세대에 따른 차이도 확인할 수 있어, 연령대가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30대는 과반이 넘는 61.8%가 1인가구 생활에 만족한 반면, 40~50대는 33.3%, 60대 이상은 29.9%만이 1인가구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지역에 따른 만족도는 농촌(39.1%)보다 도시(45.6%)의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서, 농촌지역의 1인가구 삶의 여건이 부족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2) 1인가구 관심사 및 사회적 관계

1인가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건강이고, 취업/창업과 직장생활의 순으로 보이고, 세대에 따라 조금 다른 분포를 보이는데, 2030세대의 경우는 직장생활을 가장 큰 관심사로 꼽은 반면, 4050세대와 60대 이상은 건강을 중요한 관심사로 보여, 연령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1인가구 응답자 중 13.3%는 고민상담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응답하여, 고립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11.6%)보다 남성(15.1%)이 고민상담 대상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상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아졌고, 지역별로는 농촌 지역(18.7%)이 도시지역(7.2%) 대비 2배가량 고민 상담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1인가구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청됨이 보였다.

3) 1인가구 소득, 주택 및 노후 전망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299만원 구간이 28.9%로 가장 많았고, 100~199만원 18.9%, 300~399만원 18.0%, 400만원 이상 13.1%,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의 월평균 소득이 높아 남성은 200~299만원 구간의 수입이 33.3%로 가장 높은데 비해, 여성은 100~199만원 구간의 수입이 26.9%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소득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인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52.2%로 가장 많고, 전세 19.9%, 월세 19.0%, 사글세 6.6%, 관사 등 무상 2.2% 순으로 응답했다. 성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자가와 무상의 비율이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월세와 사글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볼 수 있었다.

주택은 성별보다는 세대에 따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 20~30대의 경우 월세가 35.5%로 가장 높고, 전세 28.3%, 자가 23.4%, 순으로 나타난 반면, 40~50대는 자가 58.4%, 60대 이상은 자가 81.1%에 이르는 것으로 응답했다.

1인가구의 노후 전망에 대해서는 1인가구 중 53.5%는 자신의 노후가 염려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50.0%)보다 여성(56.7%)이 더 노후를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는 40.2%에 불과하였으나 40~50대는 60.2%, 60대 이상은 61.0%가 노후가 염려된다고 응답하여,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49.3%)보다 농촌(57.3%)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노후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8%p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표3-53〉 세대와 지역별 1인가구 형성 원인과 주요 특성

	세대			지역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도시	농촌
형성요인	직장이나 학교(48.1%) 가족과 사는 것이 불편(17.0%) 순	이혼/별거/사별(40.3%), 직장이나 학교(27.4%) 순	이혼/별거/사별 72.2%로 높은 비중	직장과 학교 41.2%	이혼/별거/사별 45.0%
희망가구·거주형태	배우자와 함께 (44.6%)	지금처럼 혼자(25.5%)와 배우자와 함께(29.6%)가 거의 유사	원가족과 함께(25.6%), 지금처럼 혼자(25.1%)	배우자와 함께(32.8%)	배우자와 함께(32.2%)
1인가족 만족도(5점 만점)	3.68(최고)	3.06	2.84(최저)	3.34	3.10
1인가구 생활의 단점(다중응답)	경제적 불안	외로움	위급시 대처 어려움	위급시 대처 어려움	외로움
6개월간 월평균 소득	200~299만원 39.2%	200~299만원 29.1%, 300~399만원 24.9%로 유사	100만원 미만 68.8%로 많은 비중을 차지	200~299만원 29.0%, 300~399만원 18.8% 순	200~299만원 28.9%, 100~199만원 23.0% 순으로 도시에 비해 소득이 낮음
주택점유형태	보증금 있는 월세 35.5%	자가 58.4%	자가 81.1%	자가 52.1%	자가 52.3%
주택유형	연립/다세대(43.1%), 아파트(23.8%) 순	단독(38.1%)과 아파트(33.1%)가 비중이 유사	단독(58.1%), 아파트(27.2%) 순	아파트(41.3%), 연립/다세대(32.5%) 순	단독(54.9%), 연립/다세대(23.7%) 순
거주지 선택이유	직장거리, 비용저렴 순	직장거리, 본거주지 순	본거주지, 비용저렴 순	직장거리, 본거주지 순	본거주지, 직장거리 순
안전(5점 만점 기준)	3.32(최고)	3.13	3.11(최저)	3.23	3.16 농촌지역이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도시대비 낮음

	세대			지역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도시	농촌
노후에 대한 걱정(5점 만점)	3.11	3.577	3.578(최고)	3.32	3.50 농촌지역이 노후에 대한 걱정이 도시 대비 높은 편
건강(5점 만점 기준)	3.84	3.42	2.89(최저) 세대가 높아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짐	3.6	3.28 농촌지역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사회적 관계	3.62	3.41	3.32 세대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짐	3.58	3.35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여가	3.42	3.36	3.43	3.56	3.25

나. 전라북도 1인가구의 세대별 지역별 특징

1) 1인가구의 세대별 특징

가) 청년 1인가구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직장이나 학교 등의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원가족과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함으로 1인가구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년세대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경제적 불안과 주거문제로, 건강이나 노후에 대한 걱정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로 실감하고 있지 못함이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 1인가구를 위해서는 경제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구직기간 중 한시적 생계 지원, 월세나 주거지원 등이 요청되고 있다. 특별히 청년 여성은 안전 문제가 큰 편으로, 안전에 대한 지원 요구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중장년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의 경우는 이혼이나 사별 등의 가족 내 원인이 40%, 직장의 문제로 1인가구를 선택한 비중이 27.4%로 1인가구 형성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단점으로 외로움, 위급시 대처, 경제적 불안 순으로 답변하여, 가족과의 단절에서 오는 문제에 대한 지원이 요청된다. 사회적 고립감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요청되나, 이에 대한 지원은 중장년으로 한정하기보다는 1인가구 전체에 대한 지원으로 1인가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중장년 1인가구가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데 비해, 이를 성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여성 1인가구는 그러한 안정적인 소득 원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이혼 후 생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이에 대한 중장년 여성 대상 직업훈련 교육을 통한 경제력 확보가 필요하다.

다) 노년 1인가구

노년 1인가구의 형성 원인은 사별과 이혼 등의 원가족과의 분리로 발생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노년 1인가구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위급시 대처 방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독거노인 응급 알람 서비스’와 같은 돌봄 보호망이 요청된다.

노년의 경우 주거는 자가 비율이 높아 월세 등의 비용은 적게 드는 편이지만,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해, 많은 1인가구 노인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노년기의 수입 지속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 1인가구의 영양불균형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층 대상 식생활 교육 제공 및 HMR 사업에 있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로컬푸드와 연계된 밀키트 사업 발굴 가능할 것이다.

2) 1인가구의 지역별 특징: 도시와 농촌의 경험 차이

도시의 1인가구 형성 요인의 40% 정도가 직장과 학교로 인해 발생하는데 비해, 농촌 1인가구의 경우는 이혼이나 사별 등의 원가족과의 관계의 변화로 인한 경우가 45%에 이르고 있다.

형성 원인의 명확한 차이와 유사하게,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 6개월간 평균소득, 안전, 노후에 대한 걱정, 건강,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설문에서 도시보다 농촌의 상황이 부정적으로 나타나서, 도시와는 다른 농촌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통한 대처가 요청된다.

이러한 농촌 1인가구의 특징은 1인가구 인구 구성에서 노인 비중이 높은 것과 연관된다. 농촌 1인가구의 70%이상이 노인 1인가구로, 농촌지역의 노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같이 촘촘하고, 지속적인 사업이 필수적이다.

4

장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방향

Jeonbuk Institute

-
1. 1인가구 지원계획의 비전과 목표
 2. 1인가구 지원 정책방향

제 4 장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방향

1. 1인가구 지원계획의 비전과 목표

가. 1인가구 지원계획 비전과 목표

전라북도 1인가구의 비전은 가족의 다양성을 중시하고, 각자의 형태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의미로 “따로 또 같이 행복한 전북”으로 제안한다. 1인가구의 모습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지역공동체 속에서 연대를 이루어 전북의 삶의 터전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다른 가구형태로의 전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와 경제력에서 안정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1인가구 지원의 목표로는 “세대별·성별·지역별 맞춤형 지원으로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제안한다. 1인가구의 정의에 따라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라고 파악하지만, 1인가구의 광범위한 분포에 따라, 세대, 성별, 거주지역에 따른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맞춤 지원을 통해, 1인가구의 삶의 질의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나. 1인가구 추진 전략

1인가구의 지원 비전과 목표에 따라, 지원 전략은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주거·안전, 경제·일자리, 관계·삶의 질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1인가구의 체계적 지원이 요청되고 이를 위해 1인가구 지원조례 마련과 1인가구 지원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

〈1인가구 주거·안전〉

1인가구 주거 안전 문제는 청년 1인가구는 건강에 대한 문제나 사회적 고립 문

제에서 비교적 걱정이 없거나 현재의 문제로 느끼지 않는 반면에, 고용불안에 따른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 취약하여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특히, 일자리가 불안정한 청년층에게서 주거비용이 높아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 있어 여성의 경우, 안전한 거주환경에 대한 요구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안심 플랫폼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인가구 경제·일자리〉

1인가구의 경제력 강화를 위한 사업은 다양하게 필요하지만, 중장년 세대는 이혼/사별 등으로 인해 1인가구가 되는 비율이 높아, 고립에 따른 고독사의 문제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적, 정서적인 안정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비해, 노년층이나 청년층에 비해 안정된 세대로 간주되어 주목받지 못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발굴은 부족한 것이 사실로, 이러한 상황에 맞는 교육훈련을 통한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요청된다.

청년에게는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취업 1인가구를 위한 공적 연금 수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인가구에 대한 지원만이 아닌 1인가구가 증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1인가구 대상한 전라북도 로컬푸드와 연계한 HMR(Home Meal Replacement) 상품 개발 등의 사업 참여도 가능하다.

〈1인가구 사회적 관계·삶의 질〉

1인가구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이나 우울감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공동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1인가구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도 요청된다.

먹거리를 나누는 공유 냉장고나 먹거리 돌봄 사업을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년 1인가구는 대부분 이혼과 사별로 형성되며, 특히 여성의 경우 거동이 가능한 시기까지 다른 가족이나 시설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려는 경향이 높아져, 노인남성 1인가구 대비 노인 여성 1인가구의 비중이 크게 높은 실정이다. 이들은 위급상황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림 4-1〉 전라북도 1인가구 비전, 목표, 전략

2. 1인가구 지원 정책방향

가.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1)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¹⁾ 확대방안

가족센터는 지역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돌봄, 가족 문화 서비스 등 가족과 관련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지원 관련 사업 내용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자녀, 부모 및 노인세대까지 모든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변화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서울시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팀을 따로 마련하여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 서초구는 최초로 1인가구 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가족의 다양한 모습에 1인가구에 대한 범주를 가족센터 안에 설립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1인가구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정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1인가구의 다양한 정책 요구에 대한 정부의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지원사업에 1인가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에 1인가구 지원센터를 자체 설립하는 것은 예산과 공간의 문제가 있어 14개 시군의 건강가정센터(전주)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13개 시군)에 자리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1인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업방안으로 파악된다.

〈표4-1〉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대상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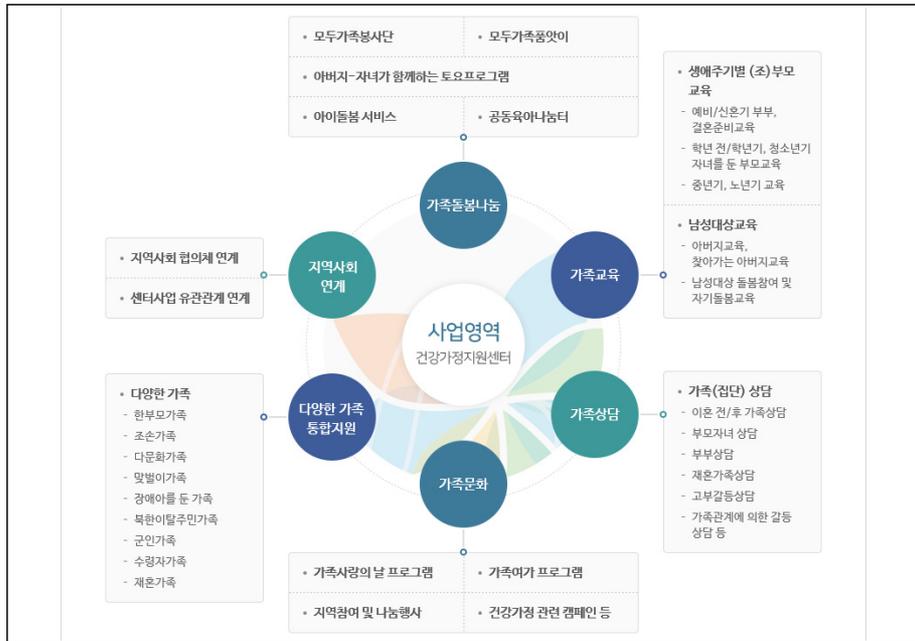
• 가족·부모 교육 및 상담 등 서비스

지역적 여건, 특성, 수요에 따라 교육·상담·프로그램 제공 등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에게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가족의 특성별로 특화된 별도 프로그램도

1) 여성가족부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였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10.13)

- 제공합니다.
- (부모역할지원)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성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생애주기 및 가족특성에 따른 부모 됨의 의미, 올바른 부모역할 등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부부역할지원) 부부의 생애주기에 따른 양성 평등한 부부역할을 지원합니다.
 - (이혼전·후가족지원) 이혼신청가족 및 이혼전·후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관계향상지원) 부부·가족 구성원간 성평등 인식 고취와 관계 향상을 위한 성평등 교육, 인권감수성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 (가족상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 그룹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가족역량강화) 한부모·조손가족 등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 및 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가정양립지원) 직장 내 고충 및 가정 생활정보 등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가족캠프, 가족축제, 가족체험활동 등 가족구성원이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3.do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309C339/contents.do>

〈그림 4-2〉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운영 및 사업영역

이러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가구 사업으로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 극복을 위한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나,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1인가구가 필요로 하는 취업교육, 일자리, 주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플랫폼 등의 역할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자료: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패밀리 서울 <https://familyseoul.or.kr/one>

<그림 4-3>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패밀리 서울 1인가구 홈페이지

2) 1인가구 지원조례

1인가구 지원조례를 통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복지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공동체를 강화하여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이루고자 전국의 많은 광역 기초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이에 전라북도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1인가구 실태조사, 1인가구 사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4-2〉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 대상 및 핵심 사안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
- 지원목적: 1인가구의 복지개선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북도가 1인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
- 기본이념: 1인가구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
- 기본원칙: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가구가 주도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기본계획: 전라북도 1인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
 1. 1인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인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 실태조사:
 1.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
 2.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표4-3〉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예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택”이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공동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유 주방”이란 시장이 선정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료: 광주광역시 1인가구 지원조례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14352&gubun=ELIS>)

3) 1인가구 맞춤형 사업 발굴

전라북도의 1인가구는 지역, 연령, 성별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1인가구 사업은 전라북도 해당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1인가구 구성과 그에 따른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서 거주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시 내부에 정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와 일자리에 관련한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1인가구의 경우 비혼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경우와 결혼 의지가 있으나 주거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결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미래 설계에 따른 지원에 있어서 양측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주거 제공에 있어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지속적인 1인가구 위한 지원사업이 병행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장년층의 1인가구는 이혼이나 사별을 통해 1인가구가 된 경우는 결혼한 경험이 없는 경우와는 달리, 이혼이나 사별 과정에서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등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대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득이 긴급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직업교육 등의 사업과 1인가구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등

이 요청된다. 또한 중장년층은 청년실업이나 청년이슈 등이 부각되면서 지원을 받는 청년층도 아니고, 다양한 복지 제도를 제공받는 노년층도 아니어서, 지원사업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대부분 중장년층 1인가구는 노후 대비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고 있어 이런 지원사업 발굴 역시 필요하다.

노년층 1인가구의 경우, 인구 구성상 여성 노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속에서 손자녀 돌봄을 하고 있거나 자식들과의 관계가 빈번한데 비하여, 남성 1인가구는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관계 속에 통합되어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세대의 차이에 더하여,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안전에 대한 요청이 많고, 거주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가장 큰 고려사항이 되고 있음을 설문과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방안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고, 또한 소소한 고장이나 수리와 같은 생활의 불편에 대한 지식교육이나 지원 네트워크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1인가구는 세대별, 성별, 지역별, 경제적 지위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지니고 있어, 1인가구 전체를 관통하는 정책 사업에 대한 기대보다는 맞춤형 사업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발굴 가능 사업 목록은 아래 <표4-6> 세대, 성, 지역에 따른 장단기 1인가구 지원사업 목록에 정리하였다.

<표4-4> 세대, 성, 지역에 따른 장단기 1인가구 지원사업 목록

구분		단기	장기
지원체계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지원조례 제정 • 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 지원센터 기능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사업 설계 • 다인가구 중심의 정책에서 다양한 가구 포용의 정책 방향 변화
안전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를 위한 안심 플랫폼 시범 사업** • 여성 1인가구 공공안전 서비스 강화** • 여성 1인가구 출입안전 서비스** • 여성1인가구 안심택배 서비스** 	
	노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 응급 알림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인프라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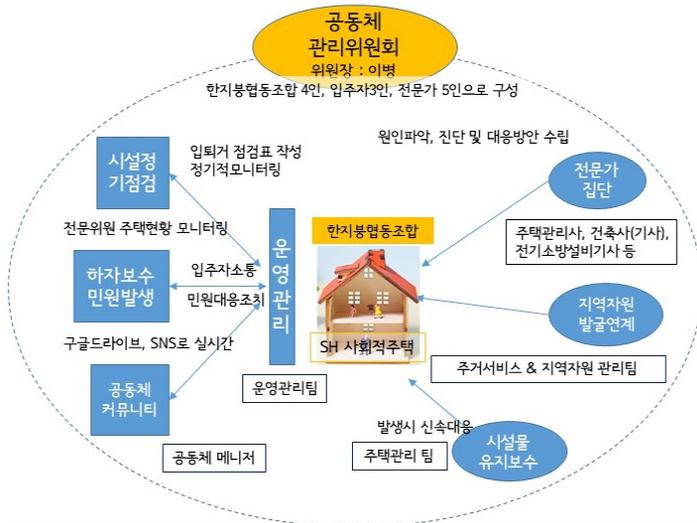
구분	단기	장기	
주거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1인가구 주거 바우처 1인가구 생활력 높이기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집활용 사회주택 공급 사업 저소득 1인가구 에너지 바우처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가구 청년 월세지원 1인가구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가구 공동체 주택 공급
	노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개조 지원사업 	
일자리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층별, 대상별, 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 중 한시적 생계비지원 	
	중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을 위한 직업 훈련교육** 	
	노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 확대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수급조건 완화 	
경제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가구 문화 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혼족 관광객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1인가구 대상 HRM시장 구축 1인가구 대상 식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 지원사업 강화 및 반려동물 시장 대응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삶의 질·건강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 Solo Card 사업 노후준비 교육 강화: 공적연금 수급 확대를 위한 교육 사회적 고립감 극복: 찾아가는 심리상담 지원 1인가구 자살예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 1인가구 먹거리 돌봄 서비스 1인가구 건강 바우처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1인가구 정신건강 돌봄 	
	노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가구 식생활 개선 교육 전북형 독거노인건강복지타운
사회적 관계·여가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인가구 연계 커뮤니티 1인가구 공익활동 지원 기회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1인가구 공유 주방, 공유냉장고 	
	중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년 1인가구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

* 농촌 관련 사업 / ** 여성 관련 사업

나. 1인가구 주거와 안전

1) 공동체 주택사업

사회적 주택사업은 SH서울주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고, 운영기관은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주변 시세대비 50% 정도로 저렴하고,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사업이다(사)나눔과미래 따뜻한사회주택기금. 2021). 이러한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주택 사업체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동체 관리위원회는 임대운영과 관리를 수행하여 공동체 내의 이견을 조율하고, 공동체 매니저 등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을 실질적인 이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자료: 한지붕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xn-9r3bn6tz4i.kr/SocialHousing>, 접속일 2021. 2. 22

〈그림 4-4〉 사회적 경제주체(한지붕협동조합)의 운영 형태

또한, 이러한 공동체 주택은 개인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지만, 1층에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구상되어 있다.



자료: (사) 나눔과 미래 따뜻한 사회주택기금, 2021. “요즘 원룸, 이렇게 변했다? 원룸의 변신은 무죄”
<https://interior.realestate.daum.net/asp/story/View.do?mngldx=1666>

〈그림 4-5〉 한지붕 협동조합 의정부 커뮤니티 공간

이와 같은 공동체 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전북도에서 지원하여, 청년 1인가구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공동체 속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한다.

또한, 현재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고, 그것을 다시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는 방식이지만, 세제혜택 등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개조하여 공동 주택 모델이 적극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유인제도 시행이 요청된다.

〈표4-5〉 1인가구 공동체 주택 공급 사업안

1인가구 공동체 주택 공급

□ 필요성

- 1인가구는 독립된 생활공간 선호
 - 향후에도 혼자 거주하는 것을 희망하지만 주거 공동체 거주도 희망
-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 대응 필요
 - 감염병 팬데믹에 따른 1인가구의 장기간 사회적 접촉의 어려움 해소
- 사회적으로 고립의 가능성이 큰 1인가구에 주거의 공간과 함께 상호간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 제공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라북도 14개 시군
- 사업비 : 500억원(도비 200, 시군비 200, 기타 100)
- 사업내용 : 1인가구 수요맞춤형 공동체주택 건립 및 운영관리
- 사업주체 :
 - 전북개발공사 : 공동체주택 건축 및 운영관리
 - 전북도 및 시군 : 공동주택건축비용 제공

□ 추진계획

- 1인가구 대상 공동체주택 입주 수요 조사
- 공동체주택 건축 대상 부지 선정 및 매입
- 공동체주택 건축 및 입주 대상자 선정

□ 쟁점사항 및 대책

- 지역에 따라 주택규모와 공간구조에 대한 수요 차이 발생

2) 청년 1인가구 주거지원

청년 1인가구는 진학, 취업, 미혼, 만혼의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나, 1인가구의 소득수준이 낮고, 특히 학업과 취업준비 상황에 있는 20대 이하 청년 1인가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체가구의 자가율이 56.8%인 반면, 1인가구는 34.0%에 그치고, 생계급여 수

급자기구 중 1인가구가 77%인 점을 볼 때도 이러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청년 1인가구의 독립가구 유지와 다음 생애단계 준비 지원이 필요하다. 전북 청년 1인가구는 다음 거주형태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를 가장 희망하고 있어, 1인가구 거주 자금에 대한 안정적 지원은 전북 청년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미래를 꿈꿀 기회를 제공해준다.

〈1인가구 청년 월세지원〉

이에 따라 전북지역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월세 주거형태를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주거비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고,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집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10개월간 매달 20만원의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19102284>).

〈표4-6〉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
○ 지원 대상 : 만 19~39세 이하의 중위소득 120% (약 204만원,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월급 약 212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 이하 청년 1인 가구 5000명(지원 제외자 :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 주택 소유자 등 유사 청년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기존 주거 정책 사업 참여자 등)
○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 총 200만원 지원), 주택·비주택 종류 구분 없이 생애 1회 지원
○ 지원 방법 : ‘서울청년포털’ 내 신청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가능(지원 대상자 월세 선납입 시, 납입 증빙 후 계좌로 지원금 입금)

자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19102284>

전라북도에서는 매년 100가구를 선정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사업 성과에 따라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청년 1인가구의 소득 수준, 주택 소유여부 등에 따른 구체적인 선정 대상 및 선정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 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

또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낮은 보증금과 높은 월세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도록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대출이 어려운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도 대출과 이자를 지원해줌으로써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어 청년들의 실거주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0년 1월 기준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연 1% 내외의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주거비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표4-7〉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 지원 대상	: 만 19~39세 이하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 청년 및 부모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비근로 청년 1000명(청년 기혼자는 부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전·월세 주택, 보증금 대출 금액의 연 2% 이차보전
○ 대출 내용	: 최대 7000만원 대출(임차보증금의 90%까지), 계약 기간에 따른 기간 설정 (6개월~2년, 만료 후 연장 가능, 최장 8년)
○ 지원 방법	: 해당 사업 신청 페이지(서울시 청년주거포털 housing.seoul.kr)

자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19102284>

1인가구 대상 인터뷰에서도, 처음 독립하는 청년들의 경우, 월세의 부담이 커서 월급의 많은 부분이 주거비에 들어가 다른 부분의 소비를 줄였다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전세자금 대출 등에 대한 지식이 없어 처음 독립하고 몇 년간 어려움을 경험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어, 이러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청년의 독립을 통해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라북도는 2020년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1,166호)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 무이자(23호)를 지원하였다.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는 청년·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하고, 임대보증금 지원을 20호 계획 중에 있다.

〈표4-8〉 전라북도 청년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지원

- 지원 목표 : 도내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취업에 따른 주거불안 해소
저소득층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 대상 및 내용 : 임대주택 1,00호 공급, 금융지원 20호 지원
-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 1,00호 공급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 등에게 20호 금융지원
- 담당 부서 :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자료: 2021년 전라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3) 빈집활용 사회주택 공급 사업

전라북도는 인구 감소와 선호 주거지의 변화 등에 따른 빈집의 발생이 많아서, 빈집은 91,138호(2019 기준)에 이르고, 이는 전북 전체 주택의 12.6% 수준이다. 빈집은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빈집은 붕괴 및 화재 발생, 우범화 등으로 인해, 개인의 자산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빈집 자원, 사회적 경제 조직의 빈집 리모델링 주거 지원 활동이 결합하면 1인가구를 대상으로 빈집 지원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주로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빈집사업이 일자리가 있는 도시 지역에서 확대된다면, 1인가구 주거안정과 도시 활성화라는 이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다. 2020년에는 쉼어하우스 2동, 주차장 등 주민공간 29동, 철거 40동의 성과를 보였으며, 2021년에는 단순 철거를 지양하고, 다양한 주민공간 재창출을 유도하는 다양성 확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1인가구 맞춤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빈집활용 1인가구 맞춤형 사회주택 공급

□ 필요성

- 빈집의 발생으로 주거환경 악화와 사회적 자원 낭비 초래
 - 전북은 빈집은 91,138호(2019)로서 전체 주택의 12.6%에 달함
 - 붕괴 및 화재발생과 우범공간화 등으로 빈집 주변의 주거환경 악화
 - 주택수요 부족 상황에서 사회적·물리적 자원 방치에 대한 비판 제기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량 활용한 주거공간 확대 필요
 - 주택시장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주거문제 해결의 방안으로서 사회적 경제 주체를 활용한 사회주택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을 통한 주거공간 공급 방안 적용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북 내 활용 가능한 빈집
- 사업내용 :
 - 사회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여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1인가구에 저렴하게 공급
 - 주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과 달리 1인가구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에서 수요맞춤형 빈집 활용

□ 추진계획

- 전북도내 활용 가능한 빈집 조사 및 선정
- 사회주택 지원 조례 제정 및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와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공동으로 빈집 리모델링 후 사회주택으로 공급

□ 쟁점사항 및 대책

-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및 체계 마련
- ▶ 사회주택 지원 조례 우선 제정,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

4) 1인가구를 위한 스마트 안심 플랫폼 시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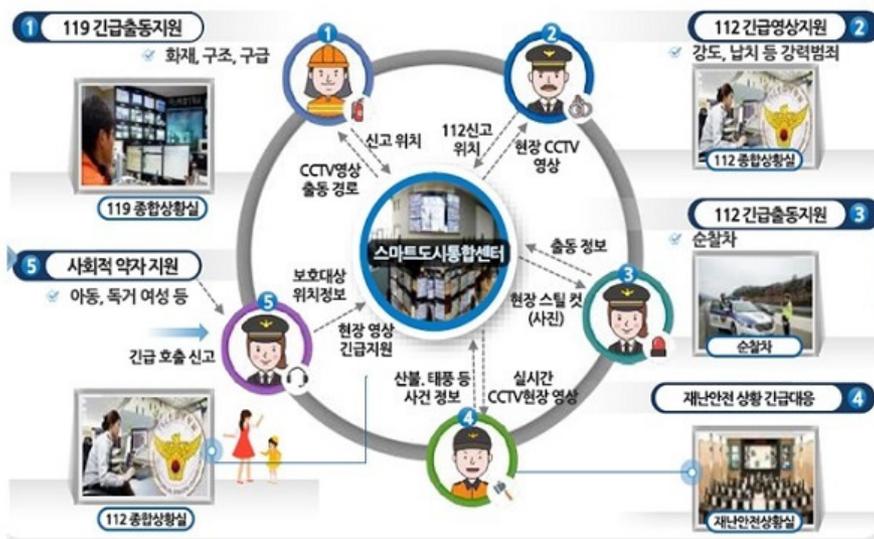
다변화되는 4차산업 혁신환경의 발전에 힘입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기술·감성 융합형 스마트시티 사업이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도시운영, 교통, 에너지, 환경, ICT솔루션 등의 다양한 사업 중, 스마트 가로 등, 지능형 CCTV와 같은 세종시의 사업이나, 경기도 고양시의 시민안전센터와 같이 국방부, 경찰청 등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지역 내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여,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민들의 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지역 인프라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경찰서나 소방서 등의 개별적 방법, 방재 활동을 융복합 혁신기술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도시안전망 관리를 확대하고자 한다. 재난 관리부서의 실시간 CCTV 영상 제공 및 위치정보 등으로 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즉각적 피해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다.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및 독거노인 보호 서비스 등의 사업 확장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남부 인터넷신문. 2021.2.9.).

전라북도는 부안군이 2020년 7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과 경찰청, 소방서, 군부대, 스마트 도시협회 등 연계기관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뉴스1 2021. 3. 25).

1인가구 맞춤형사업으로는 1인가구가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대학가 주변이나 원룸촌을 중심으로 1인가구 안심플랫폼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안전망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라북도의 디지털 뉴딜 사업과 연결되어 추진 될 수 있다.



자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모델(사진=경북도 제공),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79&aid=0003322168>

〈그림 4-6〉 경상북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모델

다. 1인가구 소득과 삶의 질 향상

1) 맞춤형 교육 훈련 제공

1인가구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원가족의 지원에서 일정정도 독립하여, 스스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년의 경우, 학업을 마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기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중장년세대 중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1인가구가 된 경력단절 여성들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노인 1인가구 역시 1인가구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건강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세대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훈련 제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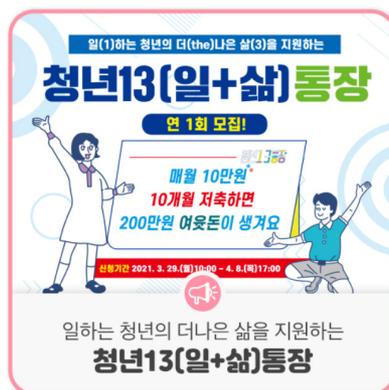
물론, 청년세대를 위한 취업역량 제고 및 분야별 창업 지원 교육이 다양한 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고(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는 새일센터를 비롯하여 유관기관 및 대학 등에서 제공하는 취·창업 교

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노인 일자리의 경우는 노인일자리 사업(시니어 인턴십)을 통한 고령자의 신규 및 계속 채용을 지원하는 제도 등이 수행되고 있다.

1인가구를 위한 교육 훈련에 있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이러한 다양한 일자리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1인가구 지원센터의 정보 수집과 연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 저축을 할 경우, 일정 비율로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급하여 자산형성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익산시 “청년자산형성통장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며 해당 사업은 “3개월 이상 근로중인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익산시민(중위소득 120%이하)”을 대상으로 3개월간 매일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만기시 2배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이 주거, 창업 등의 자립·자활을 돕는 사업으로, 소득에 비례하여 평균 30~60만원까지 추가적립을 하거나, 동일 금액을 매칭하거나, 소득에 비례하여 적립금을 적립해 주는 등의 다양한 방안과 다양한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라북도에서도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1인가구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자산형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광주광역시 블로그 <https://blog.naver.com/dodreamgj/222278259663>

〈그림 4-7〉 광주광역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예

3) 미취업 1인가구 공적연금 수급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제도개선

1인가구는 가족의 경제적 보호망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특히 노후에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더욱 확대된다. 여성은 평균 수명은 더욱 길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1인가구 노인의 빈곤 문제에 대한 대비가 요청된다.

이러한 대비책의 한 방면으로 공적연금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을 보면, 2015년 46.0%에서 2019년 53.3%로 7.3%p 증가하여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성과 비교해보면 남성은 2019년 97.5%로 성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김경희 외 2020: 18).

〈표4-10〉 공적연금 수급률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65세 이상 인구	전체	6,775,101	6,995,652	7,356,106	7,650,408	8,026,915	
	여성	3,924,698	4,038,868	4,225,181	4,377,760	4,569,226	
	남성	2,850,403	2,956,784	3,130,925	3,272,648	3,457,689	
연금	국민연금	전체	4,051,372	4,384,746	4,716,226	4,794,376	5,190,010
		여성	1,676,469	1,826,146	1,985,389	2,051,712	2,256,387
		남성	2,374,903	2,558,600	2,730,837	2,742,664	2,933,623
	사학연금	전체	59,059	63,782	68,471	75,050	82,075
		여성	15,479	17,142	18,798	21,023	23,480
		남성	43,580	46,639	49,673	54,027	58,595
	공무원연금	전체	425,439	452,281	479,394	505,797	535,179
		여성	111,885	121,562	131,261	142,181	155,212
		남성	313,554	330,719	348,133	363,616	379,967
공적연금 전체	전체	4,535,870	4,900,809	5,264,091	5,375,223	5,807,264	
	여성	1,803,833	1,964,850	2,135,448	2,214,916	2,435,079	
	남성	2,732,037	2,935,958	3,128,643	3,160,307	3,372,185	
공적연금 수급률	전체	66.9	70.1	71.6	70.3	72.3	
	여성	46.0	48.6	50.5	50.6	53.3	
	남성	95.8	99.3	99.9	96.6	97.5	
	성비	48.0	49.0	50.6	52.4	54.6	

자료: 김경희 외. 2020.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118쪽

이에, 여성을 비롯한 미취업 1인가구가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가지고 있고, 남성과 다른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2007년 2차 개혁에서 국민연금이 도입한 출산 크레딧 제도나 이혼 시 분할연금 등의 제도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거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권문영 2018).

따라서 여전히 가족 중심적인 지원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요청되고, 또한 여성을 비롯한 미취업 1인가구가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시 종로구에서 1인가구 대상 연금 특강을 통해, 평생월급으로의 연금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1인가구의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특별시 | 서울연금 | 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과 함께하는 연금특강

평생월급 프로젝트

국민연금제도 & 기초연금 이해하기

노후준비 & 기초연금

4.16. 금 19:30

서울생활권 1인가구 및 예비1인가구 15명

참여인원이 많아 강의 당일 질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시 사전질문을 함께 보내주세요 :)

상세내용	참여&접수
- 노후준비의 필요성 & 필요노후 준비 자금	- 3/22 (월) 접수시작
- 국민연금 & 기초연금 제도 알아보기	- 신규참여자 우선접수
- 내연금 사이트를 통한 노후준비	- 온라인 중
- 개인연금 알아보기	

문의: 02-764-3520

자료: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패밀리 서울 <https://familyseoul.or.kr/node/10778>

〈그림 4-8〉 서울시 종로구 1인가구 대상 연금 특강

4) 1인가구 대상 가정간편식(HMR)상품 개발

코로나19는 개인들의 삶의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중 하나가 외식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집에서 식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시장이 확대되고, 제품군의 다양화와 차별화도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으로 가정간편식(HMR)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인가구를 위한 소포장 제품이나 혼밥·혼술족을 위한 도시락과 안주 등에 대한 수요 역시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건강식이나 개인의 질병에 맞춘 환자식, 노인의 소화와 저작기능을 고려한 노인식 등과 같은 맞춤형 상품 시장 역시 확대되는 추세이다(서환석·전희진 2021).

현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도입·확산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지역의 혼자 거주하는 노인·장애인 등의 독립생활을 위한 식사 배달 등의 재가 서비스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독거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정간편식 등의 개발이 전북의 로컬푸드와 연계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가정간편식의 확대 개발 사업은 단순히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1인가구 확대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역 식품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 제공의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전북지역의 로컬푸드를 이용한 상품개발, 도내 스타트업 식품기업 지원, 혁신 유통 플랫폼 구축, 판로개척 등의 협업이 요청된다(서환석·전희진 2021).

5) 전북 Solo Card: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는 전주사랑상품권 체크카드인 돼지카드를 도입하여, 전주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전북의 1인가구에게도 전북의 지역 상품권 체크카드를 도입하고, 특히 1인가구가 많이 사용하는 배달앱, 식당, 문화생활 등의 1인가구 맞춤 소비 영역에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북의 지역 은행과 협업하여, 1인가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관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지역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개발 중인 전북형 공공배달앱 등을 통해 결제할 경우, 전북 생활 포인트 등으로 전북 지역 생활앱 이용, 지방세 납부, 지역 사회 기부 등에 사용하는 방안과 연계할 수 있다면(나정호 2021), 지역경제를 살리고, 1인가구 소비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전주시 블로그 https://blog.naver.com/jeonju_city/222221408196

<그림 4-9> 전주사랑상품권

라. 1인가구 사회적 관계와 삶의 질

1) 사회적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인가구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에 대한 만족도는 일정부분 개인이 얼마나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도시 여성 1인가구 연구에서 보였던 비혼 공동체의 연결망이 제공하는 정보, 돌봄, 그리고 경제적 지원 등은 개인들이 1인가구로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1인가구에게 사회적 공동체로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육성 사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생활체육 동호회를 비롯하여 독서모임, 영화읽기, 미술모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게 나타날 수 있다.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모임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대여와 활동비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모임의 탄생이라는 사업을 통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청년교류공간 무료 대여, 팀 간 네트워킹 지원, 홍보 및 모임 가이드 제공, 수료증 제공 등의 혜택을 주어서 다양한 모임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기간 2020.05 ~2020.07	신청기간 2020.04.13.(월) ~2020.04.27.(월) ※ 서류발표 : 2020.04.29.(화)	면접기간 2020.05.06.(수) ~2020.05.07.(목) ※ 최종발표 : 2020.05.11.(일)	지원대상 청년 대상 모임 운영 혹은 계획 중인 개인/팀(만19~34세)	지원규모 팀별 100만원 지원
------------------------------------	---	---	---	----------------------------

자료: 청년교류공간 모임의 탄생 <https://miniintern.com/event/270>

〈그림 4-10〉 청년교류공간 모임의 탄생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체육 진흥 조례 등을 통해 생활체육 등의 동호회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표4-11〉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시행 2020. 7. 10.]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262호, 2020. 7. 10., 일부개정]

경기도 고양시(체육정책과), 031-8075-2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에 따라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 시키려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3. "고양시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고양시지회를 말한다. 〈신설 2020. 7. 10.〉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려는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의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고양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제4조(사업의 종류)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1. 범시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지원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를 통한 스포츠 산업육성
5. 생활체육 국제교류를 통한 민간외교의 육성과 지원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료: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515097&gubun=ELIS>

2)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여성가족부는 제 3차 건강가족기본계획(2016~2020)에서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전통적인 결혼관계 외에 다양한 가족 유형이 출현하는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특히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1인가구가 된 경우, 그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구의 한 형태로 인정받기보다는 과도기적인 형태 등으로 간주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성남시의 경우, 1인가구 포럼을 개최하는 등 1인가구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하여, 1인가구의 인식개선을 위한 포럼, 1인가구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한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표4-12〉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1인가구 포럼 개최

1인가구 포럼 개최: 성남시 1인 가구 지원사업

따로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업내용

- 1인가구 참여 및 관계 전문가 정책제안 발표 후 시민토론
- 1인가구 사회적 편견 해소 및 공감대 형성, 정책 방향 모색

◎ 사업기간 : 2021년 하반기

◎ 사업대상 : 1인가구 및 성남시민 누구나

◎ 문의처 : 성남시 복지정책과 ☎ 031-729-8513

자료: 성남 복지넷 성남시 1인가구 지원사업 <http://www.snbokji.net/5175>

3) 전복형 독거노인건강복지타운 조성

농촌 지역의 고령자들은 특히 거주 환경이 취약하고, 실제 식사 등 일상생활 영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촌지역 1인가구 심층면접의 경우에서도 나타나듯이(이수인 외 2019), 많은 독거노인들이 매일 경로당에 모이고, 모이지 못할 경우 이장의 안부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받는 연결망에 기대

어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사업은 그 수위에 있어 낮시간을 같이 보내는 방식부터 이후 공동생활공간으로 아예 이동하는 방안까지 존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연결망의 촘촘한 지원을 목표로 하여 진행될 수 있다.

〈표4-13〉 고령자 1인가구 공동생활 공간 조성 사업

전북형 독거노인건강복지타운조성

□ 필요성

- 농촌 고령자 1인가구는 자가율은 높지만 거주환경 취약
 - 농촌지역에는 주택형태와 공간구조 측면에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혼자 생활하기에 불편한 주택이 많음
- 고령자 홀로 거주에 따른 사회적 고립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
 - 고령의 독거노인의 우울증 발병과 고독사 발생 등의 사회문제 대응 필요
- 고령 1인가구의 식사 등 일상생활 영위와 사회적 접촉 증대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군지역 고령자 1인가구
- 사업비 : 시범사업 후 수요조사로 사업량 확인
- 사업내용 : 1인가구 고령자의 공동생활 공간 조성
 - 동절기 독거노인들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경로당 지원사업* 확대
 - * 그룹홈(김제), 동절기 공동생활시설(완주), 독거노인행복방(진안)

□ 추진계획

- 기존 독거노인 공동생활 공간 실태 점검 및 개선사항 파악
- 각 군지역에 한 곳씩 시범사업으로 실시 후 모니터링 평가
- 각 마을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생활 공간 조성
- 돌보미 또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고령자 생활 지원

□ 쟁점사항 및 대책

- 독거노인 공동생활 공간 입주 후 기존 주택 처리 및 관리 문제와 경로당 활용시 다른 이용자와의 공간이용 독점에 대한 마찰 우려

- ▶ 자신의 기존 주택에 대한 애착이 강하므로 본인 주택을 떠나 생활하는 것을 꺼려하는 노인들의 공동생활 유도 및 경로당 활용 또는 별도의 공간 마련 등 대안 모색

4) 사회적 고립감 극복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1인가구의 삶에 있어서 빈곤, 세대갈등, 입시·취업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정신건강 위협요소가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경정신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관련 기관 이용은 저조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카톡이나 이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주민센터 등을 통한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서초 1인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서리플 카운슬러’라는 사업을 통해, 1인가구의 심리·정서 상담 및 전문 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카운슬링 사업을 전라북도에도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4-14〉 1인가구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서리플 카운슬러

서리플 카운슬러: 1인가구의 심리·정서상담 및 전문상담 지원

- 대상 : 서초구 거주 1인가구
- 상담종류
 - 심리상담
 - 개인상담 : 접수상담(Intake)을 통한 전문 심리상담가 연계
 - 집단상담 : 집단별 특성을 중심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 ※ 필요시 심리검사 (MBTI, Enneagram, DISC, MMPI 2, SCT 등 실시 - 자부담금 있음)
 - 분야별 전문상담 : 심리상담 이용자 또는 전문상담이 필요시 접수 후 분야별(법률, 노무 등) 전문상담 연계 지원
- 신청방법
 - 접수상담 후 전문상담가 연계 → 주 1회, 총 6회 상담진행

비용

심리상담

- 개인상담 : 연 6회까지 무료(7회 이상 시 회당 20,000원, 수급자차상위 연 15회 무료)
- 집단상담 : 20,000원

분야별 전문상담 : 연 2회 무료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자료: 서초1인가구 지원센터 서리플 카운슬러

https://www.seochosingle.net/bbs/content.php?co_id=s2_counselor

5) 1인가구 식생활 개선 사업

1인가구는 2인 이상 가구 대비,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경향이 강하여, 식생활에 매우 취약하고, 식품 정보와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건강한 식품 제공 등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혼자 사는 중장년 이상의 남성 1인가구의 경우 요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해, 충분한 영양 섭취를 장려하고 이들의 식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요리교실 제공이나 신선한 밀키트 등을 제공하여 이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업명 : 1인 가구 대상 식생활 개선

필요성

-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경향이 강한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식생활에 매우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식품 정보와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이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 혼자 사는 가구의 경우 요리를 하지 않고 배달이나 간단하게 사먹는 경향이 강한데, 충분한 영양 섭취를 장려하고 이들의 식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 추진 필요

〈유사 사례〉 보령시

- 남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요리 교실, 건강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독거노인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
-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요리 교실에서 만든 요리를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나눔 활동에 활용

□ 사업 내용

- 1인 가구 맞춤형 식생활 교육
 - 1인 가구가 집중된 지역이나 직장 등에서 식생활 교육, 기본 영양 교육 제공
 - 식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포스터, 팸플릿 등 제작
- 1인가구 요리 교육
 - 요리에 친숙하지 않는 남성 1인 가구 대상으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요리 교육
 - 간편 밀키트 공동 구매 지원
- 1인 가구 요리 영양 관리 프로그램 지원
- 전북형 공공앱 연계 1인가구 반찬 및 밀키트 배달 서비스

□ 추진체계

- 추진 주체 : 전라북도
- 참여 기관 : 전라북도 14개 시군

□ 기대효과

- 1인 가구의 식생활 환경 개선

부록

-
1.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2. 1인가구에 대한 연구보고서 검토

부록.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및 보고서 검토²⁾

1.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1인가구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을 검토하는 연구들은 경제적 문제(취업, 소득, 경제활동, 자산), 주거문제, 안전문제, 사회적 관계(+공동체)와 건강 등을 주요 주제로 삼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선행연구들 중 1인가구를 전국적 단위에서 다루는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1인가구의 공간분포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신상영 2010; 이희연 외 2011)이다. 이 경우의 연구들은 1인가구의 거주 지역 분포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적으로 유사한 공간에 거주하는 이들을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게 되는 결과를 빚는다. 둘째, 비혼 청년이나 사별 노인 등과 같이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는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경제적 어려움, 주거환경, 신체적·정신적 건강, 여가, 사회적 고립 등 연구대상에 맞추어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경우들(김기태·박봉길 2000; 심영 2002; 최경원 외 2012; 남기민·정은경 2011; 석재은 2007; 이지숙 2009)이 많다. 셋째, 1인가구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비교적 1인가구의 다양한 양상들을 복합적으로 포착하거나 세대별 차이의 양상들을 다루는 연구들(이명진 외 2014; 이여봉 2017)이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1인가구의 주거 및 안전, 일자리나 소득 등 경제상황, 사회관계망, 여가 및 건강, 노후준비를 포함해 미래 불안이나 현재의 삶의 만족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1인가구 전체를 살펴보는 지역연구원의 연구보고서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주거 및 안전, 소득 및 취업, 사회관계망, 여가 및 건강, 노후준비 등 현재의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1인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는 전북연구원의 1인가구 관련 연구 사업 중, 이수연 외(2020b). 『전북 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도시지역을 중심으로』에 실린 내용이다. 선행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부분을 부록으로 붙인다.

한편, 특정한 지역적 범주내 거주하는 1인가구들을 다루는 지역의 1인가구들에 대한 연구들은 지역에 특유한 특성이 배태될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는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전국적 단위의 1인가구와 유사한 경향이지만 2017년 기준, 남성 1인가구는 장년층 구성비(37.5%)가 가장 많고 여성은 70세 이상의 고령인구층이 40.6%로서 가장 많아 전국단위 특성(청년층이 40.5%로 최다, 70세 이상 여성노인이 27.9%로 최다)과는 차이를 보인다. 전라북도는 2000년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가구가 17.4%, 2010년 26.5%, 2018년 31.7%로 전국수준(15.55, 23.9%, 29.3%)에 비해 높은 상황이며, 1인가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66.17%, 2018년 52.9%로 2000년 대비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전국기준(2000년 57.51%, 2018년 50.3%)에 비해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 여성노인의 비율은 전국 수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1인가구의 경우 다인가구에 비해 사회적 관계나 경제적 상황, 건강 등에서 다인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김정은 외 2018),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에 비해서 범죄 취약성이 크고, 높은 경력단절 가능성과 낮은 임금 등으로 남성에 비해 경제적 취약성이 더욱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종선 2019; 장재원·이지원, 2019; 박건·김연재 2016; 김선주·김행중 2019). 이런 이유로 여성 1인가구에 대해 좀 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 여성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 및 안전, 소득이나 취업 등 경제상태, 사회관계망, 여가나 건강,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김상훈·한혜련 2014). 이를 위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 가운데 1인가구의 성별 특성을 다루고 있거나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앞에서 언급한 일부 주제를 다루거나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의 주제별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주거 및 안전을 다루는 연구들: 특정한 지역(서울시, 인천시, 경상북도 등)이나 특정한 집단(비혼 집단, 서울시 20~30대 여성 등)의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문제를 검토하는 연구들은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주택 내에서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어서(김진영 2013), 남성들보다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며 월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박미선·조윤지 2020; 임미화 2020). 그러나 50대와 60대 여성 1인가구는 면적당 임대료에서 남성보다 낮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는 고연령 여성 1인가구의 주거상황이 매우 열악할 수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임미화 2020). 여성들이 특히 주거의 안전성에 신경 쓰는 것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예방 심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부 선행연구들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여성 주거욕구나 주거환경을 다루고 있다(김상훈·한혜련 2014; 조규원·김태형 2019; 한민경 2019; 장진희 2018).

둘째, 소득 및 취업 등 경제 상태를 다루는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1인가구를 다루는 다수의 연구들에서 남성 1인가구에 비해 여성 1인가구의 경제상태가 열악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30대~40대 1인가구의 경제 상태를 보는 2002년의 한 연구(심영 2002)는 150만원 미만 소득이 남성 32.1%에 비해 여성이 48.2%로서 여성 1인가구의 소득이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여성 1인가구는 56.7%인데 비해, 남성 1인가구는 29.5%로 나타나 여성빈곤층이 남성의 약 2배 정도에 달하고(김정은 외 2018),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그 차이가 극대화되고 있다(이명진 외 2014).

청년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유지영 2019)는 소득, 근로, 주거, 건강 가운데 주거결핍률이 가장 높고 이어서 근로결핍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자 혹은 임시, 일용직, 자활근로, 공공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여성청년 비율이 49.6%로 절반 가까운 1인가구 여성청년들이 근로결핍 상태에 있다. 근로는 개인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 되므로 고용불안정은 장기적인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시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노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최성현 2020)는 취업 여성 노인 1인가구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보고했는데 이는 취업으로 인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일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으로 보인다(최성현·허준수 2019).

셋째,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1인가구가 다인가구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측면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 관계 부분이다. 다수의 사회조사 결과는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사회적 고립이나 소외 경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정은 외 2018; 송영신 2015; 이명진 외 2014).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성별 차이가 드러나는데 10대~40대까지의 1인가구에 대한 연구는 가족·친척과의 교제나 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드러나 남성에 비해 가족관계나 사회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숙·이윤석 2014). 그러나 30대~50대의 비혼 여성가구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사회관계망이 좁고 교류가 단절되어 있으며, 가족의 지지체계도 미약한 상태로서 불안정한 사회관계에 놓여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김혜정 2015).

여성 노인 1인가구에 대한 연구는 이들이 동거하는 가족이 없이 홀로 생활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될 가능성이 높는데 여성들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들과로부터의 지지가 심리적 안정감에 남성들보다 더 많은 영향이 있으므로 이들의 사회적 고립이나 사회적 지지의 부재는 그만큼 치명적일 수가 있다고 보고한다(송영신, 2015). 특히 여성 노인들의 가족관계는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임민경·고영미 2018; 염지혜·전미애 2020)이다.

넷째, 여가나 건강, 삶의 만족도에 주목한 연구들을 볼 수 있다. 2007년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이성림·김기옥 2009)는 전체 1인가구 중 남성은 35.3%, 여성은 64.61%로 여성이 다수이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42.77%를 차지한다. 전체 1인가구 중 43.47%는 여가활동에의 지출이 0원이고 여성보다 남성 1인가구의 여가활동 지출이 유의하게 높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유형은 단체 여행 및 운동이고 남성들은 오락시설과 개인여행을 즐겼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60대~80대 여성노인들은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뚜렷이 낮고 1년에 한 번 이상 참여해본 여가스포츠 종목의 수가 적고, 각 종목별로 참여해본 인구의 비율도 적으며, 건강습관이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김미혜 외 2018; 임민경·고영미 2018; 이연주 외 2015).

건강문제에서도 여성 1인가구는 다인가구의 여성들에 비해 여러 지표가 열악한 상태에서 주관적 건강이 나쁘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며, 고혈압·당뇨·고지혈증·관절염 등 질환이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은경·박숙경, 2016).

만성질환과 같은 신체적 건강은 물론 우울 등의 정신건강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9차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50세 이상의 중고령 1

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에서 우울이라는 정신건강 요인은 모든 연령대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였으며, 65~74세 전기고령인구들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모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윤강인·강인선 2016). 건강행동이나 미충족 의료 등 건강관련 삶의 만족도에서 여성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채현주·김미중 2019). 따라서 여성 1인가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한편, 경제적 요인이나 사회적 관계 요인, 건강요인, 주거나 식생활 등이 포괄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 노후준비나 죽음 불안 등 미래전망의 시각 또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임을 알 수 있다. 30세 이상 1인가구에 대한 연구에서 미혼이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기혼에 비해 미혼의 삶의 만족도가 높고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서명희 외 2017).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가족간 정서 및 사회적 노후준비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최은영·주소현 2018). 이에 비해 노인들의 죽음 불안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더 많이 느꼈다(이선영 외, 2019). 여성독거노인들의 우울과 죽음불안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독거기간이 늘어날수록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남기민·정은경, 2011).

1인가구에 대한 학술연구 검토를 위해 학술지 전문 검색 사이트를 통해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3년(2018~2020년)간의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검토내용은 <부록 표 1>과 같다.

〈부록 1〉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학술연구)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18	임유진박미현, 「1인가구 중년의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최근 증가하는 1인가구 중년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박탈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한국 복지 패널 DB, 회귀 분석	40~64세 중년 1인가구 344명	사회적 박탈, 식생활 박탈, 주거 박탈	- 1인가구 중년의 우울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박탈, 식생활 박탈 및 주거 박탈에 초점을 두고 정책적, 실천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020	문채영 외, 「주관적으로 판단한 본인과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른 청년 1인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기대」	청년 대상 주거 지원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설문 조사, t/F 검증	19~39세 미혼 청년 전월세 1인가구 210명	주관적 본인/부모 경제수준, 주거실태, 주거기대, 정책 선호도 및 인식	- 청년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거나 좌우되지 않고 물리적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스스로의 경제수준으로도 양질의 주거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고, 정책에 대한 홍보/교육 필요
2020	장임숙, 「1인가구의 젠더 특성과 정책방안」	1인가구의 젠더특성을 분석하고 1인가구의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정책과제를 제시	문헌 고찰	1인가구 관련 정책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 1인가구는 성별, 세대별로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1인가구 내에서도 정책수요가 매우 이질적임. 지역차원에서 1인가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과 중장기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고, 일자리, 주거, 소득보장, 사회관계망 구축 등에 대한 젠더 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이 요구됨
2019	박은정, 「1인가구와 다인가구 미혼자의 전일제임금근로자의 일상생활생계를 살펴보고 생활 시간배분, 일과 생활의 균형, 생활실태와 문제점을 포착하여 삶의 질 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정책 방안 모색」	1인가구와 다인가구 미혼자의 전일제임금근로자의 일상생활생계를 살펴보고 생활 시간배분, 일과 생활의 균형, 생활실태와 문제점을 포착하여 삶의 질 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정책 방안 모색	생활시간조사, 로지스틱회귀 분석	20세~59세의 1인가구와 다인가구 (미혼자)	필수생활 시간, 의무생활, 여가시간	- 다인가구의 가사노동수행에서 성역할 차이가 크게 존재 - 1인가구와 다인가구 미혼자의 전일제임금근로자의 여가활동시간 구성은 비근무일에서 차이가 있음 - 다인가구의 시간부족감에서 성차가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부족감을 보였고, 특히 여성의 부족감이 심함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19	허준수 외, '노동시장 참여 고령 1인가구의 직무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령 1인가구의 직무만족도의 주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고 관련분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 활성화 방안 제언	한국노동패널조사DB, 회귀분석	55세 이상의 고령 1인가구 308명	성별, 연령, 건강·심리, 노동경제, 직무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성별을 고려한 노동정책 및 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와 직업훈련을 추진 - 고령자 취업직종개발에 있어서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
2019	김병석, '1인가구의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인가구의 주거특성 요인을 분석하여 거만족도 향상 정책 방향 모색	주거실태조사DB, 로짓모형	1인가구 2,254가구	성별, 주택유형, 점유형태, 근린환경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 필요 -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셰어하우스, 코하우징 등 공동체주택 도입 확대 필요 - 1인가구의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과 치안 및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생활기반시설과 연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며, 사회적 안정망 강화 정책 필요
2020	하희송·박한실, '여성의 성범죄 두려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성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성범죄 두려움 감소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CCTV 효과성 검증	전국범죄피해조사DB, 비선형 로짓모형	성범죄 두려움에 대한 설문응답한 여성 7,056명	가구유형, 예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 두려움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성의 연령대(개인적 특성)나 지역사회 무질서와 공식적 통제 질서(지역적 특성) - 여성의 성범죄 두려움은 여성의 연령이 50대 미만일수록 성범죄 두려움은 유의미하게 증가 - 특히, 1인가구 여성은 다인 가구 여성에 비해 과거의 범죄 피해 경험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높게 느낌
2020	김원중, '1인가구와 범죄,	1인가구와 범죄발생의 관계를 규명하여 1인가구 거주환경 안전 정책 모색	인구주택총조사, 관서별 5대범죄율DB	1인가구	5대범죄(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1인가구 비율이 1%p 증가할 때 5대 범죄율은 10만 명당 약 247건까지 증가 - 5대 범죄 중에서도 1인가구의 증가에 영향을 받는 범죄는 성범죄와 절도범죄 - 1인가구의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1인가구가 있는 지역의 사회적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필요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20	오영은이정화, "성인자녀와의 사회적 지원교환이 농촌과 도시 1인가구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녀와의 사회적 지원교환이 노인의 삶의 미치는 영향을 농촌과 도시를 비교하여 노인 1인가구 정책수립에 기여	노인실태조사 DB, 회귀분석	노인 1인가구 (도시/농촌)	사회적 지원교환, 삶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노인이 자신이 사는 마을 안에서 마을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기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인프라 구축 필요 - 농촌과 도시 1인가구 노인 모두 정서적, 도구적, 수발지원에 대한 자원체계 연계 필요 - 도시지역 노인 1인가구의 경제적 빈곤은 자살생각에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 - 1인가구 노인의 자살예방중심의 커뮤니티케어체계 강화
2019	조규원김태형, "도시 1인가구의 주거지 결정에 대한 젠더 차이.	주거지 결정에서의 성별 불평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심층 인터뷰	20~39세 1인가구 (여성 8명, 남성 7명)	주거욕구, 안전성, 주거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회비용 상실에서 거주환경에 대한 불평등 발생함.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물리적 변수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함 - 여성 1인가구의 주거 및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주거정책 필요
2019	정혜은, "1인가구의 사회관계 만족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관계 만족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1인가구 여부가 조절하는지 검증	한국 복지패널 DB, 조절 회귀 분석	20세 이상 가구원 4,340명	우울감, 사회관계, 1인가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관계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감에 부정적 영향 - 사회관계만족도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1인가구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남 - 1인가구 대상 쉼어하우스 확대와 혼인상태에 따른 사회적 관계조성 방안 마련 필요함
2018	장진희, "1인가구와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서울시 1인가구 지원정책 또는 서울시 범죄예방 정책 수립 시 정책대상·사업지 선정 등에 1인가구가 적극반영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토대를 제공	(2014~2016년) 자치구 별 균형 형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사용	서울시 1인가구	5대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수가 증가하면 5대 범죄 발생건수는 증가, 여성인구비와 유흥업소비도 5대 범죄발생을 늘리는 결과 - CCTV와 치안시설비는 5대범죄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여성안심택배도 5대범죄감소에 긍정적 영향 발생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안전한 환경 구축 필요, CCTV와 CPTED 설치를위한 조례 또는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함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18	정윤혜·이유미, 「도시형생활주택의 물리적 현황과 1인가구 특성이 범죄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택의 물리적 현황 및 거주자 특성을 파악하고 두 가지 요인이 1인가구 주택 범죄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	설문조사 170명	서울시 원룸 거주 1인가구	주택의 물리적 현황, 거주자 특성, 범죄 불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선택시 다양한 주거환경을 고려한 주거지 선택이라기보다 학교 · 회사와의 접근성 또는 교통환경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 -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교통환경 이외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 필요 - 1인가구의 생활특성에 따라 범죄 불안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명 유지시간, CCTV 가동시간 및 위치 등의 기준을 마련 필요 - 다양한 주택방법 시스템의 개발과 도입 필요
2018	이명선 외, 「1인가구의 신체적 건강수준, 건강행태와 주관적 우울감의 관련성.	1인가구의 신체적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와 우울감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 제공	지역 사회 건강 조사 DB, 회귀 분석	19세 이상 1인가구 29,146명	우울감, 건강수준, 건강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의 우울감 경험률이 다인가구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이며, 신체적 건강수준을 높이고 건강행태를 수정하기 위한 중재전략이 필요함 - 1인가구의 거주 환경에서 올바른 식습관은 영양상태와 연결될 수 있으며,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재가 필요한 중요한 건강문제임 - 1인가구의 경우 결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필요
2018	정기성·김효정, 「서울시 2030 직장인 1인가구의 주거만족도와 주거환경요인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 1인가구 중 20~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요인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고 전체 주거 만족도에 관한 영향 요인을 규명	설문조사,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에 거주하는 2~30대 직장인 1인가구 160명	건물특성, 입지특성, 실내환경 특성, 실내공간 특성, 경제성, 사회관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2030 직장인 1인가구 계층은 주거 만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내부의 시설, 디자인 등임 - 1인가구의 사회관계성 회복을 위해 공간 내부의 건축적, 환경적, 디자인적 질을 높이고, 건물의 보안과 편리성을 갖춘 맞춤형 주택을 공급 필요 - 2030 직장인 1인가구 계층의 주거선택 다양성 확대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주거 열망(aspirations)을 실현할 수 있는 주거환경 공급 필요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20	김선주, "1인가구의 연령대별 특성과 주거만족도.	1인가구의 연령대별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재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함. 이를 통해 연령대별 1인가구의 구체적인 주거정책을 제시	재정패널 DB	1인 가구 771명	재무특성, 주택주거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은 월세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주거비 부담을 감소하는 임대주택의 마련과 정책적 금융정책의 확대가 필요함 - 중장년층은 지출이 확대되는 시기와 더불어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이 두 문제를 연결선상에서 해결하는 부동산 금융상품의 마련과 1인가구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서적 보완제도 등을 고려 필요함 - 고령층은 현금흐름의 제약을 완화하는 부동산의 유동화가 필요하며, 고령자가 생활하기에 편안한 주거형태의 공급정책을 마련 필요함
2019	김정은, "남녀 1인가구가 차별적으로 인지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연구.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할 때 남녀가 차별적으로 인지하는 스트레스원 및 스트레스원들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 방법 모색	설문 조사	서울/경기 남녀 1인 가구 500	경제와 주거, 건강, 사회관계, 편견, 노후, 안전, 성욕, 외로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1인가구는 대체로 남성 1인가구보다 유의하게 높은 스트레스 수준임. 범죄예외의 노출/안전 문제는 가장 큰 남녀 격차를 보였으며(여성이 높음), 성욕구 해결은 두 번째로 큰 격차를 보임(남성이 높음) - 1인가구 대상의 상담이나 치료 관련 서비스 확대 및 특성에 따라 다양화 필요 -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상담에서는 상담사의 조력자, 지지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
2018	권연화최열, "1인가구의 연령별 특성에 따른 주거 상하향 이동에 관한 연구.	1인가구의 연령별 특성에 따른 주거이동 결정요인과 주거이동방향 분석하여, 1인가구에게 적합한 주택수급 조정정책 등을 마련하는 데 기여	주거 실태 조사 DB	1인 가구 4,046 가구	주거이동 및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1인가구가 주거상하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채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 필요 - 경제력이 낮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주거수준이 더 열악해지는 것을 막고, 원치않는 주거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거복지지원의 정책 마련 필요 - 개별주택의 개·보수지원을 통해 주거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서비스시설의 확충 등주거지환경개선 정책 필요

2. 1인가구에 대한 연구보고서 검토

본 연구는 전북연구원의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만족도(2020)」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각 지자체 단위에서 발행된 연구보고서의 경우 여성을 대상으로 특정 집단과 주제를 다루는 연구(장진희 2016; 주혜진 2015; 황정임 2013),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 사회관계망, 주거, 건강 등 생활의 전반 분야를 다루는 연구(문은영 2013; 주혜진 2017), 전체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성별차이를 보여 특정 주제를 다루는 연구(김종숙 2014; 반정호 2014), 전체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성별 차이와 세대별 차이 등에 주목하여 전반적인 삶의 실태를 다루는 연구(김민지 2018; 노경혜 2018; 박은미 2018)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부록 2〉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연구보고서)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13	황정임 외,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도시지역의 비혼1인가구 및 저소득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고 이들의 실태와 수요에 근거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	질적 연구	비혼 1인 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구	주거안정성, 주거비용, 주거쾌적성,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구주가구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주거안정 지원의 확대 필요 - 주거지원의 안정성 제고 및 주거지원 이후의 주거자립 지원 강화 -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안전을 위한 제도화 추진 필요
2018	최성은 외, 「세종시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시의 1인가구 현황을 검토하여 세종시 1인가구의 특징적인 면을 도출하고,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과 같은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방안을 고려함으로써 20~30대 청년 1인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질적 연구	1인 가구 (20~30대)	보건/복지, 문화/여가, 경제활동, 사회/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의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하고, 여성 노인 1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의 경우 '자기개발'이 가능한 문화·여가 생활을 원함 - 중년층 1인가구주의 생활편의를 위한 정책마련을 요구함 - 동 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의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과 청년 1인가구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높았음 - 여성 1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남성보다 크게 나타남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18	유은경, '강원도 청년 1인가구의 성별 특성 및 정책과제, 강원도여성 가족연구원	강원도 청년 1인가구의 특성과 성별 차이를 알아보고,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양적/ 질적 연구	청년 1인가구 (20~39세)	소득, 주거/안전,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대를 정점으로 남녀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가구의 취업률은 낮아짐. 전체적으로는 여성보다 남성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20대의 경우는 여성 1인가구의 취업률이 더 높음 - 60대 이상 부대는 여성1인가구의 경우 남성보다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존재 - 대부분 안전문제와 불편한 교통여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주거환경에 있음 - 여가시간에는 주로 운동과 SNS를 중심으로 개인활동을 하며, 주말은 친구나 원가족과의 여행도 자주 가는 편으로 나타남 -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 중심의 창업지원제도의 필요성도 대두됨
2016	장진희,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203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불안정주거와 안전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 가족재단	서울시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제적 위치와 주거환경,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고 주거안정과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양적/ 질적 연구	청년 여성 (20~39세)	경제, 주거,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자가 비중, 높은 주거비 부담과 부모 지원에 의존 - 주거환경으로 인한 불안감은 높으나, 주거지의 안전보다 접근성 및 주거지 비용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 - 공동체주택에 대해 비용적인 측면은 긍정적이나 사생활 보장 등의 문제점
2016	박건,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405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노후준비와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서울시여성 가족재단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포함한 다양한 생애사적 경험과 이들의 정책적 수요를 분석하여 이들 중장년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양적/ 질적 연구	40~50세 여성 1인가구	경제, 노후준비, 네트워크, 여가/사회활동, 주거/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경제생활을 살펴보면,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비율은 당연히 이혼/사별 집단의 경우가 높음 - 노후의 불안감을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연령대별 불안감과 다른 분포도를 보임 - 여성 1인가구의 삶은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자 장기지속적인 삶의 형태로 존중되는 속에서의 정책 필요함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16	김영정,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608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시간활용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6080 1인가구 여성의 생활 실태 및 정책지원 요구를 파악하여 서울시 6080 1인가구 여성의 활기찬 노후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정책 방안 마련	양적/ 질적 연구	60~80세 여성 1인가구	경제, 건강, 사회관계망, 차별, 여가,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를 위한 일자리, 교육, 지역 참여 프로그램 강화 필요 - 노후 거주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 마련 - 건강한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 및 응급상황 시 병원동행 - 지역 고령여성 돌봄공동체 활성화 마련 필요
2013	문은영 외, 「서울시 고령1인가구 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 거주 고령 1인가구 여성이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 조성 방안을 제시	양적/ 질적 연구	고령 1인가구	주거, 경제, 건강, 여가 및 사회참여, 사회관계, 공공서비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남성독거노인에 비해 평균 1개 이상 질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과 접촉 및 연락 빈도의 경우 여성독거노인 평균 빈도는 남성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 독거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과 연락 및 접촉하는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1인가구여성은 '건강관련분야'와 '일상생활' 관련 분야에서의 욕구비율이 남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014	김종숙 외,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고용과 가구 경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대별, 성별 1인가구의 경제활동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에게 요구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특성별로 효율적인 정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양적/ 질적 연구	1인가구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년기 1인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함 - 중년여성 1인가구는 저소득층 비중이 높음 - 청년기에는 1인가구와 비1인가구 간 격차와 성별 격차가 크지 않았음 - 근로능력이 있는 비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14	반정호, 「1인가구의 고용과 빈곤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인가구의 인구사회적·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1인가구의 증가가 빈곤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동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양적 연구	1인 가구	빈곤실태, 소득불평등, 소비실태, 사회경제적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는 2인 이상 가구와 달리 여성, 중고령층 이상의 노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과 함께 1인가구에서 20대 청년층 가구수가 줄고, 3-40대 노동시장 핵심연령층이 증가 - 1인가구의 주거환경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고, 다수의 가구가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을 상회하는 적자가구로 분석됨 - 전반적으로 여성가주 가구의 빈곤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특히 1인 여성가구의 빈곤율은 타가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냄
2015	주혜진 외, 「대전지역 여성 1인 가구 안전 지원방안, 대전발전연구원	젠더관점을 도시공간 해석에 도입함으로써, 1인가구 여성뿐만 아니라 거주인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을 위해 안전과 관련한 지역정책 발굴	질적 연구	여성 1인 가구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거주지에 거주하는 주된 이유는 '직장이나 취업' 때문임 - 거주지 선택 고려사항으로 여성 1인가구주들은 '교통 편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 1인가구주나 2인 이상 가구의 여성가구원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임 - 골목, 건물 CCTV 설치 및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필요함
2018	박은미, 「경상북도 1인가구 실태 및 정책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지역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제시	양적/질적 연구	1인 가구 (20세 이상)	건강, 네트워크, 주거/안전,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20~40대, 도시지역, 대졸 이상, 비혼 등의 집단에서 1인가구를 자발적 선택 비율이 높게 나타남 -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갖추어야 할 것으로는 경제력이 가장 높게 나타남. 여성은 경제력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남성은 요리 및 가사활동에서 높음 - 1인가구에 대한 필요 정책분야는 생활 및 건강지원 정책이 가장 높고, 이어서 주거 및 안전지원 정책, 경제지원 정책 등임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19	권안나, 「울산광역시 1인가구 현황 및 가족정책 방향 연구, 울산여성 가족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가족으로 자리매김한 1인가구의 특성 분석 - 향후 울산시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마련 및 가족정책의 방향성 설정 	양적/ 질적 연구	1인가 구 500명	생활, 주거 및 안전, 일·생활 균형 및 경제생활, 건강 및 노후생활, 여가 및 돌봄, 사회적 관계망, 정책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 1인가구의 경우, '자기집'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 1인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에 가장 많이 거주하였음 - 1인가구 가족정책 추진체계 구축 필요 - 안정된 일자리 및 거주환경 구축 필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환경 구축 필요 - 건강한 삶 및 사회적 관계망 구축 필요
2019	김영정, 「1인가구 주거공동체 및 사회적 관계 활성화 방안, 서울시여성 가족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공동체 주거 현황 및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1인가구 사회적 관계 활성화 정책지원 방안 제시 - 1인가구 공동체 주거가 갖는 대안적 생활공동체 논의에서의 함의 도출 	양적/ 질적 연구	서울지 역 공동체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인가 구 생활자 146명	삶, 공동체주거 생활, 입주자 공동체 활동, 공동체주거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우 현 거주지의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으나, 공동체주거에서는 불안감이 낮게 나타남 - 공동체주거 홍보 강화 및 지원 범위 확대 - 입주자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공동체규약 제정 가이드라인 및 갈등해결 프로그램 지원 - 사례발굴 및 확산 - 공동체주거 코디네이터 양성 및 역량강화 - 유관기관 협의 정례화
2018	노경혜 외, 「경기도 1인가구 삶의 질 연구, 경기도가족 여성연구원	경기도 1인가구의 성별, 생애주기, 지역특성이 반영된 삶의 질의 차이와 정책 욕구를 이해하고, 이것이 경기도 1인가구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양적/ 질적 연구	1인 가구. (청년기 /중장 년기/노 년기)	소득, 주거, 사회적 관계망, 여가, 일상생활 및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보다 남성이 직장 1인가구인 경우가 많으며, 여성은 사별의 이유가 많음.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결혼의향이 높음 - 여성은 자가 비율이 높고, 남성은 월세가 많으며, 여성의 거주지 만족이 더 높음 - 여성 1인가구는 주거지와 관련하여 더 치안방범에 대한 불만이 더 높고, 남성 1인가구는 주차 시설 부족이 주요한 불만 이유 중 하나임 - 삶에 대한 만족에 있어 여성 1인가구 및 청년기 1인가구의 만족이 높은 편임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18	김민지, 「대구지역 여성 1인가구 실태 및 지원방안. 대구여성 가족재단	대구지역의 여성 1인가구의 경제, 주거안전, 복지 등의 생활실태와 정책육구 파악을 통한 여성 1인가구 지원방안 제시	양적/ 질적 연구	여성 1인 가구	경제, 주거/안전, 건강 및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취약성 높음. 경제지원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주거안전 불안 높고, 주거안정성 낮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으로 여가활동이 어려움
2014	하정화 외, 「부산지역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부산여성 가족개발원	부산지역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별, 연령별, 형성배경별, 소득별 등을 배경으로 한 지원방안을 제안	양적/ 질적 연구	1인 가구 (단, 여성 1인 가구 2/3)	형성배경 및 만족도, 주거/생활, 건강, 사회적 관계망, 노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 1인 가구는 거주환경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기며 방법활동 및 보안장치 강화, 지역사회 안전시스템에 대한 정책지원을 더 필요로 하였음 - 연령대별에서는 40~50대가 20~30대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해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형성배경별에서 전체적으로 미혼 1인가구가 분거, 이혼에 비해 다양한 일자리 제공, 구직활동기간 중 한시적 생계비 지원, 다양한 실비 직업훈련 제공 등을 더 필요로 함
2017	홍승아 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1인가구의 생활실태, 가족관련 가치관,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가족정책 대응방안 모색	양적/ 질적 연구	25~44세 비혼/미혼 1인 가구	생활실태, 성 및 가족가치관, 정책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나, 성별로 차이가 나타남 - 여성보다 남성이, 35~44세보다 25~34세가 장시간 근로 - 대부분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여성보다 남성의 부채금액이 높게 나타남 - 여성 1인가구가 남성보다 범죄 노출 위험이 더 크다는 응답이 더 높아서, 성별에 따라 안전 문제가 다르게 나타남

연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2018	양수진, 「인천시 1인 가구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인천여성 가족재단	1인가구의 성별과 연령을 비롯해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생활상을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본 다음 1인가구의 생활편의 증진 및 심리적 안정 도모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안	양적/ 질적 연구	1인 가구	경제, 주거, 건강, 관계,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내에서도 성별, 연령에 따라 경제적 특성이 상이함 - 여성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경향을 보이고, 노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짐 - 자가 소비비율이 낮고, 여성은 주거 영역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남 - 중장년과 노년층의 우울수준이 높고, 정신건강에 취약성 보임 - 20~40대 1인가구의 경우 주변과 적절히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년층의 사회적 교류가 적어지고 관계의 단절을 더욱 경험함
2017	주혜진, 「대전지역 여성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 현안, 대전세종연구원	사회조사 설문결과를 활용해 유형화하여 대전시 1인가구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	양적/ 질적 연구	여성 1인 가구	(군집분석) 사무직 미혼여성, 노령의 주부여성, 돌아온 중년여성, 대학생 미혼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직 미혼여성: 대졸이며 안정된 고용을 바탕으로 여가생활도 적극적인 편. 연립/다세대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고, 이웃과의 소통엔 소극적인 편 - 노령의 주부여성: 학력이 낮고, 소득도 적은 편이며 여가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임. 자기소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염려되나 이웃과의 소통은 가장 활발함 - 돌아온 중년여성: 고졸의 판매업 종사자이며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바탕으로 여가생활도 하는 편. 자기 소유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 - 대학생 미혼여성: 직업이 없고, 월 소득이 적으나 활발하게 여가생활을 즐김. 연립/다세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며 이웃과의 소통에는 가장 소극적임

자료: 이수인 외(2020a),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질 연구.에서 수정·보완하여 인용함.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유진. 2017. “성인남녀의 비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인구학적 특징 및 가족가치관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8(2), 241-256
- 강은영·진미정·옥선화. 2010. “비혼 여성의 비혼 자발성 관련요인 탐색: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2), 135-144
- 경기남부인터넷신문. 2021. 2. 9. 의정부시, 도시안전 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도시 기반 마련 <http://www.gnnews.co.kr/news/article.html?no=188059>
- 경향신문 2020. 3. 5. “언니들의 플랫폼 생활(1) 노년의 길목에 들어선 비혼 여성들, 또 다시 같이 살기로 했다”
- 권문영. 2018. “비혼 여성의 소외와 노후 불안: 30~40대 비혼 여성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8(2), 48-86
- 권종선. 2019. “중노년 1인가구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5 No.1, 153-167
- 김경희 외. 2020.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김기태·박봉길. 2000.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지지망 - 지역복지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1), 153-168.
- 김미혜·원형중·권지혜·황선영, 2018, “여성노인 1인가구의 여가스포츠 참여 특성과 여가만족 및 행복”.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4, 449-458.
- 김상훈·한혜련, 2014. “CPTED 가이드라인을 통한 여성 1인가구 주거환경 제안”,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3(6), 160-168
- 김선주·김행중, 2018, “1인가구의 자산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2), 111-119
- 김은경·박숙경. 2016, “우리나라 여성 1인가구와 다인가구 여성의 건강행태 및 질병이환율 비교: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0(3), 483-494
- 김정은·정혜은·남영주, 2018, “여성 1인가구 현황과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국내 2차자료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3(3), 463-488
- 김진영, 2013, “여성 1인가구 소형임대주택계획을 위한 주거의사와 주거요구-서울

- 특별시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4(4), 109-120
- 김혜정. 2019. “비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 갖기: 소위 ‘공동체’의 실험과 그 의미”, 『비혼을 피우다』,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 김혜정. 2015.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5권 2호, 7-40
- 나영정. 2019. “가족구성권 운동과 생활동반자등록법의 필요성”, 『비혼을 피우다』,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 나정호. 2021 발간예정. 『전북형 공공생활업 도입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남기민·정은경. 2011. “여성독거노인들이 인지한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2, 325-348.
- 노경혜 외. 2018. 『경기도 1인가구 삶의 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뉴스1 2021. 3. 25. “‘부안군 도시 안전관리 효율성 높인다’...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착수”
- 박건·김연재.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405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노후 준비와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박미선·조윤지. 2020.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시 위기 시대, 1인가구 주거불안 양상과 주거정책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18, 국토연구원
- 반정호. 2012.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 『노동리뷰』. 2012년 4월, 55-67
- (사) 나눔과 미래 따뜻한 사회주택기금. 2021. “요즘 원룸, 이렇게 변했다? 원룸의 변신은 무죄” <https://interior.realestate.daum.net/asp/story/View.do?mngIdx=1666>
- 서명희·김영희·이현옥. 2017. “1인가구의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연구: 미혼과 기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 718-727
- 서환석·전희진. 2021. “국내 가정간편식(HMR) 시장의 성장과 전북의 대응방안”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vol.248
- 석재은. 2007. “독거노인의 실태와 정책과제”, 『월간복지동향』, 102, 37-40
- 석재은. 2018. “비혼여성의 부모돌봄 경험: 부정의(不正義)한 독박돌봄을 넘어 돌봄민주주의를 향하여.” 『비혼/딸 부모돌봄, 두려움과 막막함 사이: 돌봄연대사회를 상상하다』. 한국여성민우회

- 송영신, 2015, “여성 노인 1인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7(2), 33-72
- 신상영, 2010. “1인 가구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5(4), 81-95.
- 심영, 2002.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97-208.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10.1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제“가족센터”로 불러주세요”
- 여성가족부, 2017.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 여성가족부, 2021.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 염지혜·전미애, 2020, “단독가구 노인의 가족관계가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0(2), 239-255
- 유지영, 2019, “우리나라 여성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7(10), 85-91
- 윤강인·강인선, 2016, “중고령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찰: 센(Sen)의 역량접근이론을 통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36(2) 457-473
- 이동욱, 2020. “여성주의 관점에서 대안적 노인여성 공동체에 관한 연구: 사회참여와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6(2), 75-108
- 이명진, 2019. “유럽의 1인 가구 관련 정책 동향: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11, 16-26
- 이명진·최유정·이상수, 2014,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229-253
- 이미정, 2019. “만나면 좋은 비혼”, 『비혼을 피우다』,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 이선영·정한채·고대영, 2019, “가구유형에 따른 노인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생태체계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32, 53-78
- 이성림·김기욱, 2009, “우리나라 독신가구의 여가활동 소비지출패턴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2(3), 105-123
- 이수인·전희진·최지훈, 2020a.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만족도』, 전북

연구원

- 이수인·전희진·최지훈. 2020b. 『전북 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도 시지역을 중심으로』, 전북연구원
- 이여봉. 2017. “1인가구의 현화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7. 10, 64-77
- 이연주·권민경·백희준·이상선, 2015. “서울 일부지역 여자노인들의 가구유형에 따 른 영양소 섭취실태 및 식사의 질 평가”. 『한국영양학회』, 48(3), 277-288.
- 이지숙. 2009. “지방도시 독거노인의 거주환경에 대한 개조요구”. 『디자인지식저 널』, 11, 70-77.
- 이진숙, 이윤석, 2014, 비혼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여성과 남성의 교제활동 시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7(4), 1-24
- 이희연·노승철·최은. 2011. “1인 가구의 인구 · 경제 ·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 패턴 과 공간분포”. 『대한지리학회지』, 46(4), 481-501.
- 임미화, 2020, “성별 주거비용 비교분석”, 『주택연구』, 28(2), 113-129
- 임민경·고영미, 2018, “비동거자녀 지원이 1인가구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 별에 따른 비교”,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3), 265-277
- 장재원·이지원. 2019.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발생에 도시환경이 미치는 영향." 『한국 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10. 85-86.
- 장진희, 2018 “1인 가구와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9(4)
- 조규원·김태형, 2019 “도시 1인가구의 주거지 결정에 대한 젠더 차이: 관악구 20~30대 가구의 안전성 욕구와 주거비를 중심으로” 국토계 획, 54(5), 5-16.
- 지은숙. 2019. “비혼의 페미니즘과 돌봄,” 『비혼을 피우다』,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 협동조합
- 채현주·김미중, 2019, “1인 가구 성인 여성과 다인 가구 성인 여성의 건강행태, 의 료서비스이용과 건강관련 삶의 질”,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5(3), 299-314
- 최경원·임연옥·윤현숙. 2012. “사별 여성노인의 가구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의 차이 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55. 85-105
- 최성현, 2020, “도시 거주 노인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및 경제활동 참여 유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2) 244-282
- 최성현·허준수, 2019, “경제활동 참여 고령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 삶의 만족도의 관계 연구: 장애수용 및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9(4), 69-95
- 최원진. 2018. “‘딸’을 넘어 시민을 상상하다.” 『비혼/딸 부모돌봄, 두려움과 막막함 사이: 돌봄연대사회를 상상하다』. 한국여성민우회
- 최은영·주소현, 2018, “다변량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은퇴와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4(2), 21-44
- 한민경, 2019, “서울 행정동별 성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특성: 여성 1인가구 비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9. 12. 39-71
- KBS뉴스. 2020. 1. 22. “‘시댁→시가’ ‘안사람→배우자’...서울시, 성평등 명절사전
- Dales, Laura. 2014. “Ohitorisama, Singlehood and Agency in Japan,” *Asian Studies Review* 38(2), 224-242
- Esteve, Albert, David S. Reher, Rocío Treviño, Pilar Zuera, Anna Turu. 2020. “Living Alone over the Life Course: Cross-National Variations on an Emerging Issu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6(1), 169-189
- Giddens, Anthony.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Late Modern Age*. Cambridge: Policy
- Ho, Jeong-Hwo. 2015. “The problem group?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married people living alone in the Republic of Korea,” *Demographic Research* 32, 1299-1328
- Piekut, Marlena. 2020. “Living Standards in One-Person Households of the Elderly Population”, *Sustainability* 12
- Ronald, Richard. 2017. “The Remarkable Rise and Particular Context of Younger One-Person Households in Seoul and Tokyo,” *City & Community* 16(1), 25-46
- Teerawichitchainan, Bussarawan, John Knodel and Wiraporn Pothisiri. 2015. “What does living alone really mean for older persons? A comparative study of Myanmar, Vietnam, and Thailand,” *Demographic Research* 32, 1299-1328
- Yeung, Wei-Jun Jean & Adam Ka-Lok Cheung. 2015. “Living Alone: One-person households in Asia,” *Demographic Research* 32, 1099-1112

정책연구 2021-20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

발행인 | 권혁남

발행일 | 2021년 11월 30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45-2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